

2014 강릉단오제 평가 및 발전방안



제 출 문

(사)강릉단오제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4년 강릉단오제 평가 및 발전방안』
용역보고서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4년 9월

연구책임자 : 강릉원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관광경영학과 교수 함석중

연구진

책임연구원 함 석 종(강릉원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연구원 박 선 희(강릉원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강사)

연구보조 강지선 고은지 류석환 박수형 송영철

여지은 이예나 이은석 이정환 이찬혁

장단정 조아라 조유미 조은별 주준범

최은선 최희주 홍준영

(강릉원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학부생)

목 차

I. 과업수행 개요

-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1
- 2. 과업의 범위 12

II. 2014 강릉단오제 개요 및 축제운영

- 1. 2014 강릉단오제 개요 14
- 2. 2014 강릉단오제 주요 프로그램 17
- 3. 2014 강릉단오제 공간 및 시설 배치 22
- 4. 2014 강릉단오제 홍보 전략 25

III. 2014 강릉단오제 운영 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

- 1. 모니터링 개요 29
- 2. 2014 강릉단오제 주요 프로그램 31
- 3. 2014 강릉단오제 공간 및 시설 배치 83
- 4. 2014 강릉단오제 홍보 전략 88
- 5. 2014 강릉단오제 조직 및 운영 90
- 6. 인터넷상의 방문 후기 모니터링 92
- 7. 2014 강릉단오제 방문객 추정 94

IV. 2014 강릉단오제 평가 분석

1. 조사개요	97
2. 2014 강릉단오제 방문객 설문조사 분석 결과	99
3. 2014 강릉단오제 전문가 진단 결과	127
4. 2014 강릉단오제 운영진 평가 결과	132
5. 2014 강릉단오제 종합평가 분석 결과	134

V. 2014 강릉단오제 파급효과

1. 경제적 파급효과	138
2. 사회문화적 영향	147
3. 환경적 영향	148

VI. 강릉단오제 과제 및 활성화 방안

1. 들어가는 말	149
2. 기본방향	149
3. 2014 강릉단오제 SWOT분석	150
4. 강릉단오제 문제점 및 과제	151
5. 강릉단오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153
6. 중장기 발전 전략(강릉단오제 발전 3단계 전략)	163

부록

방문객 설문지	165
모니터링지	170
인터넷 모니터링	172

표 목 차

<모니터링 항목>	30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100
<거주지 분포>	102
<방문횟수 / 동반자 유형 / 동반자 수>	103
<정보습득경로>	105
<기념품 구입 품목>	107
<선호 프로그램 순위>	109
<관광객 숙박유형>	110
<관광객 교통수단>	111
<지출비용 내역>	112
<방문동기>	114
<인지도>	116
<지정문화재 관람 또는 참가 유무>	118
<만족도>	121
<강릉단오제 수입/지출표>	139
<축제운영관리 지출의 경제 파급 효과>	140
<방문객 1인당 평균 지출액>	141
<방문객 총 지출액>	142
<관광객 소비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제1안)>	143
<관광객 소비지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제2안)>	144
<2014 강릉단오제 경제적 파급효과>	146

I. 과업수행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연례적인 조사 및 평가
 - 2000년 이후 연례적으로 강릉단오제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통해서 계획대로 행사가 잘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음
- 2015년에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기념 특별행사를 기획하기 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함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즈음한 올림픽 개최 도시의 대표 축제로서 역할 및 활용 방안 탐색, 상시 미니 단오제 시연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강릉단오제의 축제 원형의 보존 상태,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 행사 운영 관리, 마케팅(홍보 등) 활동, 방문객과 지역 주민의 축제에 대한 인지도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나.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2014년 강릉단오제 행사장 일원에서 행해지는 강릉단오제(축제)에 대한 행사의 진행 상황, 프로그램의 운영, 시설의 운영 및 관리,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단오제 참여 및 인지도, 홍보 등의 마케팅 활동 등을 조사, 분석, 평가함

- 상기의 조사, 분석, 평가를 통하여 축제활성화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함

2. 과업의 범위 및 수행방법

가.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강원도 강릉시 강릉단오제 행사장 일원

2) 시간적 범위

- 2014년 강릉단오제 행사 기간 전후 6개월(4월 15일 ~ 10월 14일)

3) 내용적 범위

- 강릉단오제 행사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분석
- 강릉단오제 행사 시설 및 부대시설, 편의시설 실태 조사 분석
- 강릉단오제 홍보 및 마케팅 조사 분석
- 강릉단오제 운영관리, 지역민, 방문객, 전문가 평가 분석
- 강릉단오제 경제, 사회, 문화 효과 분석
- 강릉단오제 발전방안 제시

나. 과업 수행 방법

1) 문헌조사

- 선행연구의 조사 분석
- 각종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2) 현장조사(FIELD SURVEY)

- 관찰 및 모니터링
- 면접
- 설문조사

3) 전문가 의견조사

- 전문가 의견조사는 국내 축제 및 관광이벤트 전문가(동 분야의 대학교수와 연구소 소장 등)들을 강릉단오제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평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요약 정리하였음

다. 자료의 분석 정리

- 기술적 방법으로 수집된 사실을 정리하였으며, 설문조사의 결과는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의 기술통계분석으로 만 이용하였음
- 강릉단오제 방문자수의 추정은 목측통계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조사의 방문자 소비지출에 대한 정보를 산업연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음

Ⅱ. 2014 강릉단오제 개요 및 축제운영

1. 2014 강릉단오제 개요

가. 행사 개요

- 행사명 : 2014 강릉단오제 - 2014 Gangneung Danoje Festival
- 주제 : 천년의 힐링로드
- 기간 : 2014. 5. 3(토) ~ 6. 5(금) / 36일간
 - 신주빚기 : 2014. 5. 3(토)(음력 4.5), 칠사당
 - 대관령산신제·국사성황제 : 2014. 5.13(화)(음력 4.15), 대관령 국사성황사 및 산신각
 - 봉안제 : 2014. 5. 13(화)(음력 4.15), 국사여성황사
 - 본행사 : 2014. 5. 31(토) ~ 6. 7(토), 단오장 일원
- 장소 : 강릉남대천 및 지정행사장
- 주최 : 사단법인 강릉단오제위원회
- 주관 : 사단법인 강릉단오제보존회 외
- 주요행사 : 지정문화재 행사 등 12개 분야 77개 프로그램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강원도,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예산현황 : 총 917,000천원(시비: 719,00천원 / 자부담 및 기타 (수익금) : 198,000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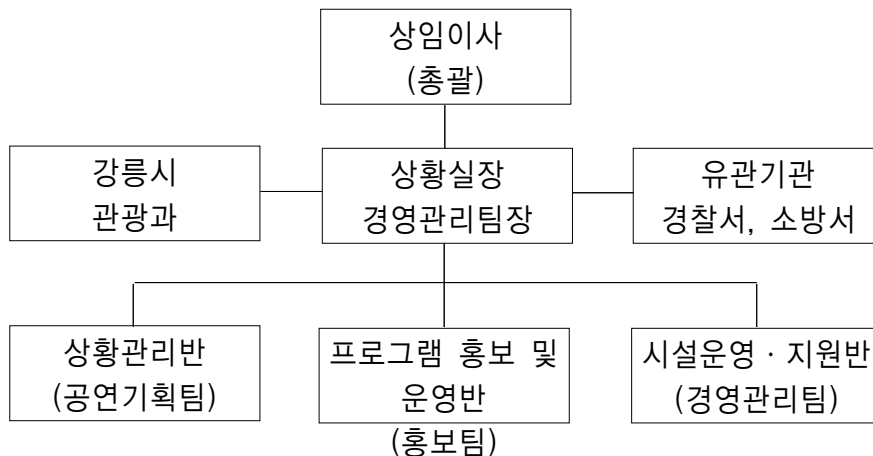
나. 행사 운영체계

1) 공연 운영 체계

- 강릉단오제위원회 사무국(상임이사 1명, 팀장 2명, 직원 4명), 공연감독 1명
- 공연장 별 감독 및 스태프
 - 수리마당 : 무대감독 1명, 진행요원 2명, 수화통역 1명, 음향 및 조명 스태프 각 3명
 - 아리마당 : 무대감독 1명, 진행요원 2명, 수화통역 1명, 음향 및 조명 스태프 각 3명
 - 단오문화관 : 무대감독 1명, 진행요원 2명, 수화통역·음향 및 조명 스태프 각 1명

2) 행사장 운영

- 행사장 운영 참가 기관 : 강릉단오제위원회, 강릉시, 경찰서, 소방서
- 행사장 운영 조직도



○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비 고
상임이사	○ 행사장 운영 총괄	
상황실장	○ 행사장 종합 상황 관리 ○ 주요 VIP 동향 관리 ○ 유관기관 등 협력체계 유지 관리 ○ 비상상황 발생시 재난종합 대책 관리	경영관리팀장
상황반장 및 상황관리요원	○ 각종 회의 및 일일상황 보고자료 작성 ○ 팀간 협조 및 조정, 주요사항 파악 보고 ○ 행사장 연락체계 유지 및 각종 자료 집계 ○ 상황실, 접견실 상황판 작성 관리 ○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 조치	팀장 및 담당자

○ 분야 업무분장

구 분	주 요 내 용
상황관리반 (공연기획팀)	○ 일일 상황보고 및 회의 운영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및 전파 ○ 주요상황 취합 처리 및 총괄 관리 ○ 각종 지시사항, 공지사항 전달 ○ 공연무대, 전시·체험, 포럼 프로그램운영·관리 ○ 공연단 및 진행요원 운영·관리 ○ 비상상황 관리 및 전파, 비상연락 체계 구축, 비상대책회의 운영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반 (홍보팀)	○ 일일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프레스룸 관리 및 운영 ○ 기자단 응대 및 기사송고 지원 ○ 관람객 현황 관리 ○ 비상상황 시 홍보
시설운영 · 지원반 (경영관리팀)	○ 개장 및 폐장 점검 및 관리 ○ 회장 운영인력 근태관리 ○ 물자관리에 따른 현황파악 관리 ○ 회장 방송, 청소, 경비, 보건, 위생 안전분야 주요 상황 접수, 보고, 전파 및 처리 ○ 기반시설 및 환경연출분야 주요상황의 접수, 보고, 전파 및 처리 ○ 차량통제, 주차장관리 등 교통관련 주요사항 접수, 보고, 전파 및 처리 ○ 각종 영업임대사업 시설 운영 상황 관리 ○ VIP 의전관리 ○ 각종 편의시설 운영상황 파악 및 관리 ○ 비상상황 시 대피유도, 응급복구 처리 및 행정지원

2. 2014 강릉단오제 주요 프로그램

가. 주요 행사

1) 지정문화재(12개 종목)

- 일 시 : 5. 31(토) ~ 6. 5(금)
- 장 소 : 칠사당, 대관령국사성황사, 구산서낭당, 학산서낭당, 홍제동 여성황사, 단오제단, 아리마당, 단오섬
- 행사명 : 신주빚기, 대관령산신제, 대관령국사성황제, 구산서낭제, 학산서낭제, 봉안제, 영신제, 영신행차, 조전제, 단오굿, 관노가면극, 송신제·소제

2) 기획공연 및 전시(3개 종목)

- 단오문화페어전
 - 단오와 의상 그리고 춤 : 6. 2(목) 16:00, 단오문화관 공연동
 - 한복입기 캠페인 : 5.31.6.7, 단오장 전체
- 주제관 : 5. 31~ 6. 7, 단오문화관 전시동
- 기획공연 : 6. 4(목) 21:00/ 6. 5(금) 21:00, 수리마당

3) 공연행사

- 전통연희 한마당(8개 종목)
 - 중요무형문화재 초청공연 2팀 2회
 - 도 무형문화재 초청공연 1팀 2회

- 지역무형문화제 공연 17팀 23회 : 관노가면극 보존회 공연 1팀 5회, 관노가면극 전수단체 공연 8팀 8회, 관노가면극 인형극 공연 1팀 3회, 단오굿 무속악 공연 1팀 2회, 강릉농악 공연 7팀 7회, 강릉학산오독떼기 공연 1팀 4회, 구정초 학산오독떼기 공연 1팀 1회, 사천하평답교놀이 공연 1팀 2회, 금산용물달기 공연 1팀 1회
- 대한민국 농악축제, KBS 농악경연대회, 어린이 농악 경연대회, 사물놀이 경연대회, 관노가면극 발표회

○ 무대공연 예술제(4개 종목)

- 무대공연예술작품 공모전 선정작 20개팀
- 국내예술단 초청공연 3팀 3회 : 탐라문화제 교류 공연, 전주세계소리축제 교류 공연, 정선아리랑제 교류 공연
- 한청 실버가요제
- 국내자매도시 교류 공연(대전 서구청)

○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3개 종목)

- 청소년 가요제, 청소년 댄스페스티벌, 어린이 설화극 발표회

○ 국외 초청 공연

- 강원 EATOF 회원국 3개국 3팀 : 일본 돗토리현, 몽골 튜브도, 베트남 광린성
- 강릉시 자매도시 1개국 1팀 : 중국 덕양시
- 국제무형문화도시 연합 회원국 2개국 2팀 : 멕시코 소치밀코, 체코 리포브잔
- 율곡연구원 교류 1개국 1팀 : 중국 사천성

4) 신통대길 길놀이

- 일시 : 5. 31(토) 19:00
- 장소 : 강릉의료원 ~ 옥천오거리 ~ 성내동 광장
- 참가팀 : 21개 읍면동 및 4개 기관단체

5) 단오체험촌(13개 종목)

- 수리취떡 맛보기, 단오신주 맛보기, 창포머리감기, 관노탈 그리기, 관노탈 목걸이·액자 만들기, 단오캐릭터 탁본하기, 단오 1,000 타일 그리기, 단오부적 그리기, 방짜열쇠고리·방짜 식기구 만들기, 단오차 체험, 범일국사호랑이 만들기, 전통주 체험장

6) 시민참여한마당(3개 종목)

- 신주미봉정행사 : 3. 20 ~ 5. 3, 21개 읍면동 사무소 및 칠사당
- 단오등 행사 : 5. 31 19:00, 강릉 거리
- 주민자치센터발표회 : 6. 3 17:00, 수리마당

7) 민속놀이 행사(5개 종목)

- 씨름대회 : 5. 31 ~ 6. 7
- 그네대회 : 5. 31 ~ 6. 7
- 투호대회 : 5. 31 ~ 6. 5
- 줄다리기대회 : 6. 2
- 윷놀이대회 : 6. 3

8) 경축문화예술행사(9개 종목)

- 강릉사투리경연대회 : 6. 2, 수리마당
- 대한민국 전통주 선발대회 : 2. 15 ~ 5. 3, 의운루(5. 3)
- 단오깃발사진전 : 5. 31 ~ 6. 7, 남대천 잠수교
- 학생 미술실기대회 : 6. 6 10:00, 단오공원
- 영주음사 한시백일장 : 6. 2
-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 : 6. 1 10:00, 단오문화관
- 솔향 바둑·장기 대회 : 6. 1 10:00, 강릉실내체육관
- 강릉전통혼례시연 : 6. 6 13:00, 아리마당
- 강릉단오제 체험기·독후감 대회 : 5. 15 ~ 6. 30

9) 부대행사(8개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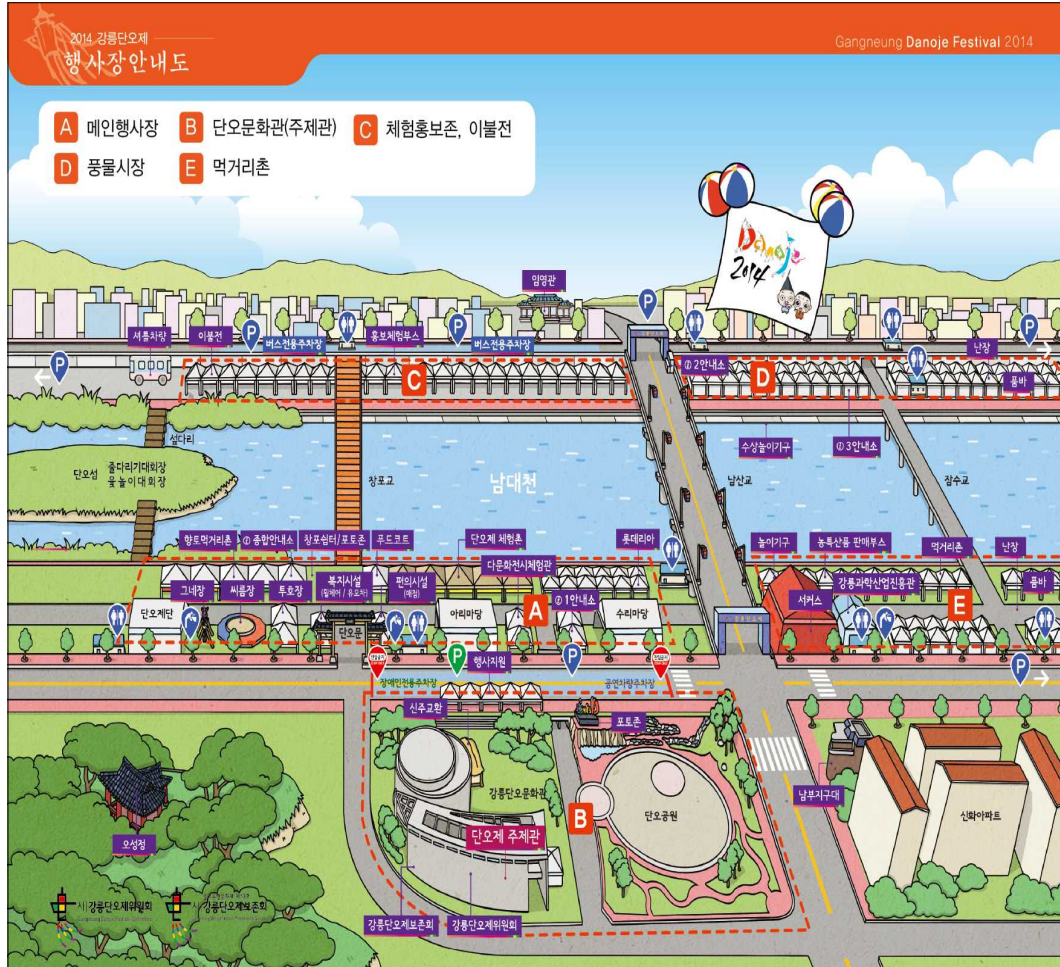
- 다문화체험촌 : 5. 31 ~ 6. 7, 남대천 단오장 내
- 전국사진공모전 : 5. 31 ~ 6. 7
- 단오우표전시회 : 5. 31 ~ 6. 7, 강릉우체국
- 팸투어 : 5. 31 ~ 6. 7
- 불꽃놀이 : 5. 31 / 6. 7, 단오섬, 창포다리
- 강릉농악체험 : 5. 31 ~ 6. 7, 강릉농악체험장
- 경품추첨행사 : 6. 7, 수리마당

3. 2014 강릉단오제 공간 및 시설 배치

가. 행사장 공간 현황

- 2014 강릉단오제의 본 행사장은 단오문화관을 중심으로 한 남대천 주변지역으로 총면적 114,350㎡임
- 행사장은 기본적으로 남대천을 중심으로 좌우에 주요 프로그램 운영 장소와 난장으로 구분하여 우측은 단오문화관, 수리마당, 아리마당을 배치하여 주제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좌측은 난장을 배치하여 동선의 혼잡을 최소화하고 관람 및 참여의 용이성을 도모하였음
- 주요시설
 - 단오제단(굿당)
 - 수리마당(메인 공연장) / 아리마당(마당놀이 전용 공연장) / 단오문화관(실내 공연장) / 난장
 - 씨름장 / 그네터
 - 단오섬 / 단오공원

나. 행사장 시설 배치



1) 구역별 행사내용

구 분	내 용
A 구역	제단, 공연장, 단오체험촌, 씨름장, 그네터 등의 메인 시설 설치
B 구역	- 단오문화관(주제관), 신주교환소 등 - 단오공원을 활용한 휴게 장소 활용
C 구역	체험 부스 및 이불전 등
D 구역	풍물시장
E 구역	서커스 및 과학 체험관, 먹거리촌 등

2) 주요시설별 설치물 상세내역

구분	내용
단오제단 (굿당)	대형텐트 20m×25m×10m, 음향, 조명, LED전광판(굿 설명), 편의시설(평상 1식, 조립식 관람석 63석, 에어컨 3대, 정수기 3대)
수리마당	무대(대형텐트 20m×15m×15m, LED전광판, 조정실용 간이무대, LED 전광판용 무대, 상하수 뒤쪽 슬로프형 계단, 바닥 포맥스 마감), 객석(대형텐트 20m×20m×8m), 음향, 조명, 편의시설(공연자 대기실용 컨테이너 3동, 에어컨 3대, 정수기 3대)
아리마당	대형텐트 25m×35m×10m, 음향, 조명, 본부석용 간이무대 9m×3.6m×0.6m, 편의시설(공연자 대기실용 컨테이너 2동, 계단식 관람석 450석, 에어컨 2대, 정수기 2대)
단오 문화관	음향, 조명, 기존 무대, 객석 453석, 편의시설(공연자 대기실 2실, 자체 냉방장치, 자체 정수기 1대)
난장	노점(몽골텐트 5m×5m:286동, 3m×6m:220동), 식당(몽골텐트 10m×10m:19동), 서커스(전용텐트 25m×35m : 1동), 놀이기구(미니회전그네, 미니페달보트, 미니기차, 미니바이킹, 에어바운스, 유로번지점프), 품바(텐트 20m×20m:2동), 과학산업진흥관(ALU-HALL 20m×20m 1동), 이불전(몽골텐트 5m×5m:20동), 화장실(6300×2500×3100 : 12동)
성내동 광장	음향, 조명, 무대(레드카펫 36m×12m, 전광판 받침대 설치), LED 전광판, 편의시설(계단식 관람석 735석, 플라스틱 의자 300석), 이동식 화장실 2동
씨름장	몽골텐트(운영본부 5m×5m 2동, 관람석 5m×5m 3동/ 3m×6m 1동), 음향, 편의시설(그늘막 18m×15m)
그네터	몽골텐트(운영본부 5m×5m 3동/ 3m×6m 1동), 음향, 편의시설(그늘막)

3) 기타시설물 설치

○ 교통통제 및 주차관리 시설

- 교통안내소 : 성내동 광장, 남산교 남단, 단오문 앞, 강릉 철교 밑
- 교통안내소 및 주차안내 : 단오문화관 주차장, 강릉의료원 앞

- 주차관리 : 홍제동 둔치
- 경비 및 노점단속 센터 : 남산교 북단
- 편의시설
 - 화장실 · 쉼터 · 매점 · 수유실 · 물품보관함 : 만남의 광장
 - 유모차 대여소 : 미아봉사실
 - 휠체어대여소 : 자원봉사센터, 장애인봉사센터
 - 화장실 : 제단 앞, 수리마당(남산교 밑), 잠수교 진입로, 창포교 북단 (대형버스 주차장), 강남동 상가 진입로, 중앙동 상가 진입로(중앙시장 수문 옆), 홍제동 주차장
 - 차양막 : 씨름장/그네터
- 환경연출시설
 - 가로화분 : 내곡교 남단 ~ 남산교 남단, 강릉의료원 앞 ~ 남산교
 - 단오등 : 시내 일원, 단오 공원

4. 2014 강릉단오제 홍보 전략

가. 홍보전략

- 타겟별 홍보전략 : 연령별, 지역별
- 단계별 홍보전략 : 기초 홍보, 기반홍보, 집중 홍보, 사후 홍보 등 연중 및 월별 바이럴 마케팅 홍보

나. 유형별 홍보

1) 온라인 홍보

- 강릉단오제 홈페이지 (<http://danojefestival.or.kr>) 상시 관리, 자료 업데이트 및 수정 보완
- 각종 SNS, 카페,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 이용
- 매월 2회, 단오감성을 전하는 단오엽서 뉴스레터 발행
- 파워블로거 1인 미디어 및 영향력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 관련기관 웹사이트의 배너광고 또는 링크 구성으로 홍보 점점 확대

2) 오프라인 홍보, 찾아가는 홍보

- 강릉단오제 홍보 시설물의 디자인 통일성 확보 및 관리
- 홍보협력사를 활용하여 지속적, 단계적 오프라인 홍보 진행
- 박람회 및 타 축제 홍보부스 참여를 통한 강릉단오제의 장기적인 홍보와 안내 서비스 제공

3) 언론 매체 홍보

- 신문매체 활용 홍보
 - 강릉단오제 이슈 발굴 및 상시 보도를 통해 강릉단오제에 대한
 -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 유지
 - 신문광고 : 중앙지, 지방신문(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등)
 - 보도기사성 홍보 : 이벤트 기사 및 문화면 기획특집

○ 방송매체 활용 홍보

- 대 상 : KBS, MBC, G1, YBS, CBS, YTN, 아리랑TV 등
- 시청각매체
 - TV SPOT 및 라디오 광고 등 시청각을 통한 반복적 홍보
 -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홍보 및 특집방송 유도
 - TV 방송광고용 CF 제작 및 송출

4) 잡지 및 행정기관 간행물 홍보

- 시정 및 도정소식지 특집 및 광고
- 각종 교육 교재 발간 및 각종 회의서류 활용 홍보
- 관광안내 팸플렛 및 각종 행사안내 책자 활용

5) 홍보시설물 설치

- 옥외 홍보시설물 설치
- 행사장내 애드벌룬 설치, 배너설치 등
- 선전탑, 고속도로 육교현판, 건물공간 이용 광고

6) 인쇄물 · 영상홍보를 제작

- 포스터 1종 500부, 행사안내 리플렛 1종 15,000부(국문, 영문), 행사일정 리플렛 4종 50,000부(국, 영, 중, 일), 1일 일정 리플렛 1종 30,000부, 팸플렛 2종 500부(국문, 영문), 대관령산신제 리플렛 1종 1,000부, 신주미 봉정 안내문 1종 10,000부, 영신행차 안내문 1종 5,000부
- 홍보영상물 : 30초~1분, 3분~15분 분량 등

다. 외국인 대상 홍보활동

1) 해외현지 홍보

- 해외자매도시 홍보물 발송
- 도 및 도내 각시군 해외자매도시 홍보물 발송
- ICCN회원국 자국(도시)내 시홈페이지 홍보영상 제공

2) 국내 외국인 홍보

- 외국인 국내 여행객 대상 홍보
- 국내 다문화가정 중심 집중홍보
- 원어민 강사 대상 집중홍보(DM발송 등)

3) 기타홍보

- 양양공항 국제선 취항에 따른 여행사 상품개발 등 연계 마케팅
- 유튜브를 통한 영상 홍보
- 국내외 공항대합실 외국어 표기 홍보물 제작 배부



Ⅲ. 2014 강릉단오제 운영 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

1. 모니터링 개요

가. 모니터링 목적

- 강릉단오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민속축제로 인정받은 바 이를 지속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조사로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과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함
- 이를 위해 방문객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강릉단오제 주요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 측면의 정성적 측정을 통해 보다 면밀한 질적 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강릉단오제 운영에 실질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나. 모니터링 방향 및 항목

- 모니터링 방향
 - 축제평가 중 정성적인 방법으로 강릉단오제 기간 동안 ‘참관’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을 받은 평가요원에 의해 모니터링 하도록 함
 - 이를 위해 강릉단오제의 주요 프로그램과 홍보, 축제장 시설 내용 및 배치 등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리커트 5점 척도를 추가하여 점수화하도록 함
 - 이를 통해 단위 프로그램별 평가와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모니터링 항목

- 단위 프로그램별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외적 부분의 모니터링으로 구분함
- 각 항목별 5점 척도로 객관적 측정을 겸함

<모니터링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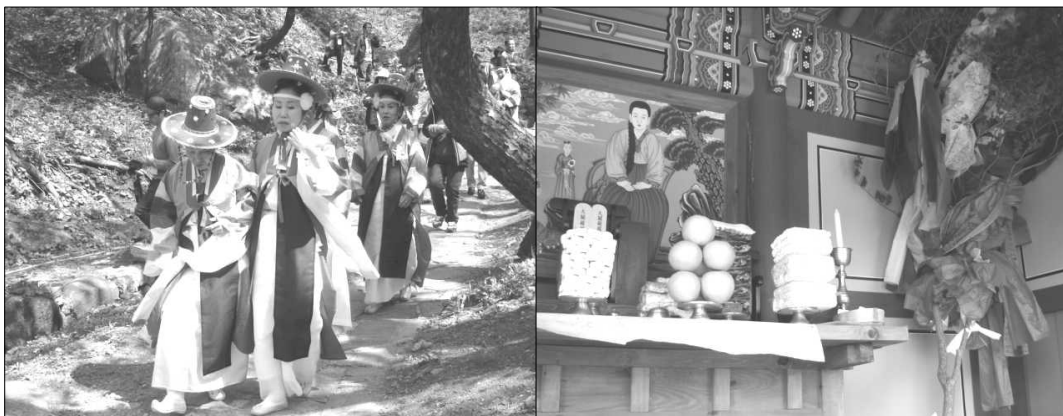
구분	항목	세부 내용
단위 프로그램 별 모니터링	주제성	축제조직위가 정해놓은 당해 축제의 주 주제를 중심으로 개별 단위 프로그램 각각의 주제가 충실하게 부합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
	참여성	축제 방문객들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따라 체험형과 관람형으로 구분하여 참여정도를 측정
	고유성	지역이나 축제의 장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정도
	신기성	처음 경험하거나 비슷한 사례의 경험이더라도 다른 느낌의 특징을 지닌 프로그램 요소의 유무 및 정도
	의외성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축제를 경험한 후 재미와 흥미를 북돋울 만한 요소가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요인의 유무 및 정도
프로그램 외 모니터링	편의 시설	주차시설, 식수시설, 휴게시설(매점, 벤치, 수유시설 등), 화장실 개수·청결도, 오폐수처리시설, 쓰레기 처리, 장소의 효율성 및 동선의 적절성
	홍보 및 안내	축제 홍보의 효율성(사전·중·후), 프로그램 정보 전달의 적절성, 홍보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안내시설(방송, 표지판, 안내도), 안내요원의 배치 및 친절도
	공간 배치	무대·전시공간·체험공간 배치의 적절성, 먹거리 공간, 편의공간과의 혼잡도
	진행 및 운영	원활성과 적절성, 순서의 적당성,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태도, 개최시기(시간)의 적당성

○ 모니터링 기간

- 강릉단오제 본 행사기간 중 평일과 공휴일의 특정일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하였음
- 모니터링 일정 : 5.31(토), 6.1(일), 6.3(화), 6.4(수), 6.5(목)
- 그 외에 축제기간 전 일정을 모니터링하여 보충하였음

2. 2014 강릉단오제 주요 프로그램

- 2014년 강릉단오제에서 진행된 단위프로그램별로 직접 참관하여 모니터링함
- 모니터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주제성, 참여성, 신기성, 고유성, 의외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였으며 5점 척도 평가를 병행하였음
- 모니터링 결과 내용은 중복되는 내용은 요약하여 정리하였으며 다수에 의해 참관 조사된 내용임에 따라 표현상의 일관성은 다소 부족하나 정확한 자료 제공을 위하여 서술된 그대로를 가능한 제시하였음



가. 수리마당

1) 강릉어린이 국악단 '소리타래'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오제의 주제가 힐링과 화합이기 때문에 어린이라는 대상으로 순수한 마음의 치료와 국악단이라는 화합 연주가 적합함 아이들의 음성으로 듣는 국악이라는 점에서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음.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제 시작과 함께 전 연령층이 의자에 앉아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즐기는 관람형태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 국악으로 성인들의 국악과는 색다른 느낌이었지만 다른 국악과 다른 어떤 신기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음
고유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 지역 어린이들의 국악단으로 강릉 단오제의 첫 무대를 장식함으로써 어린이들도 국악을 많이 접할 수 있어 보였음 강릉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도 강릉만의 것도 아니었음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들이라는 것에 기대를 안했었는데 실력이 수준 있고 흥겨운 무대였음. 첫 무대인만큼 환호가 컸음 어린이들이 하는 무대라 실수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큰 무리 없이 진행하여 어른들의 호응도 얻었음. 의외로 재미있었음

- 전반적으로 어린이 국악이라는 점에서 관객의 호응은 비교적 얻은 편이었으며 2014 강릉단오제의 주제인 힐링과 잘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됨
- 다만, 프로그램 자체는 신선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지역 고유의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타 지역과의 차별화에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고유한 전통음악 발굴 및 개발이 필요함

2) EATOF 공연단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 단오제의 주제와 잘 부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함 ▪ 공연의 의도는 알겠으나 주제에 대한 충실성은 낮다고 생각함 ▪ 천년의 힐링 로드라는 주제에 타국의 천년문화를 아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이 프로그램의 충실성 여부는 만족스러운 결과임
참여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하는 형태로 전 연령층이 함께 볼 수 있는 무대였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끝까지 관람했음.
신기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들이 직접 전통 복장을 입고 전통 무용을 춤으로써 관심을 유발하고 매력을 줌 ▪ 전통 음악으로 힐링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웠음 ▪ 이런 타국전통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도 한 번에 타국의 공연을 볼 수 있어 신기한 경험이 될 수 있음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 그대로 공연했기에 고유성은 지적할 것이 없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잠시나마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훌륭한 공연이었음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은 서로 달라도 타국의 전통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외였고 기대이상으로 만족한 프로그램 축제였음 ▪ EATOF 공연단 공연에서는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로 해설도 하면서 진행되어 공연 전에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만족스러움이 생겼음

- 강릉단오제를 국제적 축제로 확인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전통 음악, 무용, 악기 등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대체로 만족한 결과임
- 다만 각 나라의 단오문화 내지는 유사한 문화를 주제로 한 공연이라면 단오의 의미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임

3) ICCN 멕시코 소치밀코 청소년오케스트라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음악가로부터 교육 받은 젊은 실력자들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음악 자체로 힐링이 되고 문화교류로 방문한 멕시코 팀으로서 화합도 충분이 되는 강릉 단오제의 주제에 아주 적합함 ▪ 체코 모라비아의 전통문화인 춤과 노래를 보면서 단오제가 추구하는 민족 화합과 축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으며 각자 다른 문화지만 어느 부분에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 주제와 연관이 있다고 봄
참여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연령층이 앉아서 관람하는 형태로 지루해하는 기색 없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관람하였음. ▪ 관람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공연을 선보인 멕시코 소치밀코시의 청소년 오케스트라단도 멕시코의 전통음악을 연주해 눈길을 끌었음
신기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의 연주에 감탄함. 멕시코의 음악으로 다소 낯설 수 있었으나 의외로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 ▪ 타국의 청소년들이 펼치는 오케스트라연주는 처음 경험해본 체험 요소였고 멕시코 전통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음
고유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와는 거리가 먼 외국의 민족 춤 공연이지만 체코라는 먼 나라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고 체코 모라비아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 해외공연단을 초청하여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단오같이 세계적이고 큰 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인거 같았음
의외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보는 오케스트라 무대로 기대는 안했으나 수준 높은 공연에 엄청난 만족을 느낌 ▪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중 지루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는데 이러한 외국 초청공연이 우리의 정서와 잘 맞지 않는 부분과 한번 보고는 다시 시간 내서 보고 싶을 정도의 공연은 아니었음 ▪ 다른 프로그램과 반대로 기대를 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인데 오케스트라단이 도착이 늦어지고 공연시간이 미뤄지면서 실망스러웠던 공연임

- 프로그램의 내용면에서는 전통음악과 연주자의 연령층이 낮았다는 점, 유네스코 등재된 문화자산이라는 점에서 신기함을 느낄 정도였으나 다소 지루하였다고 평가함
- 또한, 공연시간을 30분 정도 고 지체되었으며 준비시간이 길었다는 평도 포함되어 방문객의 만족도를 다소 감소시켰음
- 따라서, 해외공연단의 경우 방문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연내용 선정과 진행면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4) 강릉파인무용단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용단이라는 자원봉사단체가 단오제에서 공연을 하는 것을 보니 사람들에게는 색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음 ▪ 전통적인 구성으로 힐링할 수 있었기에 만족스러웠음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공연중간에 장애인과 함께하는 무대를 마련한 점이 참여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음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의 고운 한복들을 입고 다양한 무대를 보여줬으며 부채춤은 정말로 집중이 잘 될 만큼 화려하였음
고유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해 참여하는 강릉시 자원봉사단의 공연으로 전통 무용의 멋짐을 알려줌으로써 해가 거듭될수록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루할 것이라 생각했으나 다양한 공연에 집중함 ▪ 멋진 공연에 만족하여 다음 공연도 기대하게 만들

- 자원봉사단체의 춤으로 단오를 주제로 하였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강릉단오제의 주제와 잘 부합한 프로그램이며 다양한 전통무용의 도구들로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향후 다양한 형태의 춤을 기대하게 하였음

5) 하서랑 국악예술단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 지역의 국악 예술단의 무대로 힐링이 많이 될 수 있는 공연이었음 ▪ ‘단오 젊은 국악을 만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젊은 에너지를 얻은 프로그램이었음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형의 형태였지만 사회자가 정말로 수준 높은 문화인들이 참관하고 있다 할 정도로 관객들의 호응이 좋았음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악기로 고요하고 조용한 느낌을 받는 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신나고 흥겨운 무대로 악기의 신기성을 느끼고 연주자들에 실력에 감탄함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 지역의 예술단의 멋진 공연을 강릉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 해금과 대금, 판소리 등 강릉에서 접하기 힘든 음악과 악기들이 어우러진 풍성한 공연으로 준비되었음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녁 시간에 피곤하여 정말 기대를 하지 않고 관람을 시작했지만 다양한 악기의 연주와 연주자들의 실력에 피곤함이 싹 가실 정도의 훌륭한 무대였음 ▪ 가야금으로 듣는 비틀즈 메들리, 재즈음악들이 기대이상으로 만족스러웠다. 해금과 대금, 판소리 등 강릉에서 접하기 힘든 음악과 악기들이 어우러진 풍성한 공연으로 준비되었음

- 국악기로 서양음악을 연주하는 신기한 모습으로 방문객의 긍정적 호응을 얻었으나 단오의 주제를 추가한다면 더욱 풍요로운 프로그램이 될 것임
- 저녁시간대에 연주되어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임

6) 제주 용머리에술단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 단오제 축제의 주제와 제주 용머리 예술단 프로그램의 의미가 잘 부합되지 않았다고 생각함 ▪ 무슨 의도·목적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었음
참여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연령층이 관람하는 형태로 사람들이 흥에 겨워 앞에 나가서 같이 춤추는 모습도 보임 ▪ 관객을 무대에 참여시켜 춤추며 소통하고 즐기는 형태를 갖추기도 하였음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해녀나 무속인의 모습을 노래와 춤으로 묘사함. 유명한 예술단이라서 그런지 보는 내내 즐겁고 흥겨웠음. ▪ 공모전 수상작이라는 점에서 다른 예술단들과는 다르게 긍정적으로 보였음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과 교류를 맺고 있는 제주도의 전통공연으로 단오제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임. ▪ 강릉과 제주 지역의 특성을 살려 연주했다는 점. 즉 해녀 컨셉과 동동주잔세트로 악기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 지역의 고유함을 느낄 수 있었음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가 매우 흥겹고 무대로 나가 같이 춤추는 사람도 있을 만큼 신났음 ▪ 몇몇 관객을 무대에 참여시킴으로써 모든 관객들의 어깨가 들썩거렸다는 점 ▪ 기대이상으로 좋았으며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만족했음

- 단오의 주제와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으나 제주지역의 독특한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되었음
-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나 해설이 보다 자세히 진행된다면 단오의 주요 주제와의 적합성에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봄

7) 강릉색소폰앙상블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 지역의 유명한 색소폰 팀으로 단오제의 주제인 힐링과 화합에 적합함 색소폰 앙상블은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 연주를 하는 협동심이 유독 돋보였으며 그러므로 강릉 단오제의 주제와 프로그램은 적합하다고 생각함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프로그램 체험은 못하고 연주를 감상하는 관람형태를 취하고 있음
신기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속해서 보고 싶게 만들 여성들도 함께 연주하는 것을 보아 서로 잘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었음
고유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시에서 색소폰 어워드를 개최하고 지원을 받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팀으로서 강릉지역의 고유성과 색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생각함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소폰의 연주에 귀가 즐거운 시간이었으며 유명한 “님은 먼 곳에” 라는 곡을 노래로만 듣다가 색소폰 연주로 들으니 매우 색달랐고 느낌이었음 참가 전에는 지루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부르는 선곡(ex: 사랑찾아 인생찾아,님은 먼 곳에, 나성에 가면 등)으로 다 같이 즐길 수 있어서 기대이상으로 만족했음

- 강릉의 대표 연주단이고 남녀혼성팀으로 다양한 가요연주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외의 만족과 신기함은 있었으나 단오와의 직접적 관련은 적었음
- 다만, 음악으로 방문객에게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는 다소간 만족할 수 있음

8) 제주 칠머리당영등굿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 바다의 평온과 풍어를 위해 하는 곳으로 의미가 힐링이 될 수도 있음으로 주제성이 뚜렷함 ▪ ‘조상께 한 해 농사가 잘되도록 기원하는 제사’의 의미와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함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연령층이 관람하는 형태로 역시 의자에 앉아서 눈과 귀를 통해 관람 ▪ 관람(to see)의 형태로 주 참여대상은 노년층, 가족단위로 많이 관람함
신기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무형문화재 71호인만큼 지루하지 않은 곳으로 좋은 의미로 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곳처럼 무거운 느낌이라기보다 화합적인 느낌이었음 ▪ 곳이라고 하면 섬뜩하고 엄숙한 분위기라고 느껴졌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으며 오히려 노래와 악기연주가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음
고유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굿에 참여하는 사람이 무당, 해녀, 선주들이라는 점 그리고 이들은 음식과 공양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굿들과는 독특하였음
의외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굿과 큰 차이는 모르겠지만 무거운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은 느낌을 받음 ▪ 생각 외로 흥미 있었음. 전통의례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전반적으로 만족함

- 생소할 수 있는 굿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에게 교육적, 유희적 의미로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음
- 향후, 해설과 함께 영등굿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임

9) 강릉시립합창단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시에 속한 시립 합창단이 하는 공연으로 다양한 곡을 선보이며 마치 유명한 합창단의 공연을 보는 느낌을 주는 고급스러운 프로그램이었으며 단오제의 취지인 시민들과의 화합과도 잘 맞는 공연임 ▪ 축제분위기랑 잘 어울리지 않는, 단오제와는 상관없는 형태의 행사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제일 많이 끌 수 있는 행사임
참여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형이었으며 참여는 없었음
신기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사나 공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합창단의 공연 중 하나로 차별화된 점은 없어 아쉬웠음 ▪ 사람들이 모두 하나같이 꼭 빠져서 관람하는 모습이 신기하였음
고유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에서나 행사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행사임 ▪ 왜 단오에서 이 행사를 하는지 의문이 들었음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그리 높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하는 곡부터 전문가다운 분위기가 물씬 풍겨 감동적인 무대였음 ▪ 단오와는 상관없는 행사라고 느껴졌으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나조차 뭉클하였음

- 강릉단오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강릉시민의 화합의 모습이라는 점에서는 다소 볼만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됨
- 다만, 성악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단오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복장과 선곡을 통해 이질감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함

10) 강릉시립교향악단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시에서 하는 악단으로 다양한 공연주제를 가지고 공연하였으며 이번 단오제의 주제인 화합과 힐링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함 ▪ 강릉단오제의 주 주제와는 잘 부합하지 않은 것 같음 ▪ 오케스트라 형태로, 연주회를 온 것 같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뿐 의도/목적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음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하는 형태로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관람객이 몰렸음 ▪ 관람(감상)형태로 관객들의 호응도가 이번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좋았음
신기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수준 높은 공연으로 기립 박수가 나올 정도로 환호가 대단했음 ▪ 강릉단오제의 친근한 분위기와는 신선한 매력을 느꼈음 ▪ 분위기가 세련되고 규모의 면에서 굉장히 놀라웠음
고유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시립악단으로 다양한 주제로 공연을 하며 단오제에서도 공연을 하는 것을 보니 강릉 지역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라고 생각되며 지역을 대표해서 훌륭한 공연을 선보고 있음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한 공연으로 관객들이 앙코르까지 외침. 단오제에서 스스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공연. 소름이 끼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눈을 땔 수 없던 무대였음 ▪ 프로그램 전에는 분위기며, 스케일이며 전혀 예상치 못했음. ▪ 하지만 참가한 후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이 느껴져 매우 만족하였음

- 강릉단오제와는 직접적인 관계를 찾을 수는 없으나 강릉시의 대표적 연주단이라는 점에서 힐링이라는 주제에 다소 부합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됨
- 향후 강릉단오제의 특징을 잘 반영한 복장과 선곡을 첨부한다면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것임

11) 무속악발표회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 무속악 발표회는 강릉단오제 세계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속악이라는 이름으로 무거운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충분히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이고 힐링과 화합이 될 수 있는 무대임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연령층이 자리에 앉아서 관람하는 형태임
신기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사물놀이와는 다른 장구가 중심이 된 공연으로 공연이 끝나자 사람들의 기립 박수를 받음. 어떤 틀을 깬 색다르고 신선한 무대였음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해 단오제에서 하는 무속악 발표회로 강릉시민들과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음. 매년 공연할 때마다 감탄을 자아내는 매해 단오제에서 느낄 수 있는 훌륭한 공연임
의외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거운 느낌을 받고 보았지만 볼수록 무거운 느낌이 사라지는 공연이었음

- 강릉단오제를 세계적 축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평가되었으며 무속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음
- 향후 다양한 무속음악을 선보일 수 있는 팀을 발굴, 초청하여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12) 한무리소리회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프로그램의 주제와 강릉단오제에서 내세우고 있는 주제가 잘 부합하지 않았다고 생각함 한국의 음악을 알리는 목적은 알겠으나 축제 주 주제에 대한 충실도는 떨어진다고 생각함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람형태를 취함. 흥에 겨워 춤추며 즐기시는 몇몇 어르신 분들도 계셨음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악공연을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보다 역시 현장에서 감상하니 확실히 다른 감흥을 받았음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로부터 전해오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음악인 국악을 단오제에서 감상할 수 있었다는 점이 특별했음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가 흔히 아는 '널리리아' 와 같은 전통 음악을 들을 수 있어 의외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웠음

- 전반적으로 단오제의 의미와는 부합하지 않으나 전통음악이라는 점에서 방문객에게 현장감이 있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음
- 향후 단오와 관련한 선곡을 통해 주제와의 조화, 방문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함



13) 택견퍼포먼스 ‘발광’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 단오제와 택견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축제의 주 주제와 부합하였는지는 솔직히 잘 알 수 없었음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람형태를 취하고 있음 주 대상은 젊은 층의 관객이 많았음, 호응·참여도도 높았음.
신기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전통 공연과는 다르게 젊은이들의 관점과 시각에 맞춰 공연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 실제로 팀 구성도 젊은 여·남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격한 모습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온화하고 부드러운 면도 있었다는 점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금·가야금·피아노 합동연주를 하는 모습이 특이하였음 우리나라의 무예, 소리, 놀이 전부를 한 무대에서 볼 수 있었다는 점
의외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무예라 따분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스토리 진행이 흥미로웠음

-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라는 점 외에는 강릉단오제 주제와는 별개의 장르였으나 전통의 맥을 잇는 주인공이 남녀 학생이라는 점에서 신선함
- 따라서 보다 다양한 소재와 주제로 불거리는 물론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즐길거리를 함께 제공할 수 있어야 함



14) 관현맹인 전통예술단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의 전통 문화 공연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축제를 즐기는 모습에서 화합의 정신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민족이 차별 없이 전통 문화를 즐기는 것은 단오제의 정신에 적합한 무대임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람하는 형식의 무대였으며 남녀노소 관람객들이 많았고 호응도도 좋았음
신기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자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점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감동이 있고 훌륭한 프로그램이었음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족의 화합을 도모하고 전통 문화 발전을 위한 단오제와 잘 어울리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고유의 문화를 차별 없이 접하고 행할 수 있다는 점이 경이로웠으며 존경스러운 무대였음
의외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로 많이 기대한 프로그램 중 하나였지만 오히려 보고 나서 더 감동이 있는 무대였던 것 같다. 비장애인들이 에너지를 많이 써야하는 것이 사물놀이와 같은 악기를 다루는 일일 텐데 기대 이상으로 멋지고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임

- 연주의 구성 뿐만 아니라 연주자가 시각장애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방문객에게 큰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화합과 힐링이라는 2014 강릉단오제의 주제와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
- 사회적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로 향후 다양한 퍼포먼스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15) 2014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화합된 모습을 선보였으나, 강릉 단오제의 주 주제와 잘 부합하지 않다고 느꼈음. ▪ 강릉시에 속한 읍, 면, 동의 주민 동아리의 발표회로 ‘단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이 직접 발표회에 참여하여 다양한 공연을 선보임. ▪ 참여 대상: 40~50대 여성 ▪ 관람대상: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양한 연령층(10~80대) ▪ 강릉시민 스스로가 무대의 주인공이거나 공연자와 관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객석 프로그램 중 월등히 호응도가 높았음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행사에서 본 주민들의 발표회 수준의 공연으로 특별하거나 특출한 점은 없었음
고유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지역주민센터가 아닌, 강릉 지역주민센터 어머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강릉 지역에서만 이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점. ▪ 강릉시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인 단오제가 큰 무대이기 때문에 여러 주민자치센터를 한 곳에 모이게 할 수 있는 것 같음
의외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과 달리, 한 해 동안 같고 닳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음. ▪ 프로그램을 보기 전이나 후로 어떠한 느낌이나 교훈이 없으며 말 그대로 어른들의 장기자랑 발표회였음

- 강릉단오제의 큰 주제와는 부합하지 않으나 강릉이라는 지역성이 잘 반영된 대동제의 의미를 내포한 프로그램이었음
- 향후 강릉단오제의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발표회를 개최한다면 단오제를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임

16) 프리모 리틀주니어 콰이어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를 비롯해 단오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함께 즐기는 민족 축제의 개념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들이 합창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주제와 연관됨 ▪ 축제에서 내세우고 있는 주제와 나름 잘 맞았다. 수리마당에서 수요일 첫 공연으로써 참 멋진 공연임
참여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참여하지 않고 관람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며 주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많아 객석이 많이 차 있음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적이면서 서양의 악기를 다루는 서로 대조적인 행사였기에 비교할 만한 프로그램임 ▪ 비슷한 사례의 경험이 있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있는 공연임
고유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었으며 단오제가 아닌 다른 축제에서도 관람이 가능하므로 본 행사 고유의 프로그램이라고 보기는 힘들 ▪ 아무 지역에서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었으며 흔한 공연 이었으나 첫 공연이라 오케스트라 공연이 감동적으로 멋있음
의외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 후 아이들의 월등한 수준에 놀랐으며 웬만한 어른과 같은 연주 실력에 아이들만의 순수한 합창을 볼 수 있어 만족스러운 관람임 ▪ 첫 공연이라 별 기대를 하지 않고 봤지만 의외로 노래와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잘해서 비 오는데도 사람들의 발길을 멈춰 공연을 관람하게 했음

- 강릉단오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며 단오제의 본 의미와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어린이들로 구성된 연주단이라는 점에서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당일 첫 공연으로 진행된 것은 상당부분 신선하였으며 선곡에서 단오와 관련한 전통음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17) 전통문화교실 발표회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의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직접 배운 것을 발표하는 시간 이었다보니 우리나라의 전통을 더 다가올 수 있게 만드는 단오제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함 ▪ 단오제 주제와 아주 적합한 전통문화교실 수료생들이 참여하며 다양한 민속공연이 펼쳐는 공연임
참여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형의 프로그램이었으며 주로 장년층, 노년층이 많이 자리해 있어 관객의 호응도가 좋았던 편임 ▪ 관람 방식 그리고 많은 학부모 참여 했다. 학생들도 많음
신기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슷한 다른 전통공연이 많이 있어 비교를 해보면, 다른 주제이거나 색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가장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간단한 말 그대로 문화교실 발표회였음 ▪ 한국 전통 문화를 다시 알아 볼 수 있는 기회 있어서 참 좋았다. 여러 문화를 한곳에 모아서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아주 많이 좋았음
고유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제와 같은 강릉시민이 다함께 모이는 축제 장소에서 접할 수 있는 공연이며 전통문화교실 자체가 단오제를 더 부흥시키고 전통문화에 더욱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음 ▪ 한국 단오제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이며 어른들의 흥도 많이 돋게 하였음 ▪ 단오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공연임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을 관람하기 전과 비교해서 끝난 후 새롭게 알게 되거나 관심을 끌게 되진 않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이고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 의외로 공연을 잘했으며 기대 보다 아주 좋았음

- 강릉단오제의 주제에 부합하거나 강릉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은 아니었으나 강릉시민의 참여에 의해 진행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향후 다양한 소재와 주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18) 메노뮤직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제의 한 부분으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주제와 부합한다고 봄 단오 분위기와 안 어울렸음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사회자가 노래를 알려주며 부르게도 하고 관객들이 직접 손짓을 하는 행위 등으로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음 10대와 20대의 소통과 사람들의 환호를 잘 이끌어 갔음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흔히 알고 있는 노래들이 더해져서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을 보는 것으로 인해 지루하지 않고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었음 대화 없이 노래만으로 마술을 하여 신기하였다. 대사도 없었고 오직 노래 박자에 맞춰서 마술하는 모습이 멋졌던 공연임
고유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들이 알고 있는 팝과 대중가요로만 공연을 하여 익숙한 시간이었지만, 우리 전통 문화의 장단이나 노래를 섞어 현대적인 아카펠라와 함께 공연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음 고유성은 없고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공연임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이 시작하고 나니 사회자가 지루하지 않게 공연을 이끌어 가고 관객의 참여를 유도해주어 지루하지 않는 공연임 클래식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바로 잡기 위해 마련된 공연으로 클래식부터 트로트까지 모든 장르의 음악을 다양한 화음과 흥겨운 리듬으로 선사함

○ 강릉단오제의 주제와의 부합이 부족한 점이 아쉬웠으나 전통문화가 주를 이루는 강릉단오제에서 아카펠라 공연은 다소 신선하였으며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자연스러운 진행으로 지루함 없이 재미를 유도한 프로그램이었음



19) 상상&힐링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표와 같이 쉬어가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강릉단오제의 슬로건과 이 프로그램은 매우 잘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함. ▪ 국악, 전통공연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좀 더 현대화시키고 재해석한 프로그램으로 지루하다고 느끼던 것을 전환시켜 단오제가 사람들과의 소통, 민족의 축제라는 취지에 맞음
참여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형태를 취함. 또한 국악의 상상력을 통해 관객과의 공감을 이끌어고 함으로써 관객들의 반응이 좋음.
신기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뒷모습에 얼굴 모양의 가면을 착용하였는데 이것은 앞에서나 뒤에서나 관객에게 다가간다는 의미부여를 함. ▪ 기존의 국악 및 전통 공연을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방법에서 나머지 비슷한 관련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느낌을 받았음
고유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단오제만의 힐링을 제시하고 가무악의 깊은 울림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를 선보였다는 점. ▪ 굳이 단오제가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 축제와도 잘 어울리는 프로그램인 것 같음
의외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부분~클라이막스에 이르는 부분까지의 구성도 좋아 공연에 흠뻑 빠질 수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하는 프로그램임 ▪ 프로그램 관람 이전에는 국악을 다루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고 관람하였는데 막상 관람하고 보니 우리나라의 민속 문화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가능하며 그 세계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음

- 전통과 현대의 조화, 공연자와 관객의 소통 등을 시도한 공연으로 힐링과 화합이라는 주제와 다소 부합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며 관객을 공연의 내용 속으로 끌어들이는 진행방식이 축제를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하였음
- 모든 연령대가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향후에도 강릉단오제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임

20) 정선군립아리랑 예술단 ‘소리극’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제에서 내세우고 있는 주제와 나름 잘 맞음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을 알리는 단오제와 적합한 주제임
참여성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연령층이 관람하는 형태로 주변에서 구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신기성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무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공연이라고 처음엔 생각이 들었지만 대중가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중하는 사람들의 표정하나 하나가 다 즐거워하고 있었음 정선군립의 예술단인 만큼 전문적이고 처음 경험해보는 공연이었으며 그 외에는 신기한 점은 없었음 정선아리랑과 무속신앙인 굿을 접목하고, 젊은이들이 즐기는 랩까지 끌어들이며 실험적으로 제작한 새로운 형태의 마당극이었으며, 무더위까지 통쾌하게 날려 보내는 기분이 들었고 매우 재미있었고 만족스러웠음
고유성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오와 적합한 주제이지만 다른 행사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임 정선지역의 고유성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정선군립의 예술단으로 실력 있는 마당극을 관람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음 정선을 대표하는 아리랑 예술단인 만큼 정선에서는 공연을 자주 하는 것 같았으나 강릉단오에서 접할 수 있었다는 게 단오만의 특별한 점다고 봄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외로 우리정서와 잘 맞아서 넋을 놓고 감상하였음 마당극이라고 하여 그동안 봐왔던 마당극만을 생각하고 관람했는데 다른 마당극과는 달리 젊은층도 쉽게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짜임새를 구성하였다는 게 놀라웠음

- 모든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당극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된 만큼 관객의 흥미를 북돋우는 공연이었으나 강릉단오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었으나
- 강릉단오제의 본래의 의미를 반영한 극의 구성을 통해 강릉단오제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임

21) 대전광역시 서구 풍물단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5	강릉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은 풍물단으로 대전에서 강릉까지 초청되어 힐링과 화합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였음
참여성	4	전 연령층이 자리에 앉아서 관람하는 형태임
신기성	3	사람들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하지만 눈에 띄는 새롭고 신기한 점은 없었음
고유성	3	대전광역시의 대표 풍물단으로 대전시를 대표하여 지역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풍물을 선보여서 강릉시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고 고유성이 어느 정도 나타났음
의외성	3	흥겹고 즐거운 풍물놀이였으며 지역의 특색이 조금 있었지만 자주 접할 수 있는 풍물놀이였기에 더 흥을 돋우기에는 약간은 부족한 느낌을 받았음

- 강릉단오제가 아니라도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풍물놀이로 전통 문화의 맥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주제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는 있으나 공연 자체의 고유한 특색을 찾기는 어려운 프로그램
- 향후 각 지역의 전통문화를 관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제를 선정하여 특색있는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22) 관노가면극 입체낭송극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서 강릉단오제의 주제와 딱 맞아 떨어짐
참여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람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변사가 목소리로 더빙을 하며 줄거리를 설명해줌으로써 관객들과 소통하는 자세를 취하였으며 보는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주 대상은 어린아이~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임에 외국인들까지 있었음
신기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단오제 관노가면극의 기본 스토리에 변사의 해학과 재치가 넘치는 입담, 섬세한 춤동작을 넣어 마당놀이였던 가면극을 무대작품으로 새롭게 재창작한 면이 아주 만족스러웠음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직 강릉단오제에서만 볼 수 있다는 점과 다른 지방의 가면극과 달리 연희자가 관노라는 것이 특징임
의외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언의 관노가면극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지 궁금했는데 정말로 색다른 느낌의 관노가면극이었으며 공연전 기대가 컸던만큼 매우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었음

- 지정문화재를 무대 위 공연으로 변형시킨 것으로 색다른 형태의 관노가면극을 경험한다는 것에서 방문객의 만족을 보장하는 바람직한 프로그램이었음
- 본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로 강릉단오제의 즐길거리를 더욱 풍요롭게 할 필요가 있음

○ 수리마당의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종합해보면

장점	구분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시민으로 구성된 전문·비전문팀과 초청팀들의 다양한 전통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였음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단오제의 주제와 맞지 않는 공연도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외 공연장으로 무대와 객석이 설치되어 부담 없이 감상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무대 뒤 스크린을 통해 공연의 내용을 원거리에서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연 전후로 자막처리를 하여 안내 	공간 및 시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객이 공연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질 경우 무대 위로 올라가기 쉽지 않았으며 야외공연이라는 점에서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민속 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공연이라는 점에서는 주제와 다소 부합하는 듯함 	주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오제라는 주제하에 힐링을 부주제로 한 축제라는 점에서 수리마당의 공연 대부분은 단오제와 무관한 내용이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람형의 공연으로 전 연령대를 막론하고 감상할 수 있는 형태 	참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여주는 형태의 공연이므로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 민속을 소재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어 다소간의 신기성은 있었음 	신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축제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공연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새롭거나 신기한 내용은 부족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프로그램별 고유성은 전통문화의 맥락에서 다소 있었음 	고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단오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공연은 상당부분 부족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소에 접할 수 없는 전통공연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기대에 비해 상당부분 만족함 	의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단오제에서만 있는 의외성은 부족함



나. 아리마당

1) 문경모전들소리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들어도 함께 노력하여 농사를 짓는다는 느낌을 받아 단오제의 주제인 화합과 적합하다고 생각함 ▪ 문경지역의 화전을 일구어 농사를 짓는 특성을 살린 내용을 보여주며 주제성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음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중에 관객에게 막걸리를 나눠줌으로써 체험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 앉아서 관람하는 형태였음 주 대상은 노년층이었음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 ▪ 공연을 보는 관객들에게 막걸리를 나눠주는 것은 처음 경험해본 신기한 요소로 작용했음
고유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경지역이나 축제의 장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공연으로 지역의 고유성이 나타남 ▪ 공연 외에도 '문경오미자 막걸리'를 홍보하는 등 민간외교활동도 곁들여 문경홍보대사 역할까지 톡톡히 하면서 그 지역이나 축제의 장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성을 프로그램에 나타냄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사와 노래가 공연을 훨씬 흥겹게 하였고 집중하게 만듦으로써 과거에 농민들이 즐겁게 일하려고 노력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음 ▪ 축제 참가 전에는 문경지역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으나 문경모전들소리를 보고 문경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볼 수 있게 되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음

- 농경문화와 밀접한 단오와 주제가 가장 적합했으며 문경지역의 문화를 소개하는 공연으로 관객과의 소통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강릉단오제의 내용을 더욱 다채롭게 한 프로그램이었음
- 향후 타 지역의 유사한 내용의 공연단을 다수 초청하여 경연대회 등을 통해 소개되는 것이 필요함

2) 사천농악대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악대라는 것 자체가 화합을 하며 공연을 해야 하기에 단오제의 주제와 적합함 ▪ 단오는 농사의 주요 일정과 밀접한 관계를 지녔기 때문에 축제의 주제와 적합함 ▪ 사천농악은 강릉 단오제 행사의 명맥이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오늘의 강릉농악을 보존하는데 큰 몫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전승될 것임
참여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이 노년 연령층으로 젊은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보였음. 무대 주위에서 관람하는 형태로 약간 지루한 면이 있는지 자주 사람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임
신기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이 있는 농악대로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강릉 지역에는 농악대가 아주 많기 때문에 무대 자체에서의 다른 농악대와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 ▪ 천이라고 하는 강릉의 지역만의 특별한 점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음
고유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천농악은 다른 어느 지방의 농악에 비해 향토성이 깊이 배어 있는 것으로 여겨짐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명해서 기대를 했으나 다른 것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흥겨워서 즐거웠음 ▪ 기존의 알고 있던 농악을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예상을 한 바와 다르거나 특이점은 없었음

- 강릉시 사천면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전통 있는 농악대의 공연으로 특색 있는 복색과 주민의 화합을 표현한 공연이라는 점에서 단오제의 성격에 적합한 프로그램임
- 다만, 농악의 특성상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놀이문화임에도 관객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다는 점은 다소 아쉬웠음

3) 제8회 대한민국 농악축제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교류로서 화합이라는 주제와 적합함. 농악의 다양함을 장시간 공연하는 무대임 우리 고유의 음악인 나팔, 징, 팽과리, 북 등으로 농악의 풍경에서 강릉 단오제의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어 주제와 잘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함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노년층이 주위에 앉아서 관람하는 형태로 장시간 공연으로 계속해서 보는 사람이 없음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주 오랜 시간 다양한 주제로 공연을 함. 오랜 시간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신기했음 지역별 다양한 농악 특징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점 평소에 농악에 관심이 없던 사람조차 흥미를 갖는 묘한 매력이 있다는 점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8회 째 지속되는 농악축제로 큰 축제에서만 다양한 농악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것에서 고유성이 드러남 우리나라 6대 농악을 한자리에서 감상 할 수 있다는 점과 강릉농악 보존회로 참여하는 농악대를 만나볼 수 있다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좋았음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외로 신이 났던 공연이었음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었지만 관객과 다함께 어울리는 것이 농악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생각함

○ 농경문화의 대표적 풍속인 강릉단오제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됨



4) 강릉학산오독떼기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강릉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논을 맬 때 부르는 농요로 화합이라는 단오제의 주제와 적합함 ▪ 오독떼기는 논을 맬 때 부르는 동요로, 이것은 강릉단오제의 주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함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연령층이 노년층으로 주위를 둘러싸고 앉아서 관람하는 형태임. 주 대상: 노년층을 이룸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랜 전통이 남아있는 농요지만 다른 농요와 무대가 비슷함. 특별히 신기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음 ▪ 하나의 퍼포먼스(performance)를 보는 것 같아서 색다름을 느낄 수 있었으며 특히 신발을 벗고 실제 논매는 모습을 그대로 재연해 생동감 있었음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었음.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다는 기록이 있음. 이러한 근거들로만 보아도 고유성은 뚜렷이 나타난다고 생각함 ▪ 여러 논매는 소리 중에서도 지역적 고유성이 가장 뚜렷하다는 점.
의외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랜 전통이 있는 농요인 만큼 흥겹고 신났음. 개인적으로는 만족했다고 생각하며 다른 농요 무대와 좀 더 신선한 아이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퍼포먼스(performance)형식으로 매우 흥미로웠으며 또한 어린아이들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음. 이러한 면에서 기대이상으로 만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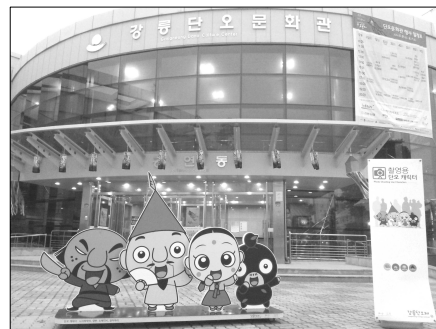
- 강릉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로 강릉단오제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 중 하나임
- 다만, 원형보존과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어린 공연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5) 보존회 관노가면극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께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바탕 속에 정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릉시 대표 가면극으로 단오제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공연임 ▪ 지역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서 강릉단오제의 주제와 아주 딱 맞아떨어짐 ▪ 강릉 단오제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무언가면극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축제의 주제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단오제와 아주 적합하다. 강릉에서 아주 유명한 공연임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연령층이 주위를 둘러싸고 관람하는 형태임 ▪ 관람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시작 전 이야기의 줄거리를 설명해 줌으로써 관객들과 소통하는 자세를 취함. 또한 관객의 호응유도로 사람들의 반응 또한 너무 좋았음
신기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사가 없는 무언극으로 남녀의 사랑 속에 정절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가면극을 시작하기 전에 줄거리를 설명해주었지만 줄거리 설명이 없어도 악기의 박자와 소리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신기했음 ▪ 풍요와 공동체의 질서 회복을 목적을 한 하나의 놀이로서 오락적인 기능을 표현하고 있음. 보는 내내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음 ▪ 여러 가지 관노가면극이 있으나 각각의 차이점을 잘 구분하지 못하여 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개 본 듯한 느낌을 주었음 ▪ 관노가면극에 해학과 재치가 넘치는 대사를 넣어 인형극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남녀노소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공연이었음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시의 전통 가면극으로 유명하며 관노가면극 하면 강릉시라고 대답할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오직 강릉단오제에서만 볼 수 있다는 점과 다른 지방의 가면극과 달리 캐릭터가 관노라는 것이 특징임 ▪ 강릉 단오제에서만 특별히 즐길 수 있는 공연이고 관노가면극

		은 단오제에서 매일 하지만 각각 매력이 다른 점이 강릉 단오제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임
의외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악기와 소리의 박자로 연기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리를 옮긴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함 ▪ 지루할 틈이 없었고 관노 가면극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대이상 이였음 ▪ 프로그램을 관람하기 전 가졌던 기대감이 컸던 탓인지 아무 말 없이 진행되는 극의 특성 상 제대로 내용을 모르고 있던 상태라 이해도가 조금 떨어졌으며 하지만 몸짓만으로도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강릉단오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전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임
- 다만, 다양한 팀에서 공연을 하고는 있으나 공연시간대가 정해져 있어 방문객의 일정과 맞지 않을 경우 관람을 할 수 없음
- 따라서 관노가면극 상설공연장을 마련하여 각 팀이 단오제기간 동안 전일 공연하여 관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6) 제 21회 어린이농악경연대회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악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평안을 기원하고, 농경문화에 근거하고 있어 주제와 잘 적합하고 생각함 ▪ 어린이 농악 경연대회는 우리 민족의 전통 축제를 이어간다는 단오제의 주제에 적합하며 요즘 아이들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우리의 악기를 다루게 하는 좋은 경험의 프로그램이었음
참여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대상은 노년층과 어린이들이 단체로 관람하는 모습을 보였음
신기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남성분이 흰 종이에 농악연주 순서(ex: 굿거리, 장구통놀이 등)를 표시해줌으로써 이해하기 쉬웠다는 점. 이로써 관객들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음 ▪ 어린 아이들로만 이루어진 팀들이 나와 경연하는 것은 처음 보는 행사였으며 어른보다 서툴긴 하지만 진지한 모습이 보여 관람하는 내내 즐거웠음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합동무대를 꾸렸다는 점이 고유함 ▪ 성별·연령층과 상관없이 즐겁게 즐기는 모습을 오직 강릉단오제 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음 ▪ 전통 문화행사에 어울리는 경연대회였으며 우리 고유의 문화를 아이들의 눈높이로 보는 느낌이었음
의외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농악축제나 교동 농악대와는 달리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음 ▪ 기대 이상으로 보는 내내 눈이 즐거웠음 ▪ 관람하기 이전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잘할까 하는 마음이었지만 관람 후 어른 못지않게 임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하였음

- 전통승계의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며 강릉단오제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임
-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관객을 배려하기 위해 수리마당과 같이 자막이 가능한 스크린 설치가 필요함

7) 건금마을용물달기 보존회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해의 무사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용을 통해 집안의 행운 기원, 한해 농사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돋아주는 위로 행사로 강릉 단오제의 주 주제와 잘 부합한다고 생각함 과거 선조들이 했던 의식을 엿볼 수 있어 본 행사의 주제와 어울리는 프로그램임
참여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람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주 대상은 노년층이고 가족단위임 건금마을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제사의식을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으며 관람형태를 띄고 있음
신기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모양의 인형, 3개의 우물을 그대로 재연함으로써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음 여러 마을 사람들이 커다란 용 인형을 만들어 어깨에 메고 세 개의 우물을 향해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우물을 퍼 나르는 시늉을 하는 모습은 처음 경험하는 내용의 색다른 프로그램이었음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김씨 집안에서 행해진 정월 대보름날 행사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강릉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강릉의 건금마을이라는 지역적 특징과 단오제이기 때문에 강릉에 위치한 마을의 전해 내려오는 전통 풍습을 경험할 수 있음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족스러웠음. 생동감을 몸소 느낄 수 있었음 사람들이 용 인형을 메고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호기심이 생겼으며 노래를 부르며 의식을 할 때 저절로 따라 부를 정도로 몰입하는 재미가 있었음

- 강릉의 풍습을 원형에 가깝게 재현한 것으로 강릉단오제의 고유성을 더욱 다채롭게 한 프로그램
- 따라서 관객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구성이 필요함

8) 달맞이 농악대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악대는 전통적인 농경문화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축제의 주 주제와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음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람형태를 취하고 있음 관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단위이지만 노년층이 많았음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사는 계절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계절마다 노동요가 다른 것이 신기하였음
고유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축제현장을 가도 항상 볼 수 있는 행사여서 많이 보았던 행사여서 고유성이 다소 떨어짐
의외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농악 축제와 조금이나 다르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였으나 다른 점이 없었음

-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이기는 하나 노래위주의 원형을 그대로 표현하여 다소 지루한 감이 있었음
- 따라서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약간의 퍼포먼스를 추가하여 흥을 돋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9) 구정초교오독떼기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의 농요로서 강릉을 알리고 단오를 알리는데 적합함 토속민요를 구정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모내기와 오독떼기를 시연하여 보여줌으로써 현대적 전승을 위한 모습이 보였다. 천년의 힐링로드라는 주제에 적합했던 것 같음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람형으로 진행되었으며 초등학생들의 끼를 볼 수 있었음 관람형으로 대부분 어르신들이 었다. 현대적 전승을 위한 청소년들의 관람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생들의 익살스러운 표정과 행동이 웃음을 자아냈음 맨발로 정말 논매는 모습을 재연하여 생동감이 있었음 강릉구정초교 아이들의 공연 모습은 강릉 학산에서 오독떼기의 전승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수있었음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에서 전승되어있는 김매기소리기에 강릉 단오제에서만 볼 수 있는 행사이다. 다른 행사에서도 오독떼기를 시연하여 일반 대중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함 강릉단오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함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할아버지나 아저씨들이 공연을 할 줄 알았는데 귀여운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더 흥미를 끌었음 아이들이 귀찮아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진지한 모습이 더 귀엽고 흥미로웠음

- 강릉학산의 오독떼기를 해당 지역에 소재한 구정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강릉단오제를 계기로 공연한다는 것은 전통문화계승의 일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위로 고유성과 주제성에 가장 적합하게 맞는 프로그램임
- 향후 강릉의 각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며 방문객에게도 양질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기회가 됨

10) 진도다시래기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상여놀이로 힐링의 주제와 적합하며 그리고 진도지역에서 강릉 단오제에 와서 특별한 공연을 한 것을 보니 화합적인 면에서도 주제와 연관성이 있음 단오에서 볼 수 있는 민속극적 성격이 짙은 상여놀이로 주제에 어느 정도 적합 하다고 생각함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년, 노년이 주로 관람하는 형태로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다소 무섭고 거리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관람형태이며 참여자들은 중년층, 노년층이 대부분임
신기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주 접하기 힘든 상여놀이라는 것으로 신기했다.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을 놀이로 만든 점이 색달랐으며 신선하다기보다는 의아한 느낌을 받았음 당골 전문 예능인들에 의해 전승된 민속극으로 장례풍속과 민속극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닐 정도 중요한 전통 연행인데 이렇게 단오에서 보게 되니 색다른 점이 있었음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도지방에서 전승되는 놀이로 국가중요무형문화재이며 그런 만큼 전문적이면서 지역의 특색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 고유성은 충분히 있다고 봄 출상 전 밤에 빈 상여를 이용한 놀이인 상여놀이의 일종 진도 다시래기를 강릉 단오제에서 구경 할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러웠음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죽은 사람들 위로하는 상여놀이가 의미가 커보였으며 보는 동안 어떤 느낌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에게는 무거운 느낌을 주어서 함께 보기에는 힘들 것이라 생각을 해봄 상여놀이라 하여 우울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줄 알았으나 다시래기는 죽은자의 극락왕생을 축원하기 위해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노는 익살스런 상여놀이였다는 점이 의외였음

- 방문객에게 익숙하지 않은 소재를 익살과 해학으로 표현하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프로그램이었음

○ 아리마당의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종합해보면

장점	구분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경문화를 중심으로 한 농악, 가면극, 무언극 등으로 강릉단오제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승화시킴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단위프로그램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으며 젊은층과 어린이를 위한 해설이 필요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오제단, 그네, 씨름장과 인접한 위치로 전통민속놀이의 장으로의 인식이 용이했으며 놀이마당의 높이와 관객의 높이가 같아 참여가 쉬웠음 	공간 및 시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장에 비해 객석이 다소 부족하여 많은 방문객이 관람하기에 불편함이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경문화를 반영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강릉단오제의 주제성과 상당부분 부합했음 	주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경문화만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으로 단오라는 특정한 날의 문화를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객석에서의 노년층의 참여가 간혹 있었으며 흥을 돋우는 분위기는 조성되었음 	참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연령대가 흥을 표현하고 놀이 중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농경문화를 접할 수 있었음 	신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히 강릉단오제에서만 볼 수 있는 놀이는 아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사천농악대, 학산오독떼기 등은 강릉지역 고유의 농경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구정초교 오독떼기팀과 같이 전승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였음 	고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지역의 고유한 농악을 재현하였다고는 하지만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는 부분도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 농악대회, 구정초교 오독떼기 팀 등의 공연과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우리 가락을 경험하여 의외로 흥겨운 기회였음 	의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단오제에서만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음

다. 단오문화관

1) 강릉시청청소년수련관 댄스퍼포먼스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년의 힐링로드라는 단오 주제에는 부적합 하다고 생각되지만 단오를 다양한 연령층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였음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관람형식이지만 무대 위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큰 호응을 해주며 같이 몸소 체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보니 관객들은 전부 중 고등학생들로 보였음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적인 댄스팀들이 나와 공연을 하였기 때문에 강릉지역 내 팬클럽도 있다는 점이 신기하였고,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줌
고유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시청청소년수련관에서 주최한 댄스 퍼포먼스공연 이었기 때문에 타 지역 단오에서는 볼 수 없는 공연이라 생각했음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멋진 공연에 만족하여 다음 공연도 기대하게 만듦 청소년이라고 해서 그냥 수련회에서 장기자랑 하는 느낌일것 같았지만 직접 가서 보니까 전문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많이 공연도 다닌 참가자 들이라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의 공연을 볼 수있었음

- 청소년층을 강릉단오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력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힐링과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주제와의 관련성을 다소나마 인정할 수 있음
- 향후 주제가 있는 댄스경연대회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음

2) 제47회 전국 남녀 시조 경창대회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대회일 뿐이지 단오제의 주제와의 적합성은 발견하기 힘들었음 ▪ 강릉단오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 시조경창대회를 개최하였다는 점에서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세우고 있는 축제의 주 주제에 대한 충실성의 면을 보았을 때는 주제와의 연관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함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 체험형이면서 일반 사람들도 관람하는 관람형이 함께 나타나는 체험/관람형임 ▪ 일정의 돈을 지불하고 접수를 하면 체험할 수 있으며 객석에 앉아 관람형태를 취하기도 함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옆에 반주해주시는 분이 참가자에게 “음이 맞지 않다, 목소리 더 크게 내라, 그렇게 하면 점수 못 받는다, 다시 시작 하겠다” 등의 조언을 해주시는 면에서 참가자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였음 ▪ MR이 아닌 직접 장구, 피리로 연주해줌으로써 사람의 목소리와 악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었음
고유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제에서 처음 시작한 대회로 축하한다는 의미로 대회를 또 한 번 여는 것을 보고 고유성이 있다고 생각함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 높은 참여자도 있었고 웃음을 유발하는 참여자도 있었음. 참가에 제한이 없는 것이 어떤 참가자가 나올지 몰라서 더 흥미를 유발하였으며 같은 시조를 반복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음색에 나름 즐겁게 감상함 ▪ 참가 전에는 관심이 크게 없었으나 참가자들의 연령대를 보고 도전 정신이 돋보여 높게 평가해주고 싶었으며 생각보다 흥미 진진하여 주의 깊게 집중할 수 있었음

- 강릉단오제의 주제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시조경창이라는 흔하지 않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음
- 향후 시조의 내용, 창작시조 등 주제가 있는 시조경창대회로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음

3) 중국 사천성 사천 청년 문화교류단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초청공연으로 중국 고유의 음악을 연주해주었으며 이로써 이 프로그램과 축제의 주 주제와 잘 부합하는지는 솔직히 알 수 없었음
참여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람형태를 취함. 주 대상은 대부분 가족단위였음
신기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 혼성합주 했다는 점. 춤과 노래와 아코디언 연주를 함께 함으로써 화려함과 전문성이 돋보였음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점은 작은 체구에서 저런 멋진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과 프로다운 실력으로 감탄을 했음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고유의 민요를 무용으로 표현하는 것은 오직 강릉단오제에서만, 이 무대에서만 볼 수 있었다는 점이 특징임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으로의 여행으로 잠시 떠난 기분이 들어서 대체적으로 만족했음

- 중국 사천성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무용수들의 위트있는 공연이 관객을 즐겁게 했으나 특정한 날에 공연하던 것은 아닌 듯하며, 강릉단오제의 주제와는 무관하나 해외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비교적 고령의 관객들에게 잠시나마 힐링의 기회를 제공해주었던 무대로 향후 전통민속 특히, 단오와 관련한 무용으로 구성된 공연이 될 필요가 있었음



4) 어린이설화극 발표회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 단오제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주역인 아이들에게 단오제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탄탄한 전승 기반을 다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그러므로 강릉단오제의 주제와 적합하다고 생각함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람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가족단위 구성원들이 대부분 이였음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무런 사전 정보나 지식이 없이 보았을 때는 단순히 어린이집에서 열리는 학예회 같다고 느꼈었음 그러나 프로그램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관람해보니 관노가면극을 중심으로 발표회를 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알고 갈 수 있었음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단오제 설화를 활용해 손 인형극을 펼치는 강릉단오제 어린이 설화극 콘테스트'는 신선한 시도라고 생각함 이 신선함은 이 무대에서만 볼 수 있었음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 전에는 학예회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의외로 신선했고 강릉단오제 설화를 아이들을 통해 배우고 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했음

- 강릉지역 어린이들이 중심이 되어 단오설화를 바탕으로 한 손 인형극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 전통축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유사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강릉단오제의 의미와 전통이 전승될 수 있어야 함



5) 매직엔파티 엔터테인먼트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단오제의 주제와는 크게 부합하고 있지 않음 ▪ 삶의 여정에서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마련한 것 같았음 ▪ 단오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관람객의 흥미를 끄는 마술 쇼라는 소재가 흥미로웠음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객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태와 관람형태 가능함 ▪ 공연자가 직접 객석에 있는 관람객을 불러 마술에 참여시키기도 하며 관객과 공연자가 여러 가지 소통이 필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잘 살려서 진행하였음
신기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한시도 눈을 땔 수 없는 흡입력이 있었음 ▪ 한 사람의 마술사가 나와 마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마술사가 여러 가지 주제로 마술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고유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에서만 볼 수 있었던 대규모 마술과 전속 댄스팀의 무대들이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었다는 점 ▪ 강릉 단오제에서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 대중적인 마술 쇼이며 프로그램 전 청소년들이 축하공연을 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음
의외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단오제의 주제와는 잘 부합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하는 프로그램이었음 ▪ 단오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그저 흥미와 재미를 위한 마술쇼이기 때문에 단오 행사뿐만 아닌 다른 곳에서 많이 접해본 프로그램의 형태라 아쉬웠음

- 강릉단오제의 주제와는 부합하지 않으며 고유성이나 의외성, 신기성 등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축제를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요소로 충분한 역할을 하였음
- 향후, 본 프로그램을 지속해야 할 경우 의상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강릉단오제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6) 관노가면인형극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 단오제를 이끌어 나갈 주역인 아이들에게 단오제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탄탄한 전승 기반을 다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강릉단오제의 주 주제와 적합하다고 생각됨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관람하는 형태의 공연이었지만 성우가 말과 인형을 이용해 극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해도와 몰입도 또한 높았음
신기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은 인형을 이용하기도 하고 성우의 설명이 곁들여져 다른 관노가면극과는 차별성을 지녔음 성우와 악기를 동시에 하는 모습이 신기하면서 멋졌다. 여러 목소리를 한 배우가 하는 모습도 참 신기했음 작은 무대라 인형이 잘 안보일수도 있었는데 조명이 꺼지고 나니까 집중도 잘되고 좋았던 것 같다고 생각됨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도 사투리를 집어넣어 여느 사투리들보다 사랑스럽고 귀엽게 느껴지며 인형극의 재미를 더했음
의외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을 관람하기 이전에는 다른 가면극과 다를 게 없어 보였지만 공연이 시작된 후 작은 인형과 성우의 말이 더해지니 가장 기억에 남는 관노가면극 프로그램이 되었음 의외로 인형극을 아주 잘해서 놀랐다. 인형극과 아주 잘 어울리는 사물놀이와 성우들의 목소리에도 감탄을 했음 인형극에 대사를 넣어 한층 더 재미를 더한 것 같고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려는 노력이 돋보였던 프로그램임

- 관노가면극을 주제로 한 콘텐츠로 성우의 대사와 사물놀이가 어우러진 인형극으로 재미와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임
- 향후 강릉지역 어린이와 시민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연중 확대하여 강릉단오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7) 중국덕양시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를 서로 교류하는 측면에서 볼 때 주제와 연관이 있음 ▪ 주제와 잘 맞는지는 모르겠으며 노래들과 춤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힘들었음
참여성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들의 호응을 많이 얻으려고 노력했음
신기성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공연자체가 춤으로만 이루어져있어 난해하였지만 움직임 속에서 이국적인 정취와 특유의 분위기로 신비로운 느낌이었음 ▪ 한국 문화가 아닌 중국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아서 많은 점에서 신기했음
고유성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덕양시 공연단의 춤이나 노래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음 ▪ 흔하게 볼 수 있는 공연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중국 나라의 특성을 살린 무대였음
의외성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공연이었으며 공연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 존경스럽기 까지 했음 ▪ 의외로 화장이 무섭고 많이 부담스러웠으며 공연은 살짝 지루한 면이 있었음 ▪ 중국을 가본적은 없지만 중국에 와 있는 듯해 중국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음

- 초청공연의 일환으로 중국 덕양시의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연이었으나 단오제의 주제에 부합하지는 않는 프로그램이었으며 공연 전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이해하기는 다소 부족하였음
- 해외 공연의 경우도 단오와 관련한 내용의 프로그램이라면 강릉 단오제가 더욱 풍성한 축제로 거듭날 것으로 봄

8) 연희극단 해랑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놀이로 시작되어 남녀 배우가 나와 극을 이끌어나가는 한편의 연극과 같았으며 관객들과 소통하는 무대를 보여주며 단오제와 어울리는 축제분위기를 내기도 했음 ▪ 사물놀이, 탈춤 등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는 단오와 잘 맞았음
참여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중간 중간에 배우가 직접 객석으로 내려와 참여를 권하기도 하고 정말 옛장수가 되어 옛을 팔고 다니기도 하면서 관객의 호응과 참여를 유도해내었음
신기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놀이와 연극, 호랑이 춤까지 여러 방면의 소재를 사용하여 다른 연극과 비슷하지만 다른 느낌을 주었으며 배우들이 관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 처음에는 또 사물놀이야? 하면서 지루할 것을 예상하였으나 사물놀이, 탈춤 등을 뮤지컬과 함께 어우러져서 만든 전통퓨전마당극이었음
고유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관령 호랑이 설화와 같은 자칫하면 알기 어려운 고전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내어서 청소년층의 이해력을 높이고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으로 만들 수 있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음 ▪ 단오제가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행사이지만 전통을 계승하며 다른 사물놀이패나 탈춤연극이랑 다른 공연임
의외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 전에는 평소 접한 행사와 비슷하다 생각했지만 끝나고 난 뒤 1시간이 금방 지나간 느낌이었음 ▪ 현대식으로 바꾼 사물놀이, 탈춤이었기에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관람할 수 있었음 ▪ 생각이상으로 재미있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하지 않게 본 공연임

- 강릉단오제 설화에 등장하는 호랑이가 소재가 되어 현대적 마당극의 형태를 띤 공연으로 관객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양질의 프로그램이었음
- 향후 보다 다양한 내용과 의상, 공연형태를 개발하여 강릉단오제 방문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의 성장이 기대됨

9) 강릉노인대학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와는 상관없는 주제이라고 생각함
참여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형의 공연이었으며 참가자는 대부분 노년층임 ▪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관객들이 프로그램 호응도는 상당히 높았음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들의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혈기왕성함을 확인할 수 있는 공연임 ▪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음
고유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제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프로그램 형태임 ▪ 모두 어르신들이 참여하신 프로그램이지만 젊은 층도 관람하기에 좋은 공연으로 강릉노인대학이나 강릉단오제 행사에서만 볼 수 있었던 공연이라고 생각됨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이라고 지치고 힘이 없을 줄만 알았는데 공연이 끝날 때가 되어도 더욱더 힘나서 재밌어하는,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공연임 ▪ 프로그램을 보기전에는 왠지 고전적이고 따분한 공연들이 펼쳐질까 걱정했었지만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박장대소하였다가 울컥하였다가 감정의 변화를 자주 일으키는 구성으로 짜여있어서 만족스러웠음

- 강릉단오제의 소주제인 힐링과 다소나마 부합하는 면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관객보다는 공연자가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젊은 층에게도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음
- 향후 노인대학을 통해 강릉단오제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주제가 있는 공연이 되어야 함

10) 김향숙 아리랑예술단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힐링과 화합이라는 주제와 연관성을 찾기 힘들었으며 단지 전문적인 예술단의 공연으로 수준 높은 무대를 마련했다고 생각이 들었음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연령층이 실내에서 관람하는 형태로 다양한 공연으로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음
신기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무용으로 흥미로웠고 사람들의 반응도 좋았으나 매력을 끌거나 사람들을 더 유인할 수 있는 신기한 점은 없었으며 색다른 요소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음
고유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유성은 없었음 김향숙 아리랑예술단이라는 전문적인 단체이므로 특정 지역이 아닌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음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음 접하는 무용으로 흥미로웠음 즐거운 시간이었고 전문적인 공연에 만족스러웠음

○ 강릉단오제와 관련성은 없으나 전통무용을 표현한 공연으로 향후 주제선정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 콘텐츠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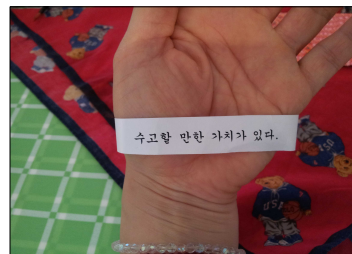
○ 단오문화관의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종합해보면

장점	구분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초청 공연단, 전문 공연단, 시민단체 공연, 어린이 공연단 등 다채로운 공연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흥미로웠음 ▪ 강릉단오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가 소개되어 발전적, 지속적 미래를 볼 수 있었음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청 공연단, 전문공연단, 일부 시민단체의 경우 강릉단오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여 차별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편안한 가운데 관람할 수 있었음 	공간 및 시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 특수효과를 위해 분사된 포그 등으로 인해 호흡에 곤란이 초래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도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몇 프로그램은 강릉단오제의 주제를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하였음 	주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이 주제와 부합하지 않는 공연이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의 형태로 공연 중간에 간혹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함 	참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공연자의 연령층과 유사한 관객들로 관람의 형태를 지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인형극, 마당극 등은 새로운 콘텐츠로 강릉단오제에서만 볼 수 있었음 	신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흔한 공연형태로 신기성은 낮은 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인형극, 설화극 등은 강릉단오제를 소재로 하여 본 축제에서만 볼 수 있었음 	고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청단, 전문공연단, 일부 시민단체의 경우 고유한 공연은 아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인형극, 설화극, 마당극 등은 기대 이상의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하였음 	의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은 기대이상의 재미를 주지는 못했음

라. 기타 체험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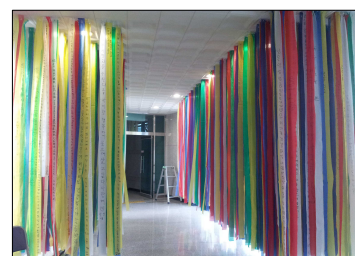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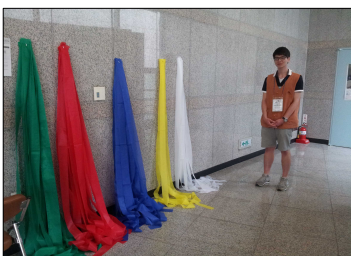
1) 힐링 뽑기

- 단오문화관 2층 전시실 입구에 설치되어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외부에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었음
- 종이에 쓰인 운명의 글귀로 잠깐 동안의 재미를 체험할 수 있었으며 일회성의 프로그램이었음
- 향후 종이를 다른 재질로 교체하여 강릉단오제 기간 동안 지니고 다니거나 귀가 후 기념품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소원쓰기

- 오방색 띠에 유성펜으로 소원을 작성하여 단오문화관 2층 전시실 입구에 설치해 두었다가 송신제에 소지를 올리는 형태임
- 외부에서 다채로운 색상이 쉽게 눈에 뜨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프로그램이었으며 방문객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진행이 요구됨



3) 궁궁이

- 단오문화관 1층 전시실 입구에 설치되어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형태였음
- 실내에 배치하기 보다는 단오장 곳곳에 설치하거나, 캐릭터 복장을 한 광대나 도우미들이 가지고 다니며 나누어 줌으로써 악귀를 쫓는다는 의미를 더욱 극대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4) 단오제 체험촌

- 창포 머리감기, 단오부채만들기, 단오 1000타일 그리기, 단오부적체험, 소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많은 방문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임
- 수리취떡 시식과 단오신주 시음
 - 줄을 세 겹으로 서야하는 불편함, 시식을 원하는 대기자와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주 동선을 따라 이동하는 이동객과 대기자들과의 혼잡이 다소 초래되었음.
 - 해당 코너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방문객이 시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단오캐릭터소품·공예품 만들기
 - 다양한 캐릭터 소품과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소유할 수 있다는 매력에 많은 방문객이 체험에 참가하였음
 - 향후 보다 다양한 소품과 공예품 개발이 필요함

○ 단오부적만들기

- 단오의 액막이 풍습으로 방문객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이었음
- 무료체험으로 안내되었으나 모금함이 있어 자유의지에 따르기는 하나 약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음





3. 2014 강릉단오제 공간 및 시설 배치

- 강릉단오제 본 행사의 공간과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은 무대와 먹거리 공간 등의 공간배치와 편의시설로 구분하였음
- 공간배치의 모니터링 항목은 무대·전시공간·체험공간 배치의 적절성, 먹거리 공간과 편의공간과의 혼잡도로 구분하였음
- 편의시설은 주차시설, 식수시설, 휴게시설(매점, 벤치, 수유시설 등), 화장실 개수·청결도, 오폐수 처리시설, 쓰레기 처리 상황으로 구분하였음

가. 공간배치

기준	평 가
무대·전시공간·체험공간 배치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며 공연 관람 중에도 불편함이 없었으며 무대를 잘 이용하여 보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었음 ▪ 단오제단과 근접해 그네, 씨름, 투호장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었으며 본 행사가 있는 수리마당, 아리마당, 단오문화관이 서로 밀집해 있어서 촉박한 행사일정 중에도 이동이 편리함 ▪ 체험공간은 일자형으로 배치되어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있었으나 신주와 수리취떡 코너는 사람들이 많아 이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음 ▪ 방문객 이동 동선을 고려한 시설 배치로 혼잡함이 덜하였음
먹거리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리가 많아 불편했으며 많이 좁았음 ▪ 다양한 먹거리 촌이 위치하고 있는데다 수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탓에 혼잡함 ▪ 지역특산물 맛볼 수 있는 공간을 턱없이 부족함
편의공간과의 혼잡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 많다보니 자리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많았음 ▪ 무대와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서 산만하고 시끄러운 분위기가 있었으나 편리하고 깨끗하였음

1) 무대·전시공간·체험촌 등의 배치의 적절성

- 수리마당, 아리마당, 단오문화관, 체험촌, 단오제단, 먹거리촌 등 각 공간은 남대천을 기준으로 일자형으로 배치되어 관람 및 체험에 불편함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체험촌의 일부 공간 - 수리취떡 시식, 단오신주 시음 -은 여러 겹으로 줄을 서있어서 시식 및 시음에도 불편하였고 가운데 주 이동 통로로 이동하는 방문객과의 혼잡이 초래되었음.
- 더욱이 어린이와 외국인을 위한 다식판으로 떡 모양을 만드는 코너는 시식 및 시음을 기다리는 대기자들의 줄에 방해를 받아 체험이 용이하지 않았음

2) 먹거리 공간

- 향토음식점이 다소 부족하였음
- 난장의 먹거리 촌은 협소한 내부에 많은 테이블을 배치하여 시식하는 사람과 이동하는 사람과의 혼잡으로 인해 불편하였음

3) 편의공간과의 혼잡도

- 편의공간은 청결하고 편리하였으나 방문객의 수가 많아서 혼잡하고 소란스러웠음

나. 편의시설

기준	평가
주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주차장이 아닌 도로 옆이나 골목의 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행사장 주변에 차들이 항상 많았고 실제로 주차할 공간은 현저히 적어보임 ▪ 주차안내도에 11개의 주차시설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였음 ▪ 셔틀차량이 다니는 주차장을 찾기도 쉽지 않았으며 초입에 안내천막이 있었으나 안내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진입을 시도하였다가 나가는 차량도 있었음 ▪ 셔틀차량 경험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향후 적극적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이용을 유도해야 할 것임
식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된 식수대를 찾지 못하거나 음용에 적절치 않아서 시판되는 음료수를 사서 마시는 것이 원칙이었음 ▪ 화장실 옆에 식수시설이 설치되어 위생상의 문제가 있었음 ▪ 식수대가 행사장 주변에 2개정도 눈에 띄게 있었으며 안내도를 참고하면 나머지 1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음 ▪ 식수시설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찾기가 어려웠고 시원하지 않아 생수를 구입해야 했음
휴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상 깨끗했고 무료 물품보관함이 있어서 이용하기 편리했음 ▪ 휴게시설 공간은 충분히 넓었으며 수유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음 ▪ 의자와 벤치가 많지 않아 아쉬웠음
화장실 개수, 청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청결했으며 장애인 전용도 있어 매우 좋았음 ▪ 비교적 청결하기는 했지만 문이 열려 있어서 악취가 밖으로 계속 나와 불쾌했음 ▪ 열려진 문에 투명한 비닐로 막을 설치해두어 야간에 실내등이 켜지면 속이 흰히 보여 민망했음
오폐수처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할 것 없이 잘 되어 있었음 ▪ 자세한 시설을 보지 못했으나 이러한 처리시설이 눈에 띄게 있었다면 문제가 되었을 것 같음
쓰레기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미화원들이 시간별로 점검, 정리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음 ▪ 분리수거통이 있었으며 관리자가 상시 대기하고 있어 청결이 유지되고 있었음 ▪ 악취가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청결했음

1) 주차시설

- 대형차량 주차장, 관계차량 주차장, 장애인용 주차장, 일반차량 주차장 등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축제 규모에 비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방문객과 축제 관계차량 주변이 혼잡하였음
- 행사장 북측 주차장에 대한 안내가 원활하지 않아 셔틀차량을 이용하는 방문객 수는 상당히 저조하였음

2) 식수시설

- 상수대에 연결된 식수대, 정수기 등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음
- 식수대의 경우 화장실 주변에 있어 위생상의 문제로 인해 이용객이 적었으며 더운 날씨로 인해 정수기 사용도 저조하였음

3) 휴게시설

- 축제장 내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벤치, 수유시설, 매점 등을 구비하여 휴식처를 제공하였음
- 방문객 수가 많은 시간대에는 벤치가 부족하였음

4) 화장실 개수, 청결도

- 화장실은 곳곳에 설치되어 크게 불편하지 않았으며 비교적 내부는 청결하였음
- 야간에 불 켜진 내부가 들여다보이고 냄새로 인해 불편함을 초래하였음

5) 오폐수처리시설

- 식음 코너의 오폐수 처리도 대체로 잘 처리되고 있었음

6) 쓰레기 처리

- 분리수거시설이 곳곳에 있었으며 수시로 쓰레기를 처리하여 단오 기간 동안 청결함을 유지하였음



4. 2014 강릉단오제 홍보 전략

- 홍보전략은 홍보와 행사장 내에서의 안내체계 등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축제 홍보의 효율성, 프로그램 정보 전달의 적절성, 홍보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안내시설(방송, 표지판, 안내도), 안내요원 배치 및 친절도로 구분하였음

기준	평가
축제 홍보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팸플릿, 부채, 물티슈 등을 나눠주고 스마트폰 app을 다운 받게 하여 축제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었음 ▪ 매일매일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음
정보전달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중간 중간 사회자가 자세히 말했으며 전달이 아주 적절했음 ▪ 팸플릿에 프로그램 일정 상 오류가 많아 새로운 일정 안내를 받아 참고해야 했음 ▪ 일정변경 및 취소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공지가 정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함
홍보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제와 관련한 모바일 웹페이지를 홍보하는 안내소가 있었음 ▪ 지역, 시기, 대상 등 전문화된 홍보 부족. 단오제 시기에만 홍보가 집중되어 단순방문객 위주의 정보전달 방법이었던 것 같음. ▪ 단오제 기간이외에도 지속적 홍보가 필요함 ▪ 팸플릿의 정보만으로는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지도를 보고 장소(셔틀차량)를 찾기에 힘들었음
안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데스크나 쉼터 곳곳에 표지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안내방송을 해 행사장마다 프로그램명이 적혀 있는 표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크게 걸어놓아 알기 쉬웠음 ▪ 축제규모에 비해 안내방송이 잘 들리지 않았음
안내요원의 배치 및 친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데스크마다 사람이 많았으며 친절도가 아주 높았음 ▪ 안내요원은 항상 거리 중간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관람객이 찾아가는 방식이었음 ▪ 단오문화해설사에 의해 친절하게 안내를 들을 수 있었음

1) 축제 홍보의 효율성

- 축제장 내에서 일정표, 행사장 안내도, 팸플릿 등 다양한 홍보물을 배포하였으며 APP 설치를 안내하여 홍보의 효율성을 확보함

2) 정보전달의 적절성

- 방송을 통해 프로그램을 안내하였으며 팸플릿을 통해 장소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음
- 반면,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안내가 제때 되지 않아 불편하였음

3) 홍보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 TV, 신문, 잡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고는 있으나 축제기간을 전후하여 홍보가 되어 안타까움
- 연중 내내 홍보하여 방문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안내시설

-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팸플릿으로 편리하였음
- 반면, 안내데스크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 팸플릿을 구하기 어려움

5) 안내요원의 배치 및 친절도

- 안내데스크, 프로그램 진행 등에 안내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단오문화해설사가 있어 관람 및 참여에 불편함이 없었음
- 대부분의 안내요원이 친절하였으나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

5. 2014 강릉단오제 조직 및 운영

- 조직 및 운영은 행사장 내에서의 모든 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에 대한 것으로 원활성과 적절성, 순서의 적절성,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태도, 개최시기(시간)의 적절성으로 구분하였음

기준	평가
원활성과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가 와서 진행이 불가능한 프로그램은 취소가 되었고 중간 중간 비는 공연도 있었음 ▪ 공연이 중단되거나 변경되는 내용을 미리 공지하지 않아 좋지 않았음 ▪ 수리마당은 대체로 원활히 리허설 후 시간에 맞춰 공연이 시작되었으나 아리마당은 시작 시간에 잘 맞추지 않고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많이 보였음 ▪ 단오제단의 곳이 시간표와 달라 계속 같은 곳을 봐야 했음 ▪ 단오제 모든 행사 시작 전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에게 추모의 말을 하고 지나간 점이 인상적이었음
순서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진 순서 배치임 ▪ 시간에 압박을 받지 않고 천천히 거의 모든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순서를 잘 만들었음 ▪ 프로그램 중간 쉬는 시간이 있어 공연과 함께 다양한 먹거리, 즐길 거리를 병행할 수 있었음
방문객의 참여도 및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율이 높았음 ▪ 사회자가 계속 박수와 함성을 유도했으나 관람객의 박수가 모자란 경우가 많았음
개최시기(시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시기는 매우 적절했음 ▪ 프로그램 진행이 너무 늦게까지 아니어서 적절함

1) 원활성과 적절성

- 수리마당의 경우 스크린의 자막을 통해 프로그램 전후 안내가 되

었으며 시간이 잘 지켜졌으나 아리마당의 경우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안내가 되지 않아 불편하였음

2) 순서의 적절성

- 프로그램이 심하게 겹치지 않고 골고루 구경하고 즐길 수 있었으며 오전과 오후 프로그램을 절적히 배치하였음

3) 방문객의 참여도 및 태도

- 관람형태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인 수리마당, 아리마당, 단오문화관의 경우 일부 프로그램에서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하여 함께 즐길 수 있었음
- 방문객도 대부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람하는 편이었음

4) 개최시기(시간)의 적절성

- 강릉단오제 개최 시기가 세월호 참사에 따라 전국적으로 축제나 유희이벤트성 행사 개최와 참여에 자숙하는 분위기 가운데서 최적의 개최 환경이 아니었음
- 보다 많은 관광객의 참여가 제한되었고, 놀고 즐기는 대중동원 프로그램 도입이 자제됨으로써 다소 위축된 분위기에서 강릉단오제가 개최되었음
- 시행프로그램과 행사들의 시작과 끝은 대부분의 경우, 짜여진 일정대로 잘 실시되었으나 몇몇 프로그램과 행사들에서 운영상의 미숙한 문제로 공연이 지체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음

6. 인터넷상의 방문 후기 모니터링

가. 모니터링 내용

- 강릉단오제 현장에서의 모니터링 외에 온라인상의 블로그, SNS, 카페 등에 등록된 경험 후기를 검색하여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분석하였음
- 모니터링 1(* 부록 참조)
 - 단오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가운데 시택어른의 권유로 참가
 -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개략적 정보 습득
 -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광객(속초)
 - 둔치에 마련된 주차장 이용, 셔틀차량을 통해 놀이기구와 같은 즐거움 경험
 - 풍물시장, 떡거리촌, 메인행사장의 구획 인지
 - 어린 자녀의 체험, 음식 시식, 떡거리 체험
 - 공연 중 관노가면극 관람 실패 -공연이 없는 날이었음
 -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됨
- 모니터링 (*부록 참조)
 - 타 지역 관광객(청주)으로 강릉단오제 서포터즈 활동
 - 대규모 행사장에 대한 깊은 인상
 - 단오문화관 내의 힐링뽑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체험거리 경험
 - 떡거리촌의 유사한 메뉴

- 원거리 관광객의 경우 각종 대회의 예선, 본선에 모두 참여하기 어려움. 따라서 상품을 기대하기 어려움
- 주변 관광지(경포해변)에 대한 홍보

○ 모니터링 3(*부록 참조)

- 재방문객으로 행사장의 공간배치 변화에 대해 언급
- 안내소의 활용 용이
- 각종 체험거리에 대한 흥미, 기념품에 대한 긍정적 의견
- 장애인 시설, 미아보호소 운영 등에 대한 긍정적 의견
- 다양한 체험활동에 흥미, 놀이동산과 비유로 어린이 놀이공간 제공에 긍정적임

○ 모니터링 4(*부록 참조)

- 타 축제와의 비교(진주남강유등축제)로 차별화 부족 언급
- 창포물에 머리감기, 난장의 놀이배 타기, 야간 등불 등에 대한 흥미

나. 모니터링 결과

- 인터넷 블로그의 내용을 모니터링 한 결과 대부분의 방문객은 구전에 의해 강릉단오제 참가를 선택하였으며 사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강릉단오제의 규모에 만족하며 안내시스템이 체계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통해 축제를 즐기고 있음
- 반면, 사전 정보에 의해 습득된 프로그램이 방문하는 날 진행되지 않아 아쉬워하는 면도 있었음

7. 2014 강릉단오제 방문객 추정

가. 방문객 추정 개요

1) 방문객 추정목적

- 축제 참여자(지역주민과 관광객) 수를 추정함으로써 축제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추정할 수 있으며 향후 축제의 규모 및 예산, 상품과 프로그램 개발, 축제의 역할 등에 따른 축제의 기획과 방향을 수정하고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따라서 2014 강릉단오제의 전체방문객의 수를 추정함으로써 축제에 대한 관심과 파급효과 등을 추정하고 2015년 축제의 개념과 방향을 정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함

2) 방문객 추정 방향

- 강릉단오제 기간을 평일과 공휴일로 구분하고 하루 중 방문객 수가 가장 높은 시간대와 낮은 시간대로 세분하여 단위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마당(수리마당, 아리마당, 단오문화관)과 체험존, 먹거리촌, 난장 등의 방문객 수를 평균하고 합산하여 전체 방문객을 추정하였으며 추정은 만(10,000) 명단위로 계상함
- 측정 장소
 - 단오제단, 수리마당, 아리마당, 단오문화관, 체험존, 먹거리촌, 수리마당 남측 난장, 북측 난장 전체

○ 측정 시간

- 평 일 3일 : 6. 2(월), 6. 3(화), 6. 5(목)
- 공휴일 5일 : 5.31(토), 6. 1(일), 6. 4(수), 6. 6(금), 6. 7(토)
<6. 4(수): 지방선거일, 6. 6(금): 현충일>
- 방문객 수가 높은 시간대 : 11:00~14:30 / 18:00~21:00
- 방문객 수가 낮은 시간대 : 14:30~18:00 / 09:00~10:00 / 21:00 이후

3) 방문객 추정 결과

○ 평일(3일) : 약 27만 명

- 방문객 수가 높은 시간대 : 3만 명×2회×3일=18만 명
- 방문객 수가 낮은 시간대 : 1.5만 명×2회×3일=9만 명

○ 공휴일(4일) : 약 72만 명

- 방문객 수가 높은 시간대 : 6만 명×2회×4일=48만 명
- 방문객 수가 낮은 시간대 : 3만 명×2회×4일=24만 명

○ 일요일(1일) : 약 12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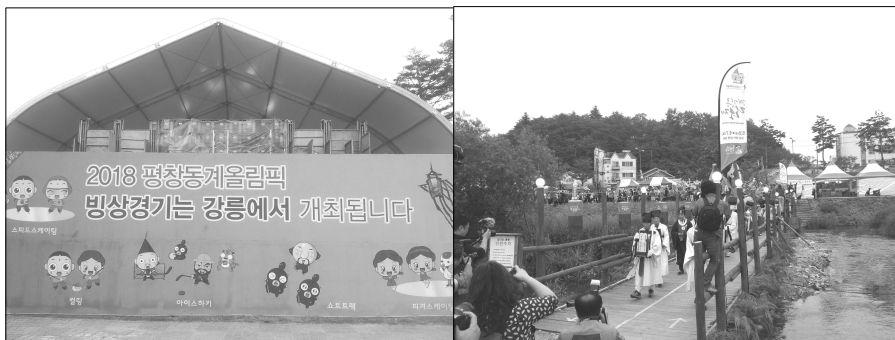
- 방문객 수가 높은 시간대 : 4만 명×2회×1일=8만 명
- 방문객 수가 낮은 시간대 : 2만 명×2회×1일=4만 명

○ 총 방문객 추정 수 : 약 111만 명<행사관련자 및 시설 운영관리자(상주 약 300여 명) 10,000명 포함>

○ 상기 약 110만 명의 강릉단오제 참가자 중 지역주민 50여만 명 (45.5%) : 관광객 60여만 명(55.5%)로 추정함

○ 따라서 단오장 및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은 60여만 명으로 작년

보다 다소 적은 수이며 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여행자체의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이 다소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지역주민은 50여만 명으로 연휴가 선거일과 겹치면서 단오장 나들이가 다소 많았던 것으로 사료됨



IV. 2014 강릉단오제 평가 분석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 강릉단오제는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된 축제이며 특히, 2014년은 유네스코 등록 이후 9년째로 내년 (2015년) 등록 1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사 자료가 필요함
- 강릉단오제의 진행과정을 재조명하고 세계축제로의 명성을 지속하기 위해 방문객의 특성 분석과 축제에 대한 방문객의 객관적 평가가 필요함
- 따라서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평가지침을 토대로 한 객관적 평가와 모니터링, 전문가의 평가를 병행한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세계적 문화축제로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조사설계 및 항목

1) 조사설계

- 조사방향
 - 문화관광부 문화관광축제 방문객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강릉단오제에 적합한 항목으로 재구성하여 설문지를 작성함으로써 조사 항목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음

○ 조사시기

- 2014년 5월 31일 ~ 6월 7일(8일간)
- 설문조사는 축제기간 중 평일과 휴일, 축제의 초·중·말에 고르게 분산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 모니터링의 경우 프로그램과 행사장 전반의 상황을 구분하여 시간대를 오전, 정오, 오후, 심야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음

○ 조사장소

- 남대천을 중심으로 한 단오장 일원과 단오장 주변지역의 분위기를 모니터링 하였음

○ 조사대상

- 강릉단오제 방문객 : 지역주민(강릉시민)과 관광객
- 지역주민 : 강릉시 거주민
- 관광객 : 강릉 이외의 지역 거주자로 강릉단오제 방문객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비확률 표본추출법의 임의표집방법
-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요원들에 의해 설문조사가 실시됨

○ 분석방법

- 빈도분석
- 기술통계분석
- 다중응답분석

2) 조사항목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평가항목을 기초로 강릉단오제 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항목을 구성함
- 설문지 구성
 - 방문객 특성 : 방문횟수, 동반자 유형 및 동반자 수, 정보 습득 경로, 재미있는 프로그램, 강릉단오제 방문 횟수, 구입물품, 이동수단 이용 유무, 참가동기(13항목), 강릉단오제 인지도(8항목), 지정문화재 관람 유무(7항목)
 - 관광객 특성 : 숙박장소, 교통수단, 소비지출(교통, 숙박, 식음료비, 유흥, 쇼핑, 기타),
 - 만족도 : 접근성, 홍보 및 안내, 행사내용, 프로그램 내용, 먹을거리, 편의시설, 재방문 의도
 -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성별, 결혼유무, 연령, 거주지, 가족 전체 월평균 소득, 학력, 직업

2. 2014 강릉단오제 방문객 설문조사 분석 결과

가. 응답자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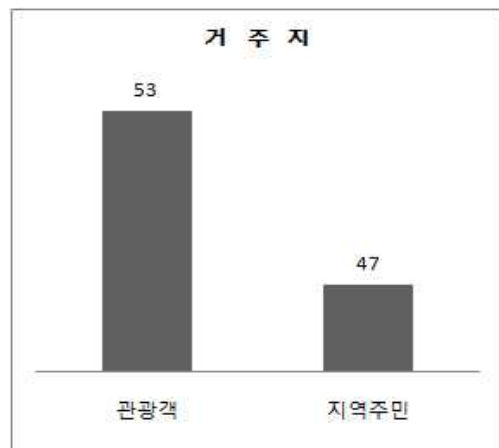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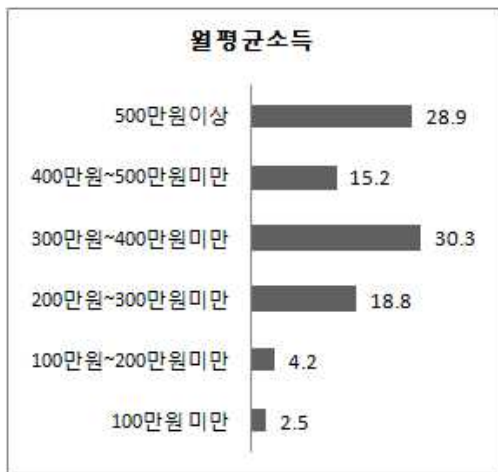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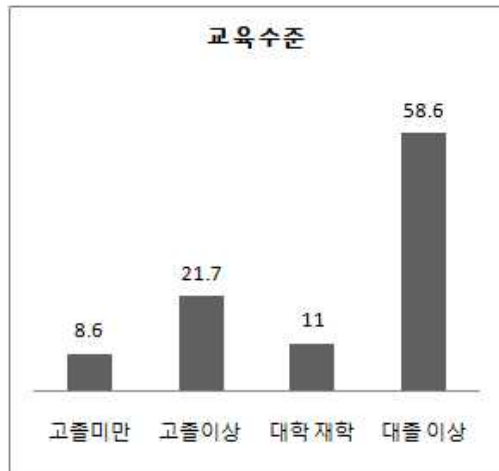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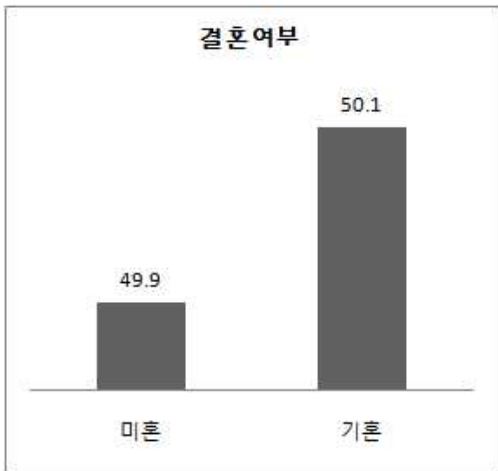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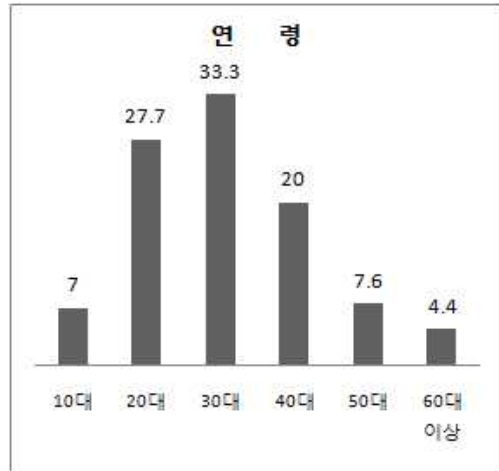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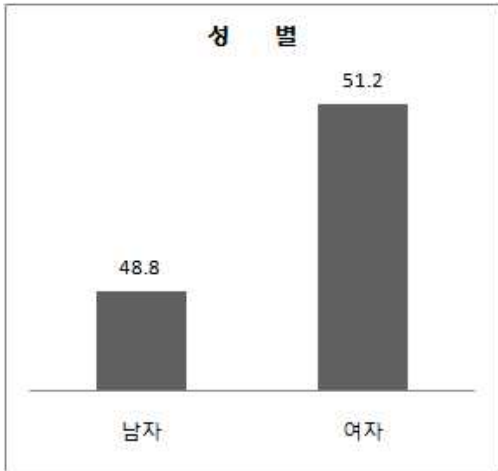
- 전체 유효응답자 503명 중 강릉지역 거주자는 53%, 관광객으로 정의한 타지역 거주자는 47%이며 성별은 남자 48.8%, 여자 51.2%, 결혼유무는 미혼 49.9%, 기혼 50.1%로 거의 유사한 응답율을 보임
- 연령은 30대 33.3%, 20대 27.7%, 40대 2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대졸 이상 58.6%, 고졸이상 21.7%, 직업은 회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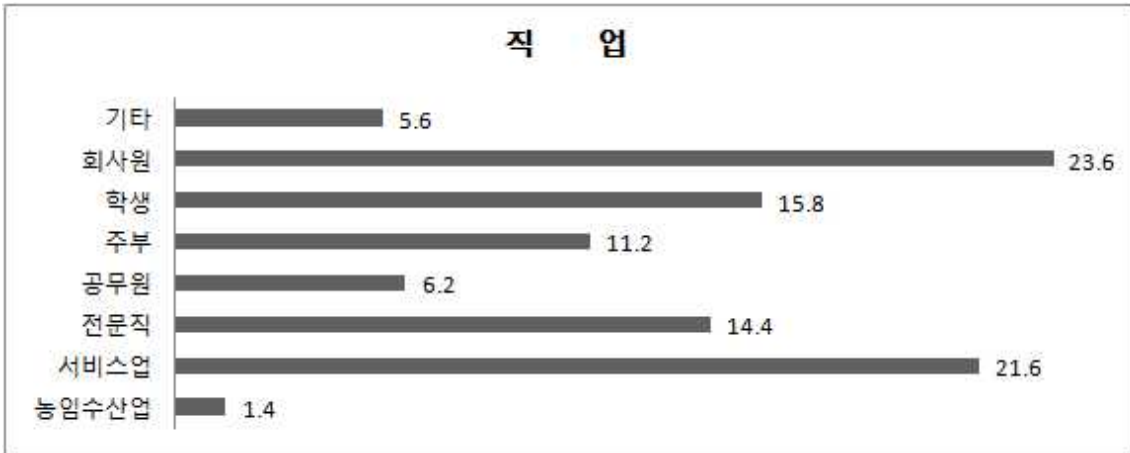
23.6%, 서비스업 21.6%, 학생 15.8%, 전문직 14.4%의 순으로 나타남

- 월평균소득은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0만원 이상 28.9%,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8.8%,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5.2%의 순으로 나타남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항 목	빈도(%)	구분	항 목	빈도(%)
성별	남자	245(48.8)	직업	농임수산업	7(1.4)
	여자	257(51.2)		서비스업	108(21.6)
	합계	502(100)		전문직	72(14.4)
연령	10대	35(7)		공무원	31(6.2)
	20대	138(27.7)		주부	56(11.2)
	30대	166(33.3)		학생	79(15.8)
	40대	100(20)		회사원	118(23.6)
	50대	38(7.6)		기타	28(5.6)
	60대 이상	22(4.4)		합계	499(100)
교육 수준	합계	499(100)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고졸미만	43(8.6)	100만원~200만원미만		15(4.2)
	고졸이상	108(21.7)	200만원~300만원미만		67(18.8)
	대학 재학	55(11)	300만원~400만원미만		108(30.3)
	대졸 이상	292(58.6)	400만원~500만원미만		54(15.2)
	합계	498(100)	500만원이상		103(28.9)
결혼 여부	미혼	250(49.9)	거주지	합계	356(100)
	기혼	251(50.1)		관광객	265(53)
	합계	501(100)		지역주민	235(47)
			합계	50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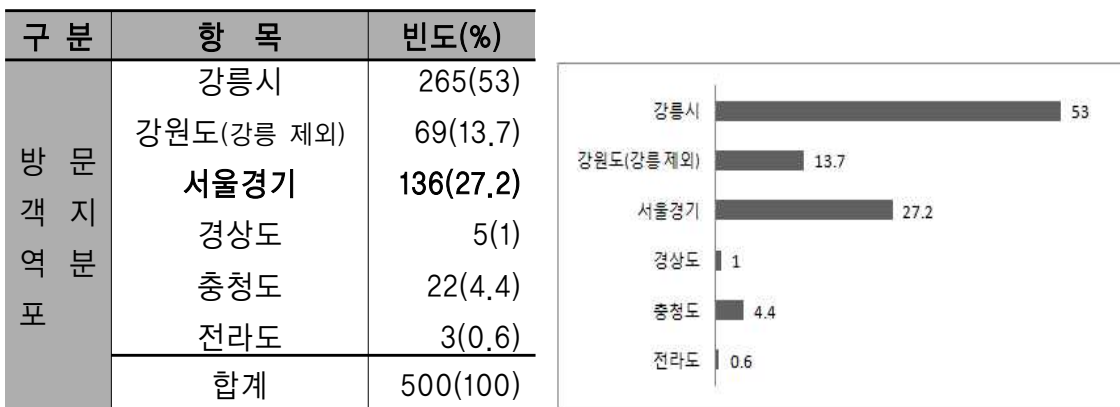


나. 응답자 전체 특성

1) 거주지별 분포

- 2014 강릉단오제 방문객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강릉시는 53%이며 서울·경기 27.2%, 강릉을 제외한 강원도 거주자 13.8%,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순으로 나타남

<거주지 분포>



2) 방문횟수 / 동반자 유형 / 동반자 수

- 지금까지 강릉단오제에 몇 번이나 방문하였는가에 대한 항목에 대한 응답으로 ‘방문횟수’를 조사한 결과 지역주민은 11회 이상(28.7%)이 가장 많았으며 70% 이상이 3회이상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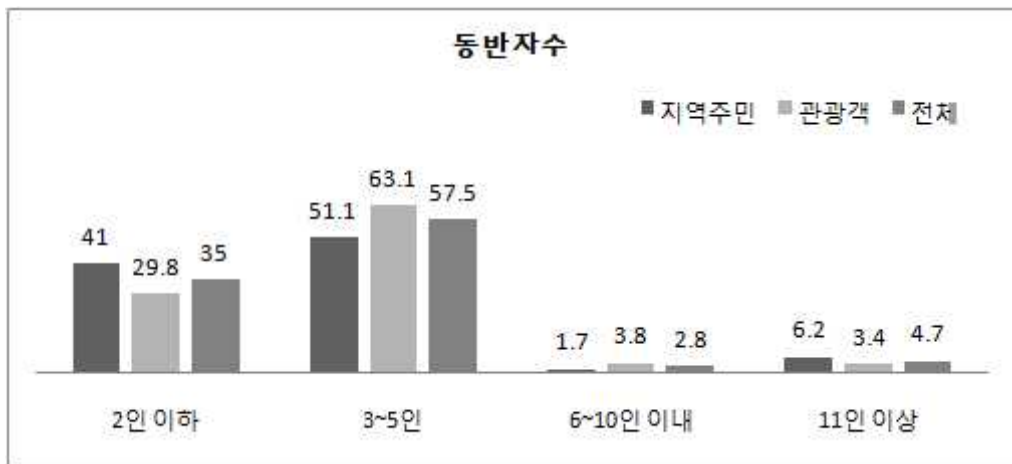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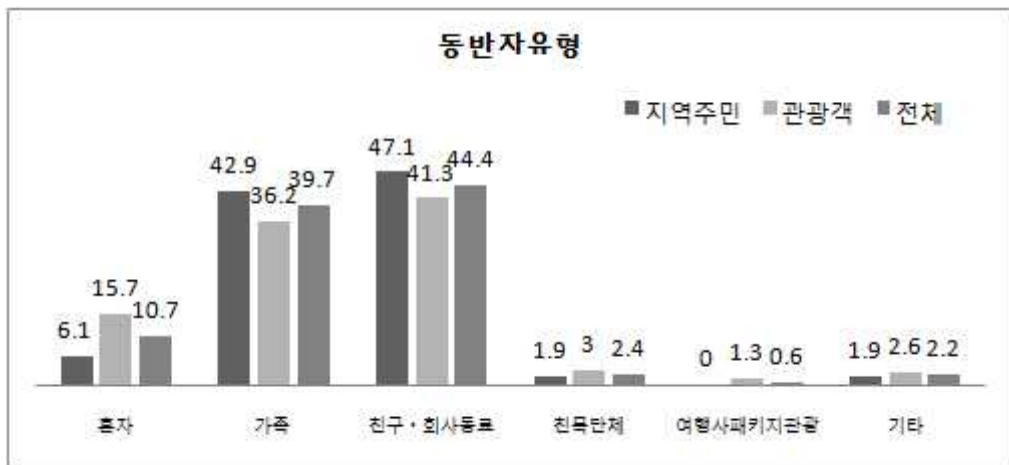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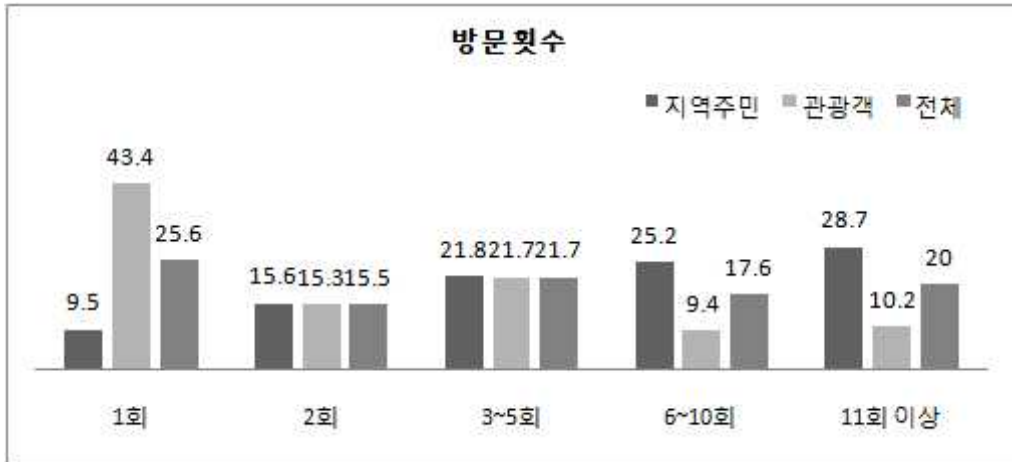
로 나타났으며 관광객은 이번이 처음(43.4%)인 것으로 나타났음

○ 강릉단오제 방문에 있어 동반자 유형은 친구나 회사동료와 함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역주민(47.1%)과 관광객(41.3%) 모두가 같은 결과를 나타냈음

○ 강릉단오제 방문 동반자 수는 대부분 3-5인 정도로 지역주민(51.1%), 관광객(63.1%) 응답자 중 절반이상이 차지하고 있음

<방문횟수 / 동반자 유형 / 동반자 수>

구 분	항 목	빈도(%)		
		지역주민	관광객	전체방문객
방문횟수	1회	25(9.5)	102(43.4)	127(25.6)
	2회	41(15.6)	36(15.3)	77(15.5)
	3~5회	57(21.8)	51(21.7)	108(21.7)
	6~10회	66(25.2)	22(9.4)	88(17.6)
	11회 이상	76(28.7)	24(10.2)	100(20)
	합계	265(100)	235(100)	500(100)
동반자 유형	혼자	16(6.1)	37(15.7)	53(10.7)
	가족	112(42.9)	85(36.2)	197(39.7)
	친구 · 회사동료	123(47.1)	97(41.3)	220(44.4)
	친목단체	5(1.9)	7(3)	12(2.4)
	여행사패키지관	0(0)	3(1.3)	3(0.6)
	광	5(1.9)	6(2.6)	11(2.2)
	기타			
	합계	261(100)	235(100)	496(100)
동반자 수	2인 이하	73(41)	62(29.8)	135(35)
	3~5인	91(51.1)	131(63.1)	222(57.5)
	6~10인 이내	3(1.7)	8(3.8)	11(2.8)
	11인 이상	11(6.2)	7(3.4)	18(4.7)
	합계	178(100)	208(100)	38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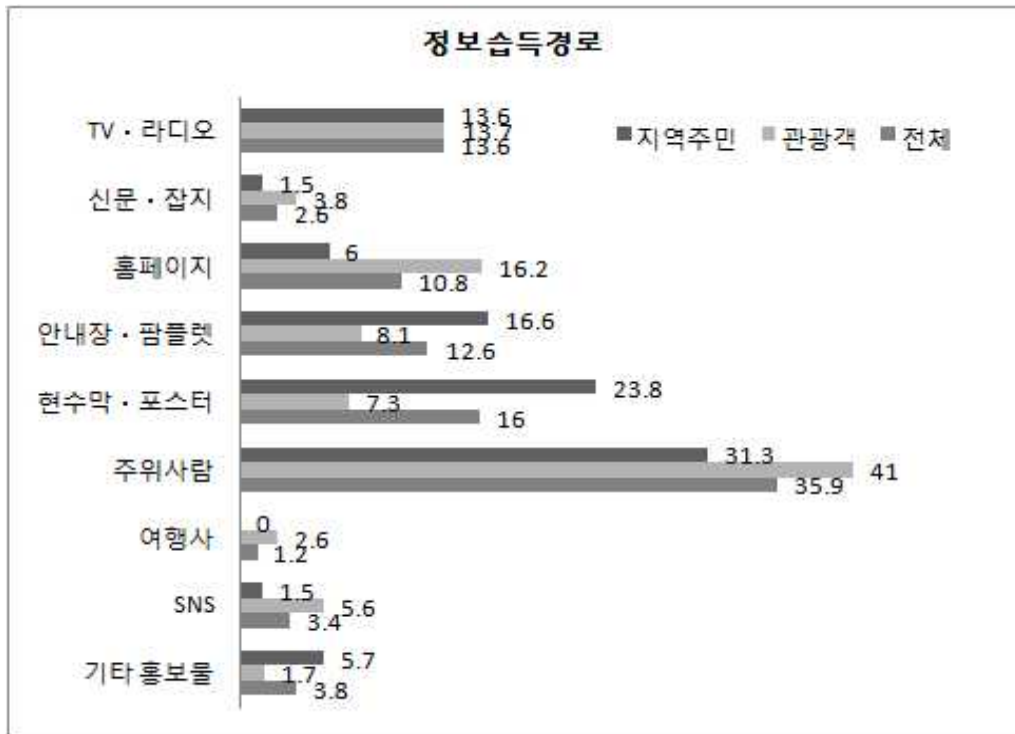


3) 정보습득경로

- 강릉단오제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 습득하였는가에 대한 응답은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에서 주위사람의 권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방문객 전체의 순위를 보면 주위사람 다음으로 현수막·포스터(16%), TV·라디오(13.6%), 안내장·팜플렛(12.6%), 홈페이지(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관광객이 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는 주위사람 다음으로 홈페이지(16.2%), TV·라디오(13.6%) 등으로 나타나 인터넷과 방송을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들어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SNS를 통한 정보습득은 지역주민(1.4%)에 비해 관광객(5.6%)이 다소 높게 나타나 향후 홍보수단으로 구체화할 필요 또한 있음

<정보습득경로>

항 목	빈도(%)		
	지역주민	관광객	전체방문객
TV·라디오	36(13.6)	32(13.7)	68(13.6)
신문·잡지	4(1.5)	9(3.8)	13(2.6)
홈페이지	16(6)	38(16.2)	54(10.8)
안내장·팜플렛	44(16.6)	19(8.1)	63(12.6)
현수막·포스터	63(23.8)	17(7.3)	80(16)
주위사람	83(31.3)	96(41)	179(35.9)
여행사	0(0)	6(2.6)	6(1.2)
SNS	4(1.5)	13(5.6)	17(3.4)
기타 홍보물	15(5.7)	4(1.7)	19(3.8)
합계	265(100)	234(100)	49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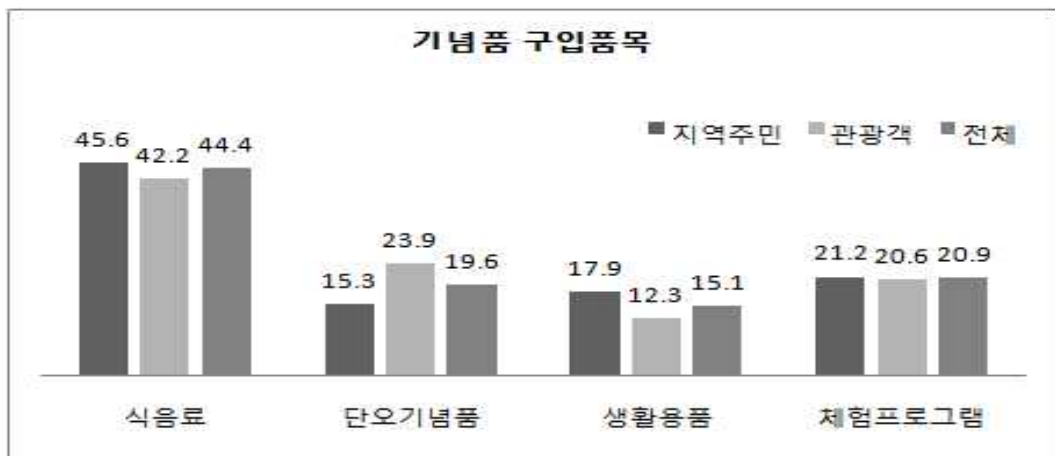


4) 구입품목

- 응답자 503명 중 강릉단오제에서 어떠한 것도 구입하지 않은 경우는 78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15%에 그쳤으며 식음료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구입한 경우는 85%로 나타남
- 구입품목별 빈도를 살펴보면 전체방문객은 식음료(44.4%), 체험 프로그램(20.9%), 단오기념품(19.6%), 생활용품(15.1%)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이들 중 지역주민은 식음료(45.6%), 체험프로그램(21.2%), 생활용품(17.9%), 단오기념품(15.3%)의 순이며 관광객은 식음료(42.2%), 단오기념품(23.9%), 체험프로그램(20.6%), 생활용품(12.3%)의 순으로 나타났음

<기념품 구입 품목>

항 목	지역주민			관광객			전체방문객		
	빈도	백분율	응답율	빈도	백분율	응답율	빈도	백분율	응답율
식음료	140	45.6	63.9	130	42.2	66	270	44.4	64.9
단오기념품	47	15.3	21.5	72	23.9	36.5	119	19.6	28.6
생활용품	55	17.9	25.1	37	12.3	18.8	92	15.1	22.1
체험프로그램	65	21.2	29.7	62	20.6	31.5	127	20.9	31.5
합계	307	100	140.2	301	100	152.8	608	100	1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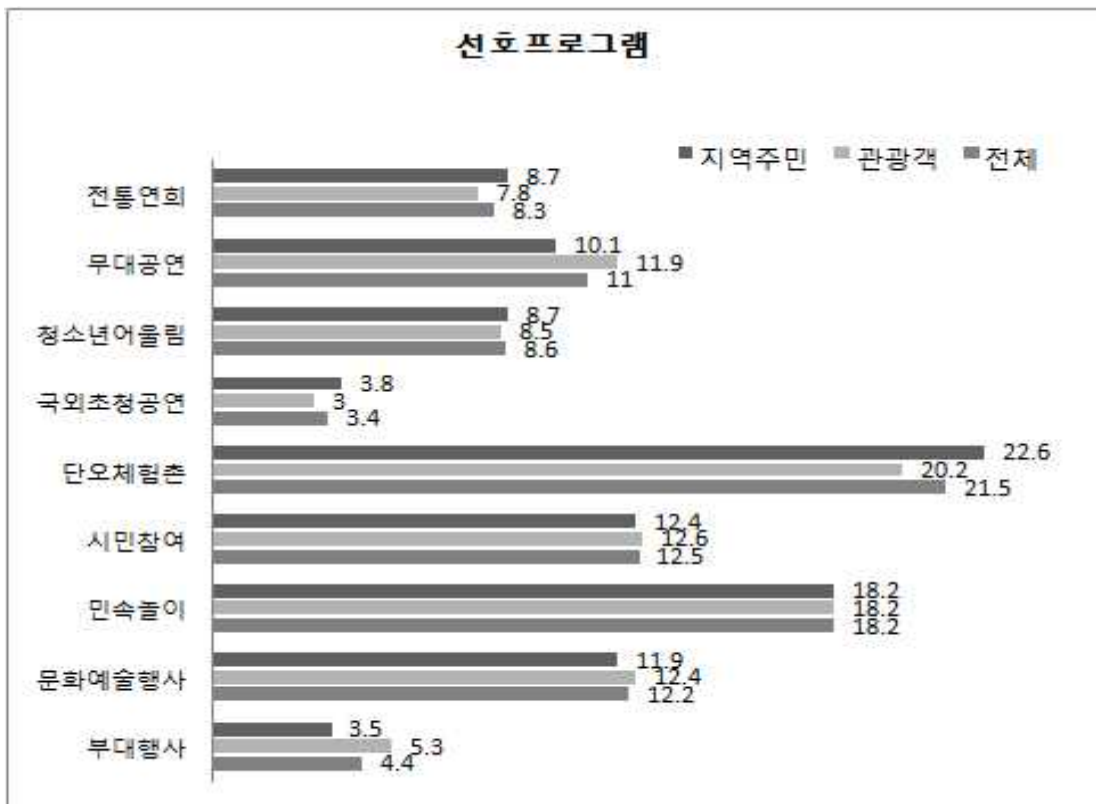


5) 프로그램 순위

- 강릉단오제 전체 프로그램 중 가장 재미있었던 것을 순위대로 선택하는 항목에서는 방문객 전체가 단오체험촌(21.5%)을 가장 높게 선택하였으며 민속놀이(18.2%), 시민참여 프로그램(12.5%), 문화예술행사(12.2%), 무대공연(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순위 단오체험촌 중 수리취떡 만들기, 창포머리감기, 신주마시기, 관노탈 그리기, 단오부채 만들기, 단오차체험, 캐릭터 탁본하기, 단오 1000타일 그리기, 방짜수저(열쇠고리) 만들기 등이 가장 선호하는 단위 프로그램으로 선택되었음
 - 2순위 민속놀이는 씨름대회 - 특히, 어린이 씨름대회 -, 그네타기, 투호, 윷놀이, 줄다리기 등이 선택되었으며, 3순위 시민참여 프로그램 영신행차, 단오등 행사, 신주미 봉정행사, 4순위 문화예술행사 강릉사투리경연대회, 전통혼례, 5순위 무대공연 한청 실버가요제 등이 선택되었음
- 낮은 순위로 선택된 전통연희(8.3%), 청소년어울림(8.6%), 국외 초청공연(3.4%), 부대행사(4.4%)의 경우 장소에 대한 정보 및 안내 부족(단오문화관 내 공연장), 타축제와 이벤트 등을 통한 유사경험, 세대와 문화의 소통과 통합 부족 등의 이유로 방문객의 참여 및 관람이 저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
- 향후 사전 홍보 및 행사장 내 적극적 참여 유도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경험을 통한 만족도 향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선호 프로그램 순위>

항 목	지역주민			관광객			전체방문객			
	빈도	백분율	응답율	빈도	백분율	응답율	빈도	백분율	응답율	순위
전통연희	57	8.7	26.1	47	7.8	23.4	104	8.3	24.8	7
무대공연	66	10.1	30.3	72	11.9	35.8	138	11.0	32.9	5
청소년어울림	57	8.7	26.1	51	8.5	25.4	108	8.6	25.8	6
국외초청공연	25	3.8	11.5	18	3.0	9.0	43	3.4	10.3	9
단오체험촌	148	22.6	67.9	122	20.2	60.7	270	21.5	64.4	1
시민참여	81	12.4	37.2	76	12.6	37.8	157	12.5	37.5	3
민속놀이	119	18.2	54.6	110	18.2	54.7	229	18.2	54.7	2
문화예술행사	78	11.9	35.8	75	12.4	37.3	153	12.2	36.5	4
부대행사	23	3.5	10.6	32	5.3	15.9	55	4.4	13.1	8
합계	654	100	300	603	100	300	1257	100	300	



다. 관광객 일반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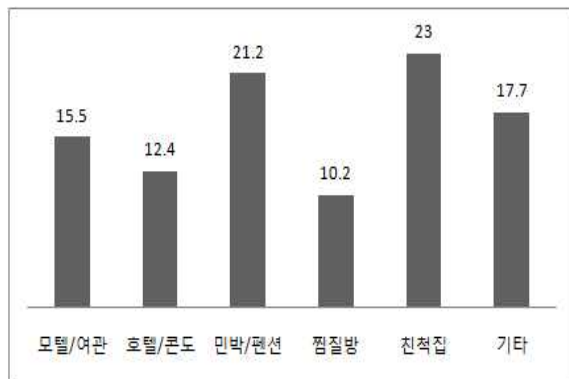
- 강릉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방문객을 관광객으로 정의하고 강릉단오제 기간 동안 체류 시 숙박유형과 축제장까지의 주요 교통수단 및 지출내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임

1) 숙박유형/교통수단

- 관광객의 경우 강릉단오제 기간 동안 장기체류할 경우 어디에서 숙박하는가에 대한 항목으로 강릉에 거주하는 친척집(23%)에 숙박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그 밖에도 민박/펜션(21.2%), 모텔/여관(15.5%), 호텔/콘도(12.4%), 찜질방(10.2%) 등으로 나타났음

<관광객 숙박유형>

항 목	빈도(%)
모텔/여관	35(15.5)
호텔/콘도	28(12.4)
민박/펜션	48(21.2)
찜질방	23(10.2)
친척집	52(23)
기타	40(17.7)
합계	22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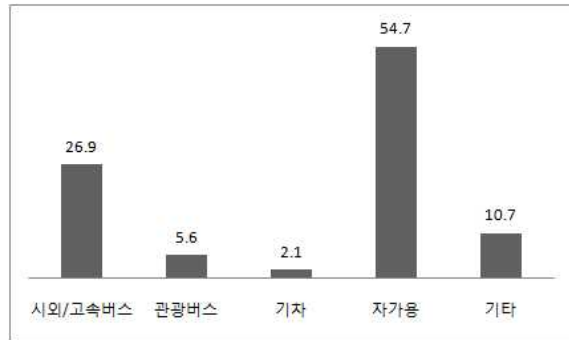


- 응답자들이 강릉단오제까지 사용한 주요 교통수단에 대한 항목은 자가용(54.7%), 시외/고속버스(26.9%)가 높게 나타났음
- 자가용 이용자가 과반수로 인해 주차시설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음. 따라서 향후 관광객뿐만 아니라 강릉시의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행사관계 차량 등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관광객 교통수단>

항 목	빈도(%)
시외/고속버스	63(26.9)
관광버스	13(5.6)
기차	5(2.1)
자가용	128(54.7)
기타	25(10.7)
합계	234(100)



2) 지출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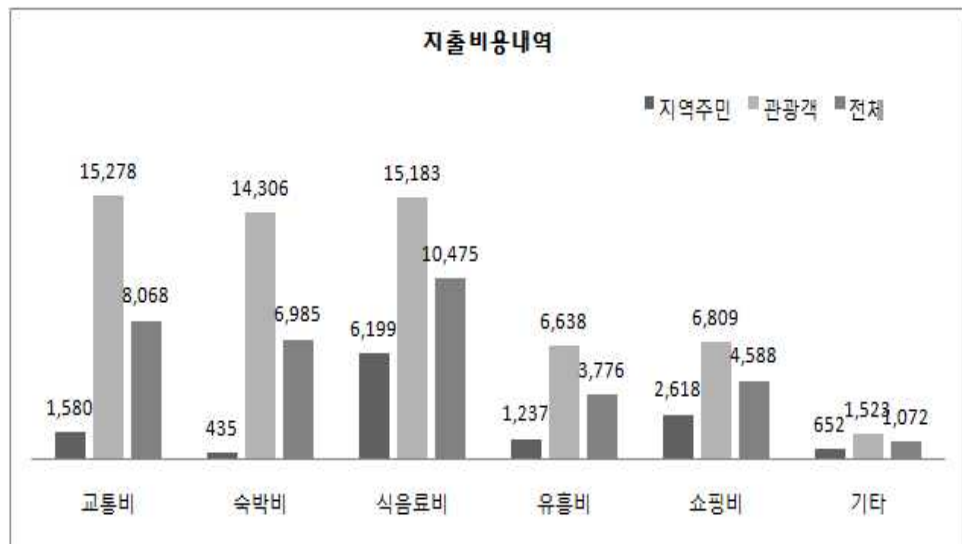
- 2014 강릉단오제 전체방문객의 지출 항목을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타로 구분하고 지역주민, 관광객, 전체 방문객의 평균 지출 비용 내역을 살펴보았음
- 지출비용의 평균 도출 시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비용지출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각 항목의 합계에 전체 관광객(235명), 전체 지역주민(265명)으로 나눈 결과를 나타내었음
- 2014년 강릉단오제를 방문한 전체응답자(500명)의 지출비용은 평균 34,965원으로 식음료비(10,475원)와 교통비(8,068원)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 지역주민(265명)은 평균 12,721원을 지출하였으며 식음료비(6,199원)가 타 항목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관광객(235명)의 평균 지출금액은 59,737원이며 교통비(15,278원), 식음료비(15,183원), 숙박비(14,306원)가 가장 많이 지출되었음

<지출비용 내역>

(단위 :원)

항 목	지역주민(N=265)	관광객(N=235)	전체(N=500)
교통비	1,580	15,278	8,068
숙박비	435	14,306	6,985
식음료비	6,199	15,183	10,475
유흥비	1,237	6,638	3,776
쇼핑비	2,618	6,809	4,588
기타	652	1,523	1,072
합계	12,721	59,737	34,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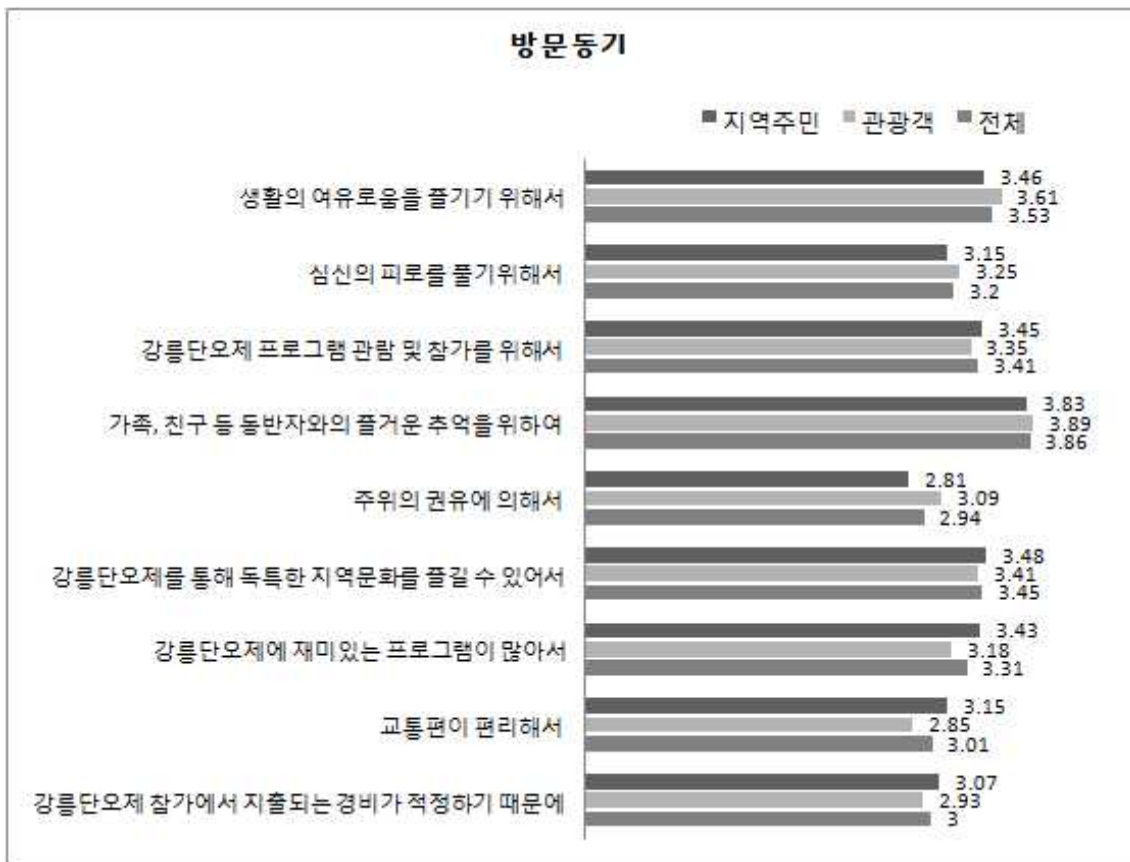
라. 강릉단오제 방문동기

- 강릉단오제 방문동기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많은 조사 보고서에서 사용된 동기항목을 선별하여 조사한 결과
- 전체방문객의 방문동기의 평균점수는 가족, 친구 등 동반자와의 즐거운 추억을 위하여가 3.8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가 2.9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 외 항목들에서는 생활의 여유로움을 즐기기 위하여, 강릉단오제를 통해 독특한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어서, 강릉단오제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서가 3.4점 ~ 3.5점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의 경우도 전체방문객과 마찬가지로 동반자와의 즐거운 추억을 위하여(3.83점)이 가장 높았으며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2.81점)가 가장 낮게 나타남. 그 밖에 독특한 지역문화를 즐기기 위해 3.48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3.43점, 생활의 여유로움을 즐기기 위하여 3.46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관광객의 경우 동반자와의 즐거운 추억이 3.89점으로 가장 높았고 생활의 여유로움 3.61점, 독특한 지역문화를 즐기기 위해 3.41점, 프로그램 관람 및 참가 3.35점으로 비교적 높았으며 주위의 권유 3.09점, 교통편이 편리해서 2.8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특히, 강릉단오제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가 주위사람인데 반해 주위의 권유에 의한 방문이 낮게 나타난 것은 강릉단오제 방문 경험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가지지 못함에 따른 부정적 정보전달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며 다양한 측면에서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방문동기>

항 목	지역주민			관광객			전체방문객		
	N	M	S.D	N	M	S.D	N	M	S.D
생활의 여유로움을 즐기기 위해서	259	3.46	.903	232	3.61	.886	491	3.53	.897
심신의 피로를 풀기위해서	260	3.15	1.039	233	3.25	.996	293	3.20	1.022
강릉단오제 프로그램 관람 및 참가를 위해서	262	3.45	1.008	234	3.35	.984	496	3.41	.997
가족, 친구 등 동반자와의 즐거운 추억을 위하여	262	3.83	.883	233	3.89	.857	495	3.86	.871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	258	2.81	1.101	235	3.09	1.083	493	2.94	1.059
강릉단오제를 통해 독특한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어서	262	3.48	.958	234	3.41	.964	496	3.45	.961
강릉단오제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261	3.43	.920	233	3.18	.945	494	3.31	.939
교통편이 편리해서	259	3.15	1.018	233	2.85	1.042	492	3.01	1.038
강릉단오제 참가에서 지출되는 경비가 적정하기 때문에	261	3.07	.972	234	2.93	1.002	495	3.00	.990

* N(Number): 빈도(응답자 수)
 M(Mean): 평균(5점 척도에 의한 응답자의 만족도 평균)
 SD(Standard Deviation): 표준편차(평균과의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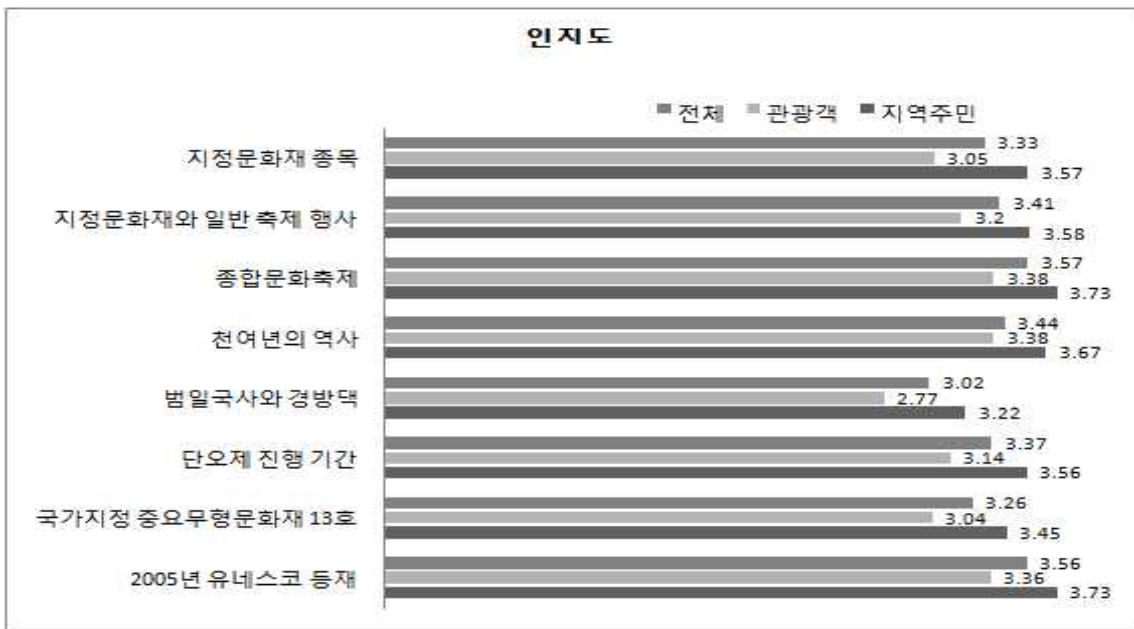
마. 강릉단오제 인지도

- 강릉단오제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3점 이상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는바 응답자의 대부분이 강릉단오제에 대한 보통이상의 정보를 습득한 것을 알 수 있었음
- 특히, 종합문화축제라는 것과 유네스코 등재 사실에 대해서는 3.5점 이상으로 비교적 잘 알고 있었으며 강릉단오제가 천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것과 강릉단오제 행사 내용이 지정문화재와 일반축제 행사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3.4점 이상으로 나타났음
- 반면, 강릉단오제에 모시는 신이 범일국사와 경방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3.02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음
- 따라서 사전행사, 배경설화 등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강릉단오제의 고유성을 강화해야 함

<인지도>

항 목	지역주민			관광객			전체		
	N	M	S.D	N	M	S.D	N	M	S.D
강릉단오제가 2005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에 등재된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265	3.73	1.038	235	3.36	1.017	503	3.56	1.043
강릉단오제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13호 인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265	3.45	.98	235	3.04	.942	503	3.26	.983
강릉단오제가 음력 4월 5일부터 음력 5월 초 까지 한 달여 정도 진행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262	3.56	1.040	234	3.14	.984	499	3.37	1.036
강릉단오제에서 모시는 성황신이 범일국사와 경방덕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263	3.22	1.073	234	2.77	1.025	500	3.02	1.072
강릉단오제가 천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264	3.67	1.040	234	3.38	.988	502	3.44	1.059
강릉단오제가 음악, 춤, 문학, 연극, 공예 등 뛰어난 예술적 가치가 있는 종합문화축제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265	3.73	.958	234	3.38	.988	502	3.57	.986
강릉단오제는 지정문화재와 일반 축제 행사로 진행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265	3.58	.993	235	3.20	.973	503	3.41	.999
강릉단오제의 지정문화재가 신주빚기, 대관령 산신제·국사성황제, 구산·학산서낭제, 봉안제, 영신제·영신행차, 조전제, 단오굿, 관노가면극, 송신제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265	3.57	1.042	235	3.05	1.016	503	3.33	1.059

* N(Number): 빈도(응답자 수)
 M(Mean): 평균(5점 척도에 의한 응답자의 만족도 평균)
 SD(Standard Deviation): 표준편차(평균과의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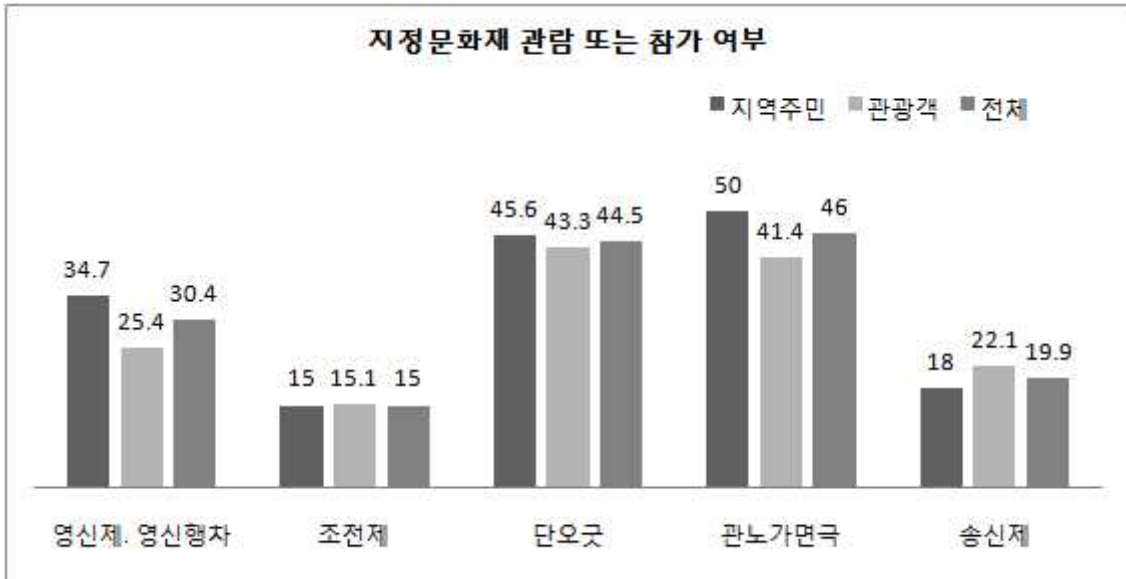


바. 지정문화재 관람 또는 참여 유무

- 강릉단오제의 본 행사 이전부터 진행되는 다양한 지정문화재 관람 또는 참여 유무에 대한 항목은 관람 또는 참여하였다는 응답만을 분석한 결과
- 전체응답자 503명 중 관노가면극(228명), 단오굿(220명)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영신제·영신행차(150명), 봉안제와 송신제(98명), 조전제(74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주빚기, 대관령산신제·국사성황제, 구산·학산서낭제는 응답자 중 관람 및 참가의 응답이 없었음
- 이를 지역주민과 관광객으로 구분하여 보면 영신제·영신행차의 경우 지역주민 34.7%, 관광객 25.4%로 지역주민의 참여율이 월등히 높으며, 조전제는 지역주민 15.1%, 관광객 15%, 단오굿은 지역주민 45.6%, 관광객 43.3%, 관노가면극은 지역주민 50%, 관광객 41.4%로 지역주민의 참여 및 관람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송신제의 경우 지역주민 18%, 관광객 22.1%로 관광객의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났음
- 지정문화재 관람 또는 참여 응답을 분석해 보면 전체 응답자 중 약 40%가 관노가면극과 단오굿을 관람한 것으로 이는 축제기간 동안 축제장 내에서의 프로그램으로 관람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으며 타 프로그램의 경우 본 축제의 사전행사로 진행되어 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유무와 개인적 상황에 따라 관람여부가 결정되므로 낮은 빈도를 나타낼 수 밖에 없음

<지정문화재 관람 또는 참가 유무>

항 목	빈도(%)		
	지역주민	관광객	전체방문객
신주빚기	-	-	-
대관령 산신제·국사성황제, 구산·학산서낭제, 봉안제	-	-	-
영신제·영신행차	91(34.7)	59(25.4)	150(30.4)
조전제	39(15.0)	35(15.1)	74(15.0)
단오굿	119(45.6)	101(43.3)	220(44.5)
관노가면극	132(50.0)	96(41.4)	228(46.0)
송신제	47(18.0)	51(22.1)	98(19.9)



사. 만족도

- 강릉단오제 전체방문객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접근성, 안내 기제의 충실성, 프로그램 다양성과 지역문화와의 관련성 등의 항목에서는 3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화장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과 관련하여서는 2점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행사장까지의 접근성(3.87점)과 공간의 적절성(3.85점), 팸플렛의 충실성(3.63점), 단오해설사를 포함한 안내요원 친절성(3.51점), 프로그램의 다양성(3.57점), 주야배분의 적절성(3.57점), 안내시설의 충실성(3.41점)과 시설배치의 적절성과 사전홍보(3.41점), 프로그램의 고유성(3.49점),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의 이해(3.45점)으로 비교적 만족도가 높았음
 - 기념품의 다양성(3.26점), 품질(3.09점), 가격(3.00점)과 음식의 가격(3.02점), 향토음식 제공(3.18점)은 비교적 보통의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주차시설과 그늘막, 벤치 등의 휴식공간, 화장실의 청결도는 2점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가 나타났음
- 지역주민의 경우 행사장까지의 접근성(4.06점), 공간의 적절성(3.98점)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안내팸플렛, 안내요원, 시설, 배치, 사전홍보, 프로그램의 다양성, 프로그램 주야배분의 적절성 등 프로그램을 포함한 축제전반의 만족도는 3.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냄
 - 반면, 축제 기념품의 다양성(3.22점), 품질(3.08점), 가격(2.98점)은 만족도가 다소 낮은 편이며 주차시설(2.86점), 휴게시설(2.97점)은 전체 방문객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타났음
- 관광객의 경우 지역주민과 유사한 만족도를 보이는 바 행사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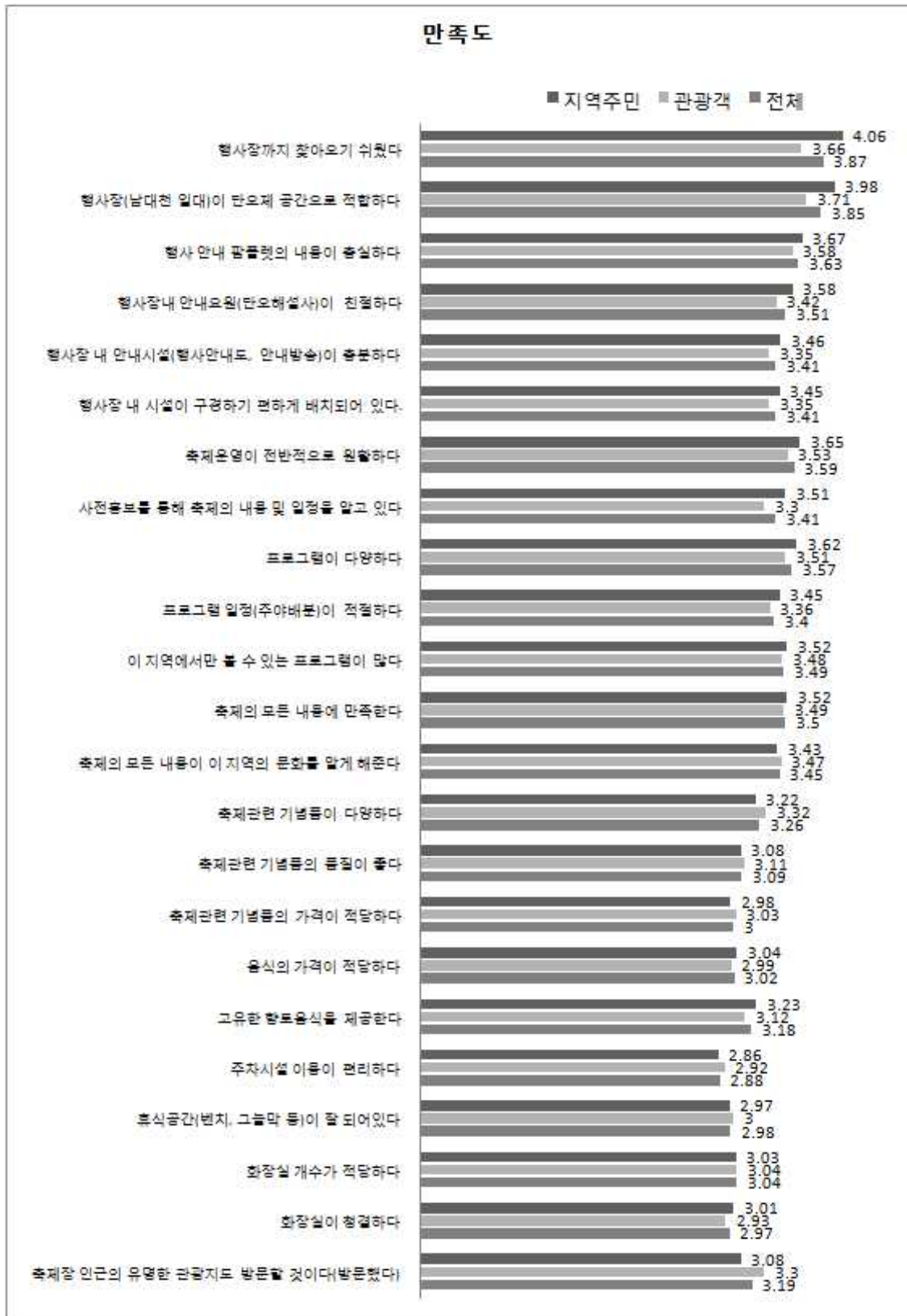
의 적절성(3.71점), 접근성(3.66점), 안내 팜플렛 (3.58점), 안내요원의 친절성(3.42점), 안내시설과 배치의 적절성(3.35점), 프로그램 다양성(3.51점) 등 축제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반면, 기념품의 가격(3.03점), 음식 가격(2.99점), 주차시설(2.92점), 휴식공간(3.00점), 화장실 개수(3.04점), 청결도(2.93점)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강릉단오제 만족도 분석내용을 종합해 보면 방문객은 모두 유사한 만족도를 보이며 접근성, 공간의 적절성, 안내도구 및 요원의 친절성, 프로그램 내용 등에서는 비교적 만족하고 있으나 기념품, 주차시설, 휴식공간,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에서는 다소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주차시설,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의 개선이 요구되며 기념품과 음식 가격의 조정, 향토음식의 개발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함

<만족도>

항 목	지역주민			관광객			전체방문객		
	N	M	SD	N	M	SD	N	M	SD
행사장까지 찾아오기 쉬웠다	265	4.06	.745	234	3.66	.782	499	3.87	.791
행사장(남대천 일대)이 단오제 공간으로 적합하다	265	3.98	.725	234	3.71	.766	499	3.85	.754
행사 안내 팸플렛의 내용이 충실하다	264	3.67	.795	233	3.58	.733	497	3.63	.765
행사장내 안내요원(단오해설사)이 친절하다	265	3.58	.799	234	3.42	.738	499	3.51	.773
행사장 내 안내시설(행사안내도, 안내방송)이 충분하다	265	3.46	.857	234	3.35	.810	499	3.41	.835
행사장 내 시설이 구경하기 편하게 배치되어 있다.	265	3.45	.852	234	3.35	.828	499	3.41	.840
축제운영이 전반적으로 원활하다	265	3.65	.728	234	3.53	.776	499	3.59	.752
사전홍보를 통해 축제의 내용 및 일정을 알고 있다	265	3.51	.913	234	3.30	.906	499	3.41	.913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265	3.62	.826	232	3.51	.738	497	3.57	.789
프로그램 일정(주야배분)이 적절하다	265	3.45	.811	234	3.36	.797	499	3.40	.810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265	3.52	.871	234	3.48	.875	499	3.49	.879
축제의 모든 내용에 만족한다	265	3.52	.774	234	3.49	.793	499	3.50	.791
축제의 모든 내용이 이 지역의 문화를 알게 해준다	264	3.43	.820	234	3.47	.840	498	3.45	.834
축제관련 기념품이 다양하다	263	3.22	.889	234	3.32	.836	497	3.26	.871
축제관련 기념품의 품질이 좋다	264	3.08	.917	233	3.11	.867	497	3.09	.898
축제관련 기념품의 가격이 적당하다	263	2.98	.927	234	3.03	.935	497	3.00	.934
음식의 가격이 적당하다	264	3.04	2.723	233	2.99	1.021	497	3.02	2.097
고유한 향토음식을 제공한다	264	3.23	.986	233	3.12	.941	497	3.18	.965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263	2.86	1.003	234	2.92	.975	497	2.88	.995
휴식공간(벤치, 그늘막 등)이 잘 되어있다	264	2.97	1.000	233	3.00	.933	497	2.98	.971
화장실 개수가 적당하다	262	3.03	.926	234	3.04	.953	496	3.04	.937
화장실이 청결하다	263	3.01	.941	234	2.93	.896	497	2.97	.919
축제장 인근의 유명한 관광지도 방문할 것이다(방문했다)	261	3.08	.993	232	3.30	1.004	494	3.19	1.002

* N(Number): 빈도(응답자 수)
M(Mean): 평균(5점 척도에 의한 응답자의 만족도 평균)
SD(Standard Deviation): 표준편차(평균과의 거리)



아. 개선사항

-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2014 강릉단오제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제안, 전반적인 축제 운영 등의 문제점과 아쉬웠던 점, 개선방안에 대해 프로그램, 홍보방법, 축제기념품, 편의시설, 야간 즐길거리, 주변관광지 연계, 기타 항목을 구분하여 개방형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중복되는 의견은 요약하여 정리하였으며 가능한 응답자의 표현을 수정하지 않고 제시하였음

1) 프로그램

- 내용은 유익하지만 구경하기 불편했다
- 시민 참여가 많은 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 전해에 비해 대체적으로 많이 변하여 즐거웠다
- 젊은층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 프로그램 전체 투어
-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도록 전반적인 프로그램 확충 필요
- 흥미는 있으나 다소 지루함
- 지역색 부족
- 어린이 무료 체험 프로그램 추가

2) 홍보방법

- 전통행사지만 지역주민만 옴으로 젊은층을 끌어들이 수 있는 홍보방법 개발

-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올해 홍보는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
- SNS, 인터넷 홍보 활성화
- TV 광고
- 홍보책자 상세히 교부
- 이벤트를 많이 열어 많은 사람이 알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 초,중, 고교에도 홍보 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조
- 포스터
- 수도권 거리 전광판
- 행사장 안내도를 보고 찾아가기 힘들었음

3) 축제기념품

- 단오제 휴대폰 걸이 용품
- 강릉을 대표하는 기념품이 없네요
- 생활용품 개발
- 경품권 추천행사, 그네 등 다채로운 축제기념품이 괜찮았다
- 매년 오다보니 똑 같아서 사지 않는 경향이 있음
- 너무 비싸다. 품질에 비해서
- 다양하지 못함
- 체험비는 너무 비싸고 단오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 부족
- 소장할 만한 기념품이 없다

- 지역특산품 판매
- 가면, 닥나무 공예품

4) 편의시설

- 주차장 안내표지 부족
- 화장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 동전, 지폐교환소가 있으면 편할 것 같다
- 쉼터 보충
- 휴식공간이 부족
- 표지판을 여러 곳에 설치해 주세요
- 질서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물 마실 곳이 부족해요
- 그늘막 등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에어컨 시설이 있는 곳 필요

5) 야간 즐길거리

- 너무 부족해요
- 어린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야간 공연 필요
- 야간 공연 연장
- 젊은 층을 위한 힙합 가수들 초청 공연 필요
- 너무 음주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 폭죽이 더 많이 터졌으면 좋겠다

- 단오 야간 테마 공원 조성
- 불꽃놀이가 생각보다 짧게 끝났음

6) 주변관광지 연계

- 주변의 숙박지, 음식점 안내도 필요
- 경포습지와 해수욕장 등 연계 되면 더욱 좋겠음
- 주변관광지 소개해 줄 안내소 필요
- 지역 유명 관광지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교통편 필요
- 해안부대시설 연계로 할인행사 있었으면 함
- 관광지와의 셔틀버스가 있었으면

7) 기타

- 청결문제
- 먹을 거리 가격을 좀 내렸으면
- 교통편이 너무 불편하고 주차시설이 제대로 구축되 있지 않음
- 현수막이 키 큰 사람에게서 불편하여 통행에 불편함
- 프로그램 관계자나 카메라맨 때문에 공연을 제대로 볼 수 없네요
- 경포대로 이어지는 관광이었으면
- 교통편이 안 좋았음. 야간 버스 운행

3. 2014 강릉단오제 전문가 진단 결과

가. 진단 개요

1) 진단 목적

- 2014 강릉단오제를 정확하게 진단, 평가하여 타 지역의 전통문화축제와의 차별화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축제로의 발판을 굳건히 하여야 함
- 이를 통해 국내외 방문객의 만족을 도모하고 재방문을 통한 축제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진단 개요

- 2014년 강릉단오제 팸투어에 참가한 외부 전문가와 내부 전문가의 평가와 진단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함
- 진단 항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축제전반, 난장의 장소특성, 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한 특정 항목에 제한하지 않고 전문가적 기준에 의해 자유롭게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함
- 전문가 구성 : 각 대학 전공 교수 및 연구소 연구원 6인
- 평가방법 : 팸투어에 참가한 관광 및 축제분야 전문가에 의해 진단 및 평가

나. 진단 결과

1) 전문가 1

○ 영신행차, 영신제

- 영신행차의 마지막 부분에서의 장소가 협소하고 행렬의 분열로 어수선했음
- 행렬의 종료 이후에도 불꽃놀이가 진행되기까지의 대기시간 동안은 일정 장소에서 흥을 지속적으로 돋우는 것이 중요함

○ 조전제

- 시간 조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남대천 내 타 행사 공간과의 분리가 필요함
- 제례를 주관하는 제관의 행위를 현대어로 해석하여 방문객 중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층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간분리

- 단오제와 난장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함
- 제례공간과 민속놀이 공간, 식음료 및 난장 공간이 가운데 길을 통해 분리되어 있기는 하나 방문객이 인지하기에 용이하지 않았음
- 식음료 공간의 청결성과 위생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함

2) 전문가 2

○ 영신행차

- 대규모의 자발적 시민참여의 형태로 긍정적이고 발전적 미래 보장
- 단오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다양함의 조화를 추구해야 함

- 영신행차에 참여하는 마을은 단오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함
 - 영신제 퍼레이드 시 병목현상에 의해 전체적 흐름의 유연성 부족
 - 택시부 광장 확대로 퍼레이드 관람 장소 확대
 - 의례의 엄숙성을 유지해야 함
- 전반적인 storytelling이 상품화되어야 함
- 국제적 인지도 제고의 기회 - IOC 위원을 초청하여 동계올림픽 홍보의 기회로 삼아야 함
- 공간적 확대
- 시내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해야 함
 - 중앙시장까지의 공간 확대로 다수의 지역주민 참여 유도, 관광객의 활동 영역 확대
- 시내 전체의 단오등 설치로 강릉시 전체가 축제기간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함

3) 전문가 3

- 축제분위기 조성
- 방문객 모두에게 장자마리 의상 착용하도록하여 단순 방문이 아닌 축제의 일원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해야함
 - 월드컵에 사용되었던 박수와 구호처럼 단순한 울동과 소리(음악)를 개발하여 강릉단오제 홍보의 일환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방문객 및 국민 모두에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음
- 영신행차 시 방문객의 참여기회가 없음
- 단순 관람자의 행렬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 조성할 필요가

4) 전문가 4

○ 영신행차 퍼레이드

- 경연 및 경쟁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행렬이 비교적 소극적임. 따라서 현대적 의미를 표현한 극적 연출이 필요함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가는 각 마을의 열정을 끌어내는 것이기는 하나 콘텐츠의 시장성, 완성도가 상당부분 부족함. 전문가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단오장의 굿

- 교육의 현장이어야 하나 지나치게 형식적임
- 참가이유가 분명해야 함

○ 축제장

- 불거리 부재로 타지역의 축제와 차별화 되기 어려움
- 관노가면극의 캐릭터인 장자마리 복장을 하고 시각화를 강조해야 함
- 장자마리 과자, 빵 등 캐릭터 상품화
- 지역 대학의 학생 참여 확대 필요

○ 수리취떡의 맛이나 모양 등의 원형복원

5) 전문가 5

○ 영신행차

- 지역주민의 자발적 준비와 참여로 진행된 점이 상당부분 인상적임
- 중장년층 참여는 높은 반면 젊은층과 어린이의 참여가 저조한 점이 아쉬움

- 다양한 시장의 참여 확대 필요
- 단오굿
 - 젊은층과 어린이의 이해가 가능하도록 다소간의 각색이 필요함
- 행사 시작에 있어서 지나친 형식은 배제하고 축제다운 면모를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즐거운 장 형성이 중요함

6) 전문가 6

- 강릉단오제는 지역의 정신적 중심으로 단오가 지나야 1년이 가는 것을 알게 됨
- 원형보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대화의 변화, 발전 필요
- 동계올림픽의 홍보 수단으로써 계절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화 필요
- 신주에 사용될 헌미와 같이 강릉단오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강릉시민의 후원금 필요

7) 전문가 7

- 영신행차
 - 지역대학생, 초중고 학생의 적극적 참여 필요
 - 마을의 특징을 반영한 곳도 있었지만 특별한 주제가 없는 마을도 있었음
- 단오의 상실화
 - 단오문화촌 조성, 미니단오제, 정기공연, 체험장, 전통시장 등의 장을 마련해야 함

- 명실공히 강릉을 단오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단기간의 축제로는 부족하며 장기화, 상설화를 통한 홍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 단오문화촌은 강릉단오제의 처음과 끝을 모두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제기간 외에도 단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이 단오와 연계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분위기를 조성하는 단초를 제공함

4. 2014 강릉단오제 운영진 평가 결과

가. 총평

-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가 겹치는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사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썼고 전체적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 올해 처음으로 신통대길 길놀이 1·2부 구분하여 진행했으나 새로운 진행방식에 따른 운영혼선으로 영신행차가 몇 분간 멈춰서는 일이 발생하는 등 개선사항들이 발생하였음. 또한 경선제 폐지와 세월호 사건등으로 참여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음.
- 청소년 가요제, 청소년 댄스페스티벌, 블링블링 강릉단오행사를 같은날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단오행사 참여 확대 및 강릉단오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임. 앞으로 단오 기간중 「청년 단옷날」을 운영 검토 필요함.
- 앞으로 4년후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강릉단오제 프로그램들이 동계올림픽 문화행사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 강릉단오 관련 단체들간의 동계올림픽 대비를 위한 사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참여방향 설정 및 「겨울 단오」 추진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나. 발전한 점

- 시민중심의 축제, 신뢰있는 축제로 성장
- 한국 전통미가 강조된 전통축제장으로 조성
- 안전한 축제장 조성에 주력
- 깨끗하고 쾌적한 강릉단오장 조성

다. 미비점 및 대책

- 행사 프로그램 다양성의 미흡
 - 지난해보다 프로그램수(70개→77개)는 늘었지만, 다양함은 부족
 - 매년 반복적인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 부족
 - ⇒ 매년 1~2개 신규 프로그램 발굴추진 정례화
- 신통대길 길놀이 혼선
 - 1·2부 구분 진행에 따른 혼선으로 영신행차 진행중단 발생
 - 세월호 참사 및 경선제 폐지에 따른 흥이 경감된 길놀이 진행
 - ⇒ 길놀이 진행방식 재검토 및 다양한 참가 프로그램 개발 추진
- 난장 주변 노점상 증가
 - 상가 분양지역외 주변 불법 노점상 극성
 - ⇒ 노점상 금지를 위한 펜스 및 단속인력 고정배치 등 보완책 강구
- 야간소음에 따른 민원 증대

- 소규모 품바 공연팀들의 주택가 야간 공연에 따른 민원 증대
⇒ 자율방범대등 지역 사회단체 협조체계 구성으로 야간단속 실시
- 행사장 경비구역 근무부실
 - 각 출입문 근무자세 불량
 - 행사장 주간차량 통제미흡, 행사장 주변 노점상 관리미흡
⇒ 경비구역에 대한 매뉴얼제작 및 행동요령 교육실시

5. 2014 강릉단오제 종합평가 분석 결과

가. 프로그램

-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강릉단오제의 특성을 고려한 국내외의 전통 문화 공연, 민속놀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방문객, 특히 젊은 층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
- 단오체험촌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재미와 교육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함
- 단오제의 개최지역이 강릉을 배경으로 함에 따라 강릉시민이 참여한 공연, 체험부스 운영, 봉사활동, 행사참여(신주미 봉정, 단오 등) 등은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자긍심, 소속감을 제고시킴으로 인해 지역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이바지 하고 있음
- 타 지역에서 유입된 방문객의 경우 전통과 민속에 대한 인식의 저변에 강릉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함에 따라 강릉

단오제에 대한 교육적, 긍정적 태도가 가능하게 됨

- 반면, 강릉단오제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타 지역의 민속축제에서 행해지는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흥미롭기는 하나 강릉만의 고유성, 신기성 등이 부족하며 다소 지루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지역주민의 경우, 매년 유사한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인해 축제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으며, 방문객의 경우도 단오제의 컨셉에 적합하고 지역특색(향토성)을 지닌 고유한 프로그램의 부재를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젊은 층과 어린이의 체험이 용이한 프로그램(특히, 무료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으며 시각을 자극하고 동적인(찾아가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부족하였음

나. 홍보전략

- 강릉단오제 개최시기, 장소, 내용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는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 구전(口傳)을 통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매년 강릉단오제를 경험한 지역주민이나 기 경험자인 방문객의 긍정적 구전이 새로운 방문객 또는 재방문객을 유도함
- 그 밖에 지역주민은 현수막, 안내장, 팸플렛, TV·라디오의 순이었고, 관광객은 홈페이지, TV·라디오의 순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홍보방법에 대한 개선사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이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는 SNS, 인터넷 상의 카페, 블로그, 배너광고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수도권의 거리 전광판 광고 등 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대해 언급됨

- 강릉단오제 행사장 내에서의 홍보 팜플렛, 진행요원, 단오문화해설사 등의 친절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프로그램 지연 및 취소 등에 따른 공지가 누락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여 불편함을 호소하였음.

다. 공간 및 시설

- 강릉단오제의 대규모 공간에 대해 신기함을 느끼며 프로그램 진행 구획과 난장이 구분되어 편리하였으나 이동통로가 협소하여 방문객이 많았던 시간대에는 프로그램 부스의 체험자와 이동자간 혼잡이 초래되었음
- 주차장 시설에 대한 안내가 원활하지 않아 행사장 북서쪽에 위치한 주차장 이용이 저조하였으며 방문객의 대부분은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화장실, 식수대, 휴식공간 등의 편의시설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상당부분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화장실의 경우 냄새가 외부로 확산되어 인근 식수대를 사용하기에 불편하였으며 음용수의 청량감, 휴식공간 내의 벤치 부족, 에어컨 시설 필요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특히 휴식공간에 대한 안내표지가 없어 찾아가기 불편하였다는 내용도 있었음

라. 조직 및 운영 전반

- 강릉단오제 방문객은 축제운영이 전반적으로 원활하였다는 평가를 하였으며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주야배분도 적절하다고 하였음. 따라서 축제의 모든 내용이 비교적 만족스러우며 지역문화에 대해서도 알게 된 기회였다고 하였음

○ 다만, 강릉단오제를 특징지을 수 있는 기념품의 다양성, 품질, 가격 등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향토음식의 고유성, 가격 등이 적당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하였음.

○ 대중교통의 시간 연장, 접근성 제고 등에 대한 의견 제시됨

○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사전 참여 등에 대한 의견 제시됨



V. 2014 강릉단오제 파급효과

- 강릉단오제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서 그 자체가 갖는 복합적인 성격에서 볼 때, 그 효과가 파급되는 범위는 상당히 넓으며,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의 다방면에서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 경제파급효과로는 내수창출효과와 소득, 고용창출, 세수증가효과가 있음
- 내수창출효과는 축제 개최를 위해 건설비, 운영비, 관련공공사업비의 지출, 입장자의 소비 및 관련민간설비투자 등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이며, 소득, 고용창출, 세수증가효과는 관련소비, 투자지출에 의해 유발된 생산활동으로 고용과 그에 따른 소득을 창출하며 요리 음식세 등에서 일부의 세수를 증가시킴
- 지역진흥의 촉진 효과들(지역산업의 진흥, 지역문화의 발전, 지역 의식(애향심)고취, 시가지 정비 등)이 있음
- 지역 간, 국제간 교류의 촉진과 지역문화활동의 충실화 등의 효과가 있음

1. 경제적 파급효과

- 본 조사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강릉단오제 개최에 따른 재정지출에 의한 파급효과와 방문자(관광객에 한함)의 소비지출에 의한 파급효과로 나누어 추정함

가. 축제 개최(운영관리)의 지출에 의한 파급효과

1) 강릉단오제 운영관리수입과 지출

- 2013 강릉단오제 개최에 따른 수입은 총 1,332,783,596원이며 지출은 총 931,193,780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지출 총액을 파급효과 산정의 지표로 사용함

<강릉단오제 수입/지출표>

(단위 : 원)

수 입		지 출	
총 계	1,332,783,596	총 계 (총예산집행액)	1,332,783,596 (931,193,780)
보 조 금	769,748,529	지정문화재행사	37,058,810
상 가 분 양	382,871,000	전통연희한마당행사	60,150,000
기 부 금	151,950,000	무대공연 예술축제	42,282,000
단오등 판매 수입	22,195,000	시민참여 축제	18,000,000
이자수입(자부담,기부금)	39,067	국외초청	37,126,300
외국인 단오체험참가비	3,580,000	홍 보 비	111,604,220
여행상품참가비	2,400,000	체험촌 운영 지원	47,000,000
		다문화체험관 운영지원	9,000,000
		주제관 관리 및 운영	8,718,800
		시 설 비	74,869,630
		행사운영 보조요원	61,041,900
		민속놀이 행사	34,000,000
		경 축 행 사	34,800,000
		콘텐츠 개발비	10,000,000
		지 원 금	32,101,600
		외국인 단오체험 프로그램	3,580,000
		해설사 양성교육	3,000,000
		강릉단오제 여행상품	2,400,000
		경품구입	23,950,000
		예비비	2,636,000
		신통대길 길놀이	197,964,500
		미집행액	79,919,020
		반납예정액	5,596,029
		잔액	395,993,787

※ 총예산집행액(931,193,780원) : 지출총계(1,332,783,596원) - <반납예정액(5,596,029원)+ 잔액(395,993,787원)>

2) 축제운영관리비(사업비)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 축제운영관리에 따른 지출로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 계상의 승수는(생산유발승수 : 1.9956, 소득유발승수 : 0.4248, 부가가치유발승수 : 0.8372, 세수유발승수 : 0.0672, 취업유발승수 : 0.0462)로 2013년 한국관광공사의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자료 등을 평균한 값을 토대로 소수점 네 자리 이하 반올림함

<축제운영관리 지출의 경제 파급 효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정액	승 수	비 고
생산유발효과	1,858	1.9956	
소득유발효과	395	0.4248	
부가가치유발효과	779	0.8372	
세수유발효과	62	0.0672	
총합 효과	3,094	-	
취업유발효과	19명	0.0462	

- 2014년 강릉단오제 개최의 운영관리(사업)비 지출(예산집행)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858백만 원으로 추정됨
- 2014년 강릉단오제 개최의 운영관리(사업)비 지출(예산집행)에 따른 소득유발효과는 395백만 원으로 추정됨
- 2014년 강릉단오제 개최의 운영관리(사업)비 지출(예산집행)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79백만 원으로 추정됨
- 2014년 강릉단오제 개최의 운영관리(사업)비 지출(예산집행)에 따른 순간접세유발효과는 62백만 원으로 추정됨
- 2014년 강릉단오제 운영관리비 지출에 따른 총 경제적 파급효과

는 3,094백만 원으로 추정됨

- 2014년 강릉단오제 개최의 운영관리비 지출에 따라 19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나. 방문객의 소비활동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1) 강릉단오제 방문객 소비지출

- 2014년 강릉단오제 방문객 수는 총 110만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이 중에 지역주민은 50만 명, 관광객(강릉 이외의 지역으로부터의 방문자)은 60만 명이었음
- 방문객 조사를 위하여 52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분석에는 500개의 유효표본을 이용하였고 이 중에서 소비지출에 대한 응답을 한 항목별 평균값을 추정에 활용하였음

<방문객 1인당 평균 지출액>

(단위 : 원, %)

항 목	지역주민(N=265)		관광객(N=235)		전체(N= 500)	
	소비액	구성비	소비액	구성비	소비액	구성비
교통비	1,580	12.4	15,278	25.6	8,068	23.0
숙박비	0	0.0	14,306	23.9	6,985	20.0
식음료비	6,199	48.7	15,183	25.4	10,475	30.0
유흥비	1,237	9.7	6,638	11.1	3,776	10.8
쇼핑비	2,618	20.6	6,809	11.4	4,588	13.1
기타	652	5.1	1,523	2.6	1,072	3.1
합계	12,286	100.0	59,737	100.0	34,965	100.0

- 지역주민이 강릉단오제에 참석하여 지출한 1인당 평균 소비액은

12,286원으로 나타났으며 관광객은 59,737원이었음

- 소비지출 구성에서 보면, 지역주민의 경우는 식음료비가 전체 소비액의 절반에 가까운 6,199원이었으며 쇼핑비가 전체 소비액의 20.6%, 교통비가 전체소비액의 12.4%, 유흥비가 전체소비액의 9.7%가 되고 있음(설문지에 나타난 지역주민의 숙박비 지출은 제외시켰음)
- 이에 비하여 관광객의 경우는 교통비(25.6%), 식음료비(25.4%), 숙박비(24.9%)가 대부분(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방문객 총 지출액>

(단위 : 백만 원)

항 목	지역주민(N=265)	관광객(N=235)	전체(N=500)
교통비	790	9,167	9,957
숙박비	0	8,584	8,584
식음료비	3,100	9,110	12,210
유흥비	619	3,983	4,602
쇼핑비	1309	4,085	5,394
기타	326	914	1,240
합계	6,144	35843	41,987

- 강릉단오제 방문객의 총지출은 41,987백만 원이며 지역주민의 소비지출은 6,144백만 원, 관광객의 소비지출은 35,843백만 원이었음

2) 강릉단오제 방문객 소비지출의 경제파급효과

- 본 조사 분석에서는 지역주민의 단오제와 관련한 소비는 지역 내 소비와 추후 지역에서 소비할 가계지출 부분에서 소비한 것으로 상정하여 단오제 경제파급효과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함에 따라 관광객의 소비지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만 추정하기로 함
- 관광객 소비지출에 따른 경제파급효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추정하는데, 첫째는 축제 참가자 소비지출의 총액을 가지고 승수효과를 추정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축제참가자 소비지출 항목 중에 교통비와 숙박비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축제의 성격과 개최지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는 경우임
- 본 조사 분석에서는 축제참가자 소비지출 총액에 의한 경제파급효과(제1안)와 교통비와 숙박비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파급효과(제2안)를 나누어 추정하며 제2안을 2014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파급효과 추정 결과로 제시하고자 함

<관광객 소비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제1안)>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정액	승 수	비 고
생산유발효과	61,119	1.7052	
소득유발효과	10,756	0.3001	
부가가치유발효과	29,495	0.8229	
세수유발효과	3,470	0.0968	
총합 효과	10,4840	2.925	국제회의 승수는 3.4-4.3임
취업유발효과	649(명)	0.0181	

※ 승수는 2011년 한국관광연구원 한국관광산업의 경제효과분석, 2013년 한국관광공사 통합마케팅 전략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 2014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관광객의 소비지출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는 61,119백만 원임
- 2014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관광객의 소비지출에 따른 소득 유발효과는 10,756백만 원임
- 2014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관광객의 소비지출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470백만 원임
- 2014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관광객의 소비지출에 따른 세수 유발효과는 3,470백만 원임
- 따라서 2014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관광객의 소비지출에 따른 경제파급효과는 총10,480백만 원이며 승수계수는 2.925로 보편화된 국제회의의 승수계수 최소 3.4에서 최대 4.3 보다 낮은 편임
- 이러한 결과에 의한 취업유발효과는 649명이며 대부분 단오제 기간에 한정될 수 있으나 행사의 기획, 공연, 일부의 기념품과 식음료 부문에는 지속화하는 경우도 있음

<관광객 소비지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제2안)>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정액	승 수	비 고
생산유발효과	44,110	1.7052	
소득유발효과	7,763	0.3001	
부가가치유발효과	21,287	0.8229	
세수유발효과	2,504	0.0968	
총합 효과	75,664	3.419	국제회의 승수는 3.4-4.3임
취업유발효과	468(명)	0.0181	

- 2014년 강릉단오제에 참가자가 지출한 소비액이 강릉지역 경제에 파급효과는 교통비 총액의 3분의 1(3,025백만 원), 숙박비 총액의 3분의 2(5,665백만 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소비지출총액은 25,868백만 원으로 추정됨
- 2014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관광객의 소비지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44,110백만 원임
- 2014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관광객의 소비지출에 따른 소득유발효과는 7,763백만 원임
- 2014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관광객의 소비지출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1,287백만 원임
- 2014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관광객의 소비지출에 따른 세수유발효과는 2,504백만 원임
- 따라서 2014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관광객의 소비지출에 따른 실질경제파급효과는 총75,664백만 원이며 승수계수는 3.419로 일반적인 관광승수계수 정도임
- 이러한 결과에 의한 취업유발효과는 486명임

3) 강릉단오제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강릉단오제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운영관리 지출에 의한 파급효과와 방문객 소비지출에 따른 파급효과로 나누어 살펴 보았음
- 따라서 강릉단오제 개최에 따른 종합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기의 두 부문을 통합하여 추정하게 됨

<2014 강릉단오제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운영비지출	관광소비지출	총경제파급효과	비고
생산유발효과	1,858	44,110	45,968	
소득유발효과	395	7,763	8,158	
부가가치유발효과	779	21,287	22,066	
세수유발효과	62	2,504	2,566	
총합 효과	3,094	75,664	78,758	승수 : 2.1416*
취업유발효과	19(명)	468(명)	487(명)	

※ *의 승수는 총합경제파급효과는 78,758백만 원/운영관리지출합계+ 제2안 관광소비지출합계 (36,774백만 원)임

- 2014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총생산유발효과는 45,968백만 원임
- 2014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관광객의 소비지출에 따른 소득유발효과는 8,158백만 원임
- 2014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관광객의 소비지출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2,066백만 원임
- 2014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관광객의 소비지출에 따른 세수유발효과는 2,566백만 원임
- 따라서 2014년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경제파급효과는 총 78,758백만 원(승수계수: 2.1416)이며 취업유발효과는 487명임

2. 사회문화적 영향

- 강릉단오제의 천년여의 역사는 현대에 이르러 세계적인 위상을 제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과 무형문화재 제13호의 원형보전 및 시연과 보급을 통해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음
- 신통대길 길놀이와 각종 경연대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강릉 지역 내의 각 읍면동별 전통과 문화 특성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과 활용의 장을 구축하였음
- 강릉단오제의 특성 상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축제를 이끌어 가는 바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에 대한 연대감, 소속감,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사회적 자본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
- 전통문화와 관광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더불어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는 지역자원으로의 기반을 마련하여 기념품, 단오상품 등의 향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한 축제의 개최는 지역출신의 미래 세대의 소속감, 전통문화에 대한 자각의 기회 제공하여 향후 지역문화의 가치 창조, 증대에 대한 인식을 생활화하게 됨
-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에 지정된 바 지역문화 자원의 가치 창조 및 증대뿐만 아니라 적극적 홍보를 통해 긍정적 국가이미지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신·구 세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세대간, 지역과 외부지역 간

(지역주민과 관광객) 교류를 통한 소통과 협력, 통합의 장 마련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한 강릉단오제의 역할 과제를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함

3. 환경적 영향

- 강릉단오제의 개최지인 남대천 둔치를 중심으로 한 쾌적한 환경 보전에 대한 필요성 인식으로 단오문화관 주변의 공원조성 및 남대천 생태환경 복원 등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게 함
- 2014년 강릉단오제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환경의식 발현으로 클린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함
- 남대천과 고수부지의 청정한 생태자원과 어우러진 강릉단오제의 문화자원의 가치 증대로 보다 풍요롭고 바람직한 축제로 진행됨

VI. 강릉단오제 과제 및 활성화 방안

1. 들어가는 말

- 강릉단오제가 보다 더 발전하고 국제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축제 활성화 방안의 필요함
- 문화관광축제 평가 항목과 과거 강릉단오제 평가서들을 참고하여 측정 척도를 개발하고 방문객 설문조사를 실시함
- 현장 모니터링 및 참여관찰을 통하여 문제점과 과제를 파악함
- 전문가 평가를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

2. 기본방향

- 지역주민에게 사랑받고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축제
-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축제
- 지역에 기여하는 축제
- 중장기적인 발전 지향 축제

3. 2014 강릉단오제 SWOT분석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성(개최회수가 많음) • 국가무형문화재 • UNESCO무형문화유산 등재 • 민간주도형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장소(고수부지) • 개최행사의 비집중화 • 개최장소 산만성 • 지역상권과의 비연계성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이 2018 동계 올림픽 개최 도시임 • 2015년 UNESCO 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 • 강릉시 및 강원도의 정책적 지원 • 지역문화의 시대, 문화개발의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대회인 동계 올림픽 개최와 국제적 인정을 받은 문화유산의 보유를 통해 강릉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 확보 • 행정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주도형의 축제 개최 강화 • 지역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장소의 산만성 해결을 위한 전통문화 분위기 확대, 조성 • 공공의 정책적 지원을 통한 지역상권과의 연계 방안 마련 • 단오관련 전통문화에 집중한 행사내용 구성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독교 단체의 미신화 매도 • 지역상권(시장)의 약한 지지 • 주민의 단오 불황 인식 • 각 지역의 축제 활성화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적 관점에서 벗어난 전통문화의 의미 부각 •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국제적 축제의 강점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 지역상권의 참여 유도를 통한 단오 불황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상권으로의 축제 장소 및 내용 확대 • 지역주민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경제적 기대효과 확보 방안 마련

4. 2014 강릉단오제 문제점 및 과제

항 목	문 제 점	과 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로 단오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음 ▪ 한 장소, 한 시점에 집중화할 수 없음 ▪ 타 지역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부족으로 매력성 부족 ▪ 강릉단오제의 의미와 특징을 집대성한 축제 프로그램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도입 ▪ 핵심적인 행사와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한 번 방문으로 관람 및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젊은 층과 전통에 대한 교육과 전승이 필요한 초·중·고생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홍보 및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여행사의 상품화, 패키지화를 못하고 있음 ▪ 강릉단오제 홍보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거리 홍보, 전단지, 홍보단 모집 등의 수단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보다 새로운 홍보방법 모색이 부족함 ▪ 강릉단오제 개최 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바, 장기적, 전략적 홍보가 부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사의 패키징 및 머천다 이징이 요망됨 ▪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중 단오제 홈페이지 및 관련 홈페이지의 배너광고를 이용하거나, 블로그, 카페, SNS 등 홍보수단을 다양화해야 함 ▪ 강릉단오제 참가자 명단(성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등)을 확보하여 집중적인 1:1 홍보, 지역주민에 대한 우선 홍보를 통해 거점식 홍보방법을 강구해야 함 ▪ 강릉단오제 홍보 전에 포스터 배포, 인터넷을 통한 이벤트, 사전 대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함
공간 및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차적인 관람 및 체험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및 체험 공간과 식음

<p>설</p>	<p>미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과 식음 및 쇼핑 공간, 동선의 혼재 ▪ 단오제를 상징하거나 기념하는 영구 건물의 부재 ▪ 각 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전단지가 확보되어 있으나 장소를 찾아가기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음 ▪ 화장실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다소간의 편의시설이 확충되어 있기는 하나 식수대, 그늘막, 휴식공간 등의 부족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고 있음 	<p>및 휴식 공간 분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 시 타 행사와의 중첩으로 산만성 해소 ▪ 행사장 내의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편의를 도모해야 함 ▪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와 식음장소 등의 행사장소 별 안내판 설치 및 세밀한 안내지도 설치를 통해 방문객의 혼돈을 방지해야함 ▪ 단오제 방문객의 대부분이 노년층임을 감안하여 벤치 및 쉼터, 그늘막, 식수대 등의 확충이 필요함
<p>조직 및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본부의 통제 및 콘트롤 부재 ▪ 기획 및 운영에 젊은 층(중고생, 대학생 등)의 미참여 ▪ 현재 강릉단오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되기는 하나 다양한 연령대의 운영참가가 다소 미흡함 ▪ 지역주민의 참여는 대부분 프로그램 참가로 행사장 관리, 안내 등의 봉사활동이 단체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바, 개별적인 운영참가는 요원한 실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행사 및 시설의 중앙통제 시스템 확충 ▪ 기획 및 운영에 젊은 층 참여 체계 확립 ▪ 강릉단오제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주민을 청소년과 노년층으로 확대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강릉단오제 행사기간을 전후하여 다양한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 ▪ 초·중·고·대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강릉단오제에 대한 자긍심을 확보하고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5. 강릉단오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가. 프로그램 활성화 제언

1) 전통 단오제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 단오제의 풍습과 놀이를 집대성한 프로그램

- 강릉단오제는 우리나라 단오를 대표하는 대규모 축제로 세계적 인정을 받은 만큼 방문객 누구나에게 단오의 의미와 행사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따라서 단오풍습의 원형이 보존된 단오제단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축제 전에 행해지는 범일국사 탄생설화, 호랑이와 경방댁, 제례행사, 영신행차, 신주빚기, 신목 모시기, 대관령 산신제 등을 뮤지컬, 연극, 거리공연 등으로 제작하여 행사기간 동안 매일 재현하도록 함
- 예를 들어, 단오제 기간 동안 매일 오전 첫 프로그램을 신주미 빚기 행사를 재현한 연극으로 시작하거나 대관령 산신 설화를 마당극으로 연출하여 단오문화관, 수리마당, 아리마당 등에서 시연하도록 함
-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노가면극 인형극, 어린이설화극 등과 같은 형태의 다양한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경연대회 등을 매년 개최하여 지속적인 콘텐츠를 활성화함

○ 테마별 프로그램 운영

- 연령, 국가, 지역, 테마 등의 특성을 구분하여 각각의 날을 정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함
- 청소년, 중장년, 노년을 구분하고 각 연령별 참가자 또는 연령대가 흥미를 가질 만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날을 특별히 정하여 동연령대 및 다른 연령대와의 공감을 유도함

- 동남아 국가별 단오풍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공연, 민속놀이, 단오음식, 의복 등을 준비하여 정해진 날에 해당 국가별 참가하여 프로그램 진행
- 우리나라의 각 지역별 단오풍습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체험, 교육의 기회 제공
- 매일 신주 시음, 창포 머리감기, 수리취떡 시식 등 테마별 날을 설정하여 집중함

○ 대표적 캠페인 선정을 통해 메시지가 있는 단오 프로그램 운영

- 강릉단오제마다 전통문화, 동계올림픽, 청정한 환경, 도시, 청소년 및 어린이, 관광지 등의 이미지를 구체화한 메시지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에 쟁점으로 제시하도록 함
- 예를 들어, 강릉단오제는 강릉의 젓줄이라고 할 수 있는 남대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축제로써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청정환경은 농업과 불과분의 관계임을 암시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강릉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강릉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강릉남대천 창포심기’, ‘물놀이가 재미있는 남대천’ 등의 작은 행사를 함께하도록 함

○ 강릉단오제 캐릭터 그림 및 조각대회 개최

- 강릉단오제에 등장하는 관노가면극 캐릭터, 제관, 무속인 등의 모습이나 강릉단오제 행사 현장에 대한 초·중·고등대학생, 일반인 그림대회 및 조각대회를 개최하여 단오 기간동안 행사장 주변에 전시하고 수상작은 연중 단오문화관 내부에 전시하도록 함
- 또한, 조각대회를 개최하여 작품을 단오문화관 및 남대천변에 전시하여 연중 강릉단오를 홍보하고 참가자의 재방문을 유도하도록 함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연대회, 전시회, 동아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

- 강릉지역 내의 초·중·고·대학생들이 무제한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단오의 전통성을 이해하고 교육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축제기간을 전후로 단오를 주제로 한 그래피티, 트릭화, 코스프레 경연대회 개최하고 기간 중에는 수상팀이나 수상자의 작품 제작과정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진행
-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각종 대회와 전시회는 단오장 내의 일정공간을 할애하고 동선을 남대천변을 벗어나 칠사당, 임영관터, 중앙시장 등으로 확대하여 시내 전체를 축제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http://blog.naver.com/PostView>

<http://cafe.daum.net/subdued20club>

http://www.imaail.com/sub_news

2) 단위 프로그램 외에 축제장을 활용한 단오축제 분위기 조성

○ 단오 캐릭터 형상화, 율동, 음악 개발

- 현재 개발되어 있는 관노가면극의 등장인물, 제관, 무속인 캐릭터를 인형탈로 만들어 입고 단오축제 중 단오장 전역을 다니며 궁궁이, 해초, 단오신주, 수리취떡 등을 나누어 주며 방문객에게 뜻밖의 즐거움을 주어 축제 분위기를 북돋우도록 함
- 이 때 간단하고 일정한 율동과 음악(가락)을 함께 개발하여 일정 시간이 되면 음악방송과 함께 인형탈을 쓴 캐릭터들이 동시에 일정한 율동을 하며 단오장 곳곳에서 요란하게 나타나 방문객에게 강릉단오제를 각인시킴



○ 단오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한 참가자 선발

- 강릉시내의 학생들에게 강릉단오제 행사기간 전에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사기간 중 시내와 행사장소에 돌아다니도록 하여 다양한 재미를 부가하고
- 단오 캐릭터를 활용한 페이스 페인팅, 관노탈 착용자, 캐릭터로 치장한 참가자 사진을 촬영하여 전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방문객이 직접 선발하도록 하고 상품 제공

3) 체험프로그램 확대

○ 수리취떡 만들기 코너 확대 운영

- 떡메치기, 취떡 모양 만들기, 콩고물 묻히기 등 전통음식과 관련한 놀이를 추가하여 체험의 기회를 다양화해야 함
- 단오제의 대표적 음식으로써 수리취떡의 의미를 설명하여 먹거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야 함

○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 확대

- 어린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고 재방문을 유도해야 함

○ 신목을 활용한 송신제 소지 올리기

- 신목을 형상화하여 단오제단에 소지를 올리지 않은 방문객에게 소지를 작성하여 직접 나무에 매달게 하고 송신제때 함께 태우는 행사를 실시함
- 신목에 소지를 작성하는 참가자에게 송신제 시간을 알리는 스티커나 캐릭터 상품을 교환해 주고 송신제 참가를 독려함. 이때 참가자 명부를 작성하여 다음 해 강릉단오제 홍보에 활용하도록 함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

나. 홍보 전략의 구체화, 다양화

1) 온라인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 SNS와 배너광고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개최일 알림
 - 젊은 층의 방문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의 SNS와 각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의 배너광고에 개최일까지의 일정을 카운트하여 호기심을 자극하도록 함
- QR코드의 활용으로 참여와 재방문 유도
 - 강릉관광안내도, 강릉단오제 전단지, 외부로 판매되는 토산품, 길거리 안내판 등에 QR코드를 설치하여 강릉단오제에 대한 정보취득이 용이하도록 하며
 - QR코드마다 숨은그림찾기, 퀴즈 등을 설치하여 정답자에게 지역상품을 제공하여 적극적 방문을 유도함

2) 연중 홍보활동

- 정기적인 이벤트, 팸트 등의 개최
 - 강릉단오제를 주제로 한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캐릭터 상품을 증정하고, 관련 설화를 바탕으로 한 팸트, 인형극 등을 상설공연화 함
- 시내 전역 상가에 홍보 전단지 배포
 - 강릉시내 전역의 상가에 강릉단오제 홍보 전단지를 연중 배포하여 방문객들이 수시로 강릉단오제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함
 - 풍선, 부채 등을 활용한 홍보물을 상시적으로 무료 배포하도록 함
- 강릉단오제 캐릭터 복장을 한 인형이 주요 도시 및 강릉시내를

활보하도록 함

- 강릉시내 초·중·고·대학생 및 자발적 참여자를 활용하여 캐릭터 복장을 하고 주요 강릉시내를 오가도록 하여 적극적 홍보활동이 이루어져 호기심을 자극하도록 함
- 강릉단오제 기간 중 확보한 방문객 명부를 통해 연중 DM 발송,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적극적인 1:1 홍보활동을 통해 고정 고객 확보

다. 단오장 운영

1) 강릉 향토음식 코너 증대

-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향토음식 코너를 증대시켜 보다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강릉단오제를 타이틀로 한 향토음식 개발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함

2) 방문객 집중시간대 메인 프로그램 편성

- 방문객 집중시간대인 11:00~14:30, 18:00~21:00에 메인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보다 많은 방문객의 경험을 증대시키도록 함
- 특히, 평일 저녁시간대의 경우 인근 주민의 방문이 급격히 증대되는 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주로 배치하여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함

3) 자원봉사자 대상 확대

- 강릉시민 단체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적절한 장소 및 프로그램에 배

치하도록 함

- 삼척이사부 축제의 경우 초·중등 자원봉사자 신청을 통해 활용 중임. 이는 지역축제 참여를 통해 지역에 대한 정체성 및 자긍심을 배양하여 지역애착심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강릉단오제의 주최자가 될 수 있음



4) 관노가면극 상설공연장 설치

- 관노가면극은 강릉단오제를 대표하는 지정문화재로 상당히 유명한 무언극으로 관노가면극을 보기위해 단오제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음
-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 관람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노가면극 상설공연장을 별도 설치하여 강릉단오제 기간동안 전일 공연하도록 해야함

5) 강릉시내에 단오기간 동안 단오제 마을 선정

- 강릉단오제 행사장에 장소를 확보하여 강릉시내의 각 마을별로 주특기를 선보일 수 있는 날을 지정하도록 함
- 예를 들어 오늘은 ‘지변동’ 단오날 : 단오와 관련한 지변동의 특별한 전통행사와 음식 등을 준비하여 방문객에게 선보이도록 함

6) 단오행사 관련 참여 코스 만들기

- 시간대별 각 ‘마당’ 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관람 및 참여할 수 있도록 패키지화하여 방문객을 안내함으로써 알찬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함

- 이 때 출발시간과 각 코스별 행사내용을 안내하는 전단지별도 제작, 배포하고 단오문화해설사 또는 교육받은 안내자로 하여금 방문객을 이끌 수 있도록 함

7) 체험존

- 체험존은 울타리(폐쇄공간)로 구획을 정하고 입장료를 프로그램 개수에 따라 차별화하여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도록 함
- 이때 입장료와 교환된 입장티켓은 강릉단오제 캐릭터를 형상화하여 방문객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함

라. 단오촌 조성

1) 단오환경 조성

- 단오제 행사 중 하나인 창포물에 머리감기 등에 사용되는 창포단지 조성하여 강릉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단오지역임을 인지시키도록 함

2) 단오촌(단오문화관) 주변 전통시장(저자거리) 조성

- 강릉단오제 행사에 참여할 향토음식, 토산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장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강릉단오제 이외의 기간에도 방문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강릉단오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며 흥미를 북돋우어 지속적 방문을 보장받도록 함

3) 정기 공연 개최

- 관노가면극, 농악대회, 강릉사투리 경연대회 등에서 성별, 연령별,

직업별 대상을 달리하여 각종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작품에 한하여 1년 동안 주말을 이용하여 단오문화관 실내외에서 정기공연을 개최하도록 함

- 정기공연과 아울러 장터를 운영하는 것도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4) 신목루트 개발

- 대관령 산신각에서 홍제동 여성황당에 이르는 신목루트를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강릉관광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강릉단오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확보하도록 함

5) 단오음식 세트 개발

- 신주, 모밥, 강릉지역 향토 음식 등을 패키지화하여 강릉의 대표적 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
- 예를 들어, 단오주+감자전(세트 1), 단오주+감자전+두부(세트 2), 단오주+드립전(세트 3) 등의 단오음식 패키지 개발로 연중 단오촌이나 단오문화관 주변에서 시식할 수 있도록 함

6) 공식지원사 지정

- 강릉단오제 공식지원사, 공식언론사 선정으로 물품 판매, 홍보의 기회 제공

7) 강릉단오제 패키지 상품 개발

- 단오촌, 신목루트, 단오음식 등의 패키지 여행상품 개발로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

6. 중장기 발전 전략(강릉단오제 발전 3단계 전략)

가. 기본 충실화 단계(2014-2015)

- 유네스코 문형문화유산 등재10주년을 맞으면서 단오제의 기본을 재점검하고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봄
- 강릉지역의 백업을 통한 성장 동력의 재충전
- 강릉단오제 기획 - 운영 관리 - 평가 체계의 확립을 통해 다양함과 지속가능함을 확보하도록 함

나. 재도약 단계(2016 - 2018)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강릉지역의 문화를 비롯한 한국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아이템 개발
- 이를 토대로 고유하고 향토성이 가미된 다양한 단오제 프로그램과 상품의 개발
- 세계 속의 강릉단오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대규모 홍보, 프로모션 방안 마련을 통해 국제적 위상 제고
- 단오제의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주민과 국내외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

다. 세계 중심 축제화 단계(2019 -)

- 세계 속의 단오제로서의 충실화를 위해 세계의 민속축제와의 적극적, 지속적 교류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활성화

- 지속적인 지역 엔터테이너 양성으로 세계 속의 문화전도사 역할 수행을 위한 국내외 공연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 남대천을 벗어난 단오문화촌 개발을 통해 성대한 강릉단오제 실시와 전통문화 전승의 기회 제공의 장을 마련하고 차별화되고 점진적인 프로그램 및 캐릭터의 생산
- 매년 개최되는 단오제 마다 강릉과 단오의 고유한 건물 또는 기념물 건립을 목표 함
- 강릉단오제가 세계적인 중심 축제화함

ID			
----	--	--	--

2014 강릉단오제 방문객 설문조사지

『제9회 강릉단오제』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강릉단오제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와 의견을 경청하여 향후 양질의 축제구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진솔한 응답은 강릉단오제평가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며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시간을 방해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강릉단오제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 6
(사)강릉단오제위원장

□ 다음 항목은 강릉단오제 참가자에 대한 공통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V표 하시거나 해당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이번 방문을 포함하여 강릉단오제에 지금까지 몇 회 방문하셨습니다? 총 _____ 회 방문

2. 이번 강릉단오제에 누구와 함께 참여하였습니까? 본인을 포함하여 몇 명입니까?

- ① 혼자 ② 가족(명) ③ 친구·회사동료(명) ④ 친목단체(10인 이내)(명)
⑤ 여행사패키지 관광(10인 이상)(명) ⑥ 기타 ()

3. 강릉단오제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얻었습니까?

- ① TV·라디오 ② 신문, 잡지 ③ 인터넷(강릉시 홈페이지) ④ 안내장, 팸플릿
⑤ 현수막, 포스터 ⑥ 주위 사람 ⑦ 여행사 ⑧ SNS ⑨ 기타 홍보물 ()

4. 다음의 강릉단오제 프로그램 중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순위대로 3개 항목을 골라 아래에 적어주십시오.

1. 전통연희	중요무형문화재, 道무형문화재, 지역무형문화재, KBS농악경연대회, 어린이농악경연대회, 사물놀이경연대회
2. 무대공연	무대공연 예술작품 공모 선정작, 한·청 실버가요제, 국내예술단초청공연, 국내자매도시 상호교류공연
3. 청소년어울림	청소년 가요제,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4. 국외초청공연	ICCN회원국, EATOF회원국, 강릉시 자매·우호·협력도시, 중앙아시아, 극동러시아 고려인, 중국조선족, 단오문화권
5. 단오체험촌	창포머리강기, 신주마시기, 수리취떡만들기, 단오부채그리기, 관노탈그리기, 캐릭터택분하기, 호개등·오랑관만들기, 단오1000타일그리기, 단오차 체험, 김유신 캐릭터 칼·활 만들기, 단오제신주담그기, 방짜수저(열쇠고리)만들기, 신주교환차 및 축제상품 판매
6. 시민 참여	신주미 봉정행사, 신통대길 길놀이, 주민자치센터발표회, 단오등 행사
7. 민속놀이	씨름대회, 그네대회, 투호대회, 줄다리기대회, 윷놀이대회
8. 문화·예술행사	강릉사투리경연대회, 대한민국전통주선발대회, 단오깃발사진전, 학생미술대회, 영주음사 지상 백일장,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 단오장기대회, 강릉전통혼례시연, 강릉단오제 체험기·독후감대회 축구정기전 강릉제일고:강릉중앙고
9. 부대 행사	강릉전국사진공모전, 찾아가는 공연, 단오우표전시회, 외국인단오체험행사, 공짜단오힐링투어, 스탬프투어, 팸투어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14. 다음은 강릉단오제 참가 동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표 하여 주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일상생활로부터 잠시 벗어나고 싶어서					
심신의 피로를 풀기위해서					
강릉단오제 프로그램 관람 및 참가를 위해서					
가족, 친구 등 동반자와의 즐거운 추억을 위하여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					
강릉단오제를 통해 독특한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어서					
강릉단오제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교통편이 편리해서					
강릉단오제 참가에서 지출되는 경비가 적정하기 때문에					

15. 다음은 강릉단오제 참가자의 인지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표 하여 주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강릉단오제가 2005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 등재된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강릉단오제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13호인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강릉단오제가 음력 4월 5일부터 음력 5월 초까지 한 달여 정도 진행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강릉단오제에서 모시는 성황신이 범일국사와 경방덕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강릉단오제가 천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강릉단오제가 음악, 춤, 문학, 연극, 공예 등 뛰어난 예술적 가치가 있는 종합문화축제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강릉단오제는 지정문화재와 일반 축제 행사로 진행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강릉단오제의 지정문화재가 신주빚기, 대관령 산신제·국사성황제, 구산·학산서낭제, 봉안제, 영신제·영신행차, 조전제, 단오굿, 관노가면극, 송신제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16. 다음은 강릉단오제 지정문화재인 '신주빚기, 대관령산신제·국사성황제, 구산·학산서낭제, 봉안제, 영신제·영신행차, 조전제, 단오굿, 관노가면극, 송신제'에 대한 참가자의 인지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행사에 관람 또는 참여 여부에 따라 V표 하여 주십시오..

항 목	예	아니오
신주빚기		
대관령 산신제·국사성황제, 구산·학산서낭제, 봉안제		
영신제·영신행차		
조전제		
단오굿		
관노가면극		
송신제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표 하여 주십시오.

1. 성 별 ① 남 ② 여
2. 결혼유무 ① 기혼 ② 미혼
3. 연 령 만 _____ 세
4. 거 주 지 _____도(광역시, 특별시)
5. 가족 전체의 월평균 소득 매월 _____만원
6. 최종학력
 ① 고졸 이하 ② 고졸 이상 ③ 대학 재학 중 ④ 대졸 이상
7. 직업
 ① 농·임·수산업 ② 서비스업 ③ 전문직 ④ 공무원 ⑤ 주부 ⑥ 학생
 ⑦ 회사원 ⑧ 기타 (_____)

8. 끝으로 강릉단오제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제안, 전반적인 축제 운영 등의 문제점과 아쉬웠던 점, 개선방안에 대한 귀하의 고견을 들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홍보방법	
축제기념품	
편의시설	
야간 즐길거리	
주변관광지 연계	
기 타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조사일시 :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

조 사 자 : _____

제 9 회 강릉단오제 프로그램별 모니터링 평가지표

축 제 명	제9회 강릉단오제		주관 및 주최	사)강릉단오제위원회/사)강릉단오제보존회	
조사자		일 시		장 소	
프로그램명					
구분	모니터링 내용				
주제성					
5 4 3 2 1					
참여성					
5 4 3 2 1					
신기성					
5 4 3 2 1					
고유성					
5 4 3 2 1					
의외성					
5 4 3 2 1					
총 평					

제9회 강릉단오제 모니터링 평가지표(프로그램외적 요인)

축 제 명	제9회 강릉단오제	주관 및 주최	강릉단오제위원회/강릉단오제보존회
조 사 자		조사일시	
구 분	세부내용	내 용	
편의 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시설 2. 식수시설 3. 휴게시설(매점, 벤치, 수유시설 등) 4. 화장실 개수·청결도 5. 오폐수처리시설, 6. 쓰레기 처리 		
홍보 및 안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제 홍보의 효율성 2. 프로그램 정보 전달의 적절성 3. 홍보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4. 안내시설(방송, 표지판, 안내도) 5. 안내요원의 배치 및 친절도 		
공간 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대·전시공간·체험공간 배치의 적절성 2. 먹거리 공간 3. 편의공간과의 혼잡도 		
진행 및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활성과 적절성 2. 순서의 적절성 3.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태도 4. 개최시기(시간)의 적절성 		
총 평			

인터넷 모니터링 결과지

○ 모니터링 1

<http://blog.naver.com/sisemdal>

[출처] 강릉단오제 간단한 후기..(2014.6.6)|작성자 은총이

속초에서 온천과 맛집을 넘나들며 뒹굴뒹굴하다가..강릉나들이를 가기로 결정
시댁어른들이 강릉단오제 한다면 구경 다녀오라고~우린 단오제가 있는지도 몰랐
다는....^^

근데 검색해보니....무형문화제로 등극되어 있는 유명한 축제더군요
공휴일이라 무척 붐빌거라고 걱정했으나 주차공간은 넉넉했던것 같아요...그럼에도
멀리~~~셔틀타는곳에 주차한 우리....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셔틀이 예술이네...ㅋㅋㅋ 매우 재미있는 놀이기구 타고~~~~~행사장으로
고고씽~일단 시작부터 아이들 즐거운 환호성~~~

입구엔 장터가 준비해있었고 체험홍보전 풍물시장 먹거리촌 메인행사장등으로 나
뉘어져 있었답니다.

외국인 아줌마에게 호객당해서 ㅋㅋㅋ 팔찌 구입..정말 장사 잘하심..

울딸은 체험하는곳마다 하고 싶다고~~~~

이런데 다니면 먹거리가...증말~~~길거리 음식도 사먹어보고

아이들이 감탄했던 꽃모양 솜사탕~~~정말 예술이더군요

동춘서커스장과 놀이기구존~

우리 아이들도 신나게 몇가지 즐겨주시고~

점심은 수타짜장 한그릇~~

창포물에 머리감기 체험도 있고 수리취떡과 단오신주를 무료로 맛볼수 있었지요
관노가면극을 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방문한날엔 공연이 없는날이었어요....아쉽게...

전통혼례체험이 있었는데 살짝만 봤었고

어린이 합창단 공연도 있었고....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한 시간이었답니
다~

다시 섭다리를 건너 셔틀타는곳으로

마지막 대학생 언니들이 만들어준 풍선아트~

갈때까지 즐거워했던 그녀~~~~

강릉 단오제 즐거운 시간이었답니다~

○ 모니터링 2

<http://blog.naver.com/ekgo7489>

[출처] 강릉 단오제방문 후기!!! |작성자 다도시

5/31일부터 6/6일까지 열리는 강릉단오제.

6/1일 일요일날 제가 다녀왔습니다!!

후기올려드릴게요 ㅎㅎ

청주에서 강릉으로 출발~!~! (3시간의 긴여정이었어요 ㅠ)

강릉도착!!! 강릉은 처음이라서 굉장히 들떠있었어요 ㅎㅎ

터미널에서 단오장까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비는 3100원나왔어요

버스보다는 택시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왕 단오장 도착입니다 ㅎㅎ

생각보다 행사장이 굉장히 커서 깜짝놀랐어요

저 단오문을 통과하면 행사장이 남대천을 따라서 짹~~이어져있어요!!

그런데 저는 서포터즈이기에 식권을 받기위해 단오제 주제관으로 향했습니다

단오제 주제관안에도 볼거리들이 있어요

밖은 굉장히 더우니까 안도 둘러보시면 좋을것같아요

주제관 2층입니다

계단을 올라가자마자 보인것이 바로 저 힐링뽑기예요

동생과 저는 보자마자 고민을 생각하고 신중히 뽑기를 뽑아서 열어봤답니다

그런데 보고 대실망,,, 저는 고민이더 커졌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빨리 취업할 수 있을지고민하며 뽑기를 오픈했는데...

'시간이 좀 더 흐른다면.....'이라고.....적힌 쪽지가 나왔어요.....아.....안

돼.....

슬픈마음으로 옆에 있는 주제관에 들어갑니다

주제관에 들어가면 이렇게 전시물들을 볼수있어요 ㅋㅋ

그리고 간단한 체험도 3가지 있었어요

첫번째 체험

단오부적만들기 체험!!!

특별한건 아니고 종이에 도장을 찍어서 갖는것이에요 ㅋㅋ

가정의 액운을 물리쳐준다고하네용

두가지 도장이있어서 둘다 하나씩 찍어서 집에 가져왔어요

이제 좋은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제관 밖에는 이렇게 캐릭터랑 사진도 찍을수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것 같아요 ㅋㅋㅋ
저도한번 찍어봤는데 못생겼네요.....
단오문을 통과해서 왼쪽으로 꺾으면 바로 안내소가 나와요
거기서 팸플렛 꼭 받으세요
팸플렛에 행사장안내도랑 행사프로그램 일정과 설명이 있어서
돌아볼때 정말 유용하게 쓰였어요
팸플렛들고 쪽 둘러봤어요 ㅋㅋㅋㅋ
둘러보니까 체험할수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어른들도 할수있는것들이 많지만 특히 아이들이 체험할게 정말 많았어요
아이들은 캐릭터 만들기 부채만들기 등등 소품 만드는 체험이 많더라구요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체험하고있었어요
신주맛보기체험은 정말 줄이 진짜길어요
수리취떡이랑 단오신주를 맛볼수 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쫓으다가 먹어봐야
지~~했는데
다시가니 점심시간이라서 결국 먹어보지 못했어요.....
운도 없네요.....
창포물로 머리감는거 구경하고 싶었는데 체험하시는분이 없더라구요 ㅜㅜ
방짜수저만드시는거 좀 구경했는데

진짜 신기했어요 ㅋㅋ
여기는 수리마당이에요
수리마당에서는 다양한 공연을 하는데 저는 제주 용머리예술단의 공연과
강릉색소폰앙상블의 연주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점심을 월먹을가 하는데 수리마당 바로앞에 귀엽게생긴 롯데리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찍어봤어요 ㅎㅎ
먹거리촌입니다
먹거리촌이 3군데가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수리마당에서 제일가까운 먹거리촌
에서 먹었어요
다 둘러봤는데 메뉴가 다 비슷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무데나 들어갔습니당
저는 이렇게 남대천 바로옆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물옆이 인기자리 더라구요 ㅋㅋㅋ
다들 물옆에만 앉으시더라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앉아서 해물파전과 비빔밥이랑 사이다2개주문!!!
(해물파전10000원, 비빔밥 6000원, 사이다1캔1000원)

점심먹으면서 봤는데 수상놀이기구도 있더라구용
 밥먹는데 옆에서 어떤커플이 타는거 찍었어요
 오리배같은거예요 ㅋㅋ
 어른들은 이거타고 아이들은 아이들노는 놀이기구들이 한쪽에있더라구요
 성인 무릎높이 풀에서 오리배도타고 미니기차도 타고 ㅋㅋㅋ인기많더라구요
 그옆에는 서커스공연도 하니까 보고싶은분들 구경하세요
 서커스 성인 관람요금 10000원입니당
 어린이나 청소년은 기억이 안나네요 ㅊ
 밥먹고 걸다가 창포교에 올라가서 찍어봤어요 ㅎㅎ행사장을 풀로찍고싶었는데 다 안보이네요ㅊ
 저 다리뒤로도 행사장이 길게있고 사진뒤쪽 그러니까 제 등뒤로도 행사장이 있어요 ㅋㅋ
 진짜 커용
 그네장입니다
 그네타기 대회를하고있어요 ㅋㅋ
 우승하면 큰상품을준다고하네용
 남자는 11M 여자는 9M를 넘어야 예선 통과예요
 동생도 참가하려했는데 6/4일이 본선이라고해서 참가하지 않았답니다
 저희는 다시갈수 없으니까요.....
 혹시 대회 참여못해서 아쉬워하지마세요
 옆에서 구경만해도 경품 추첨 많이해서 다양한 선물 주더라구요 ㅋㅋ
 저는 곳이라고하면 방울들고 흔드는? 그런거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구요
 제가본 곳은 잔잔했어요 ㅋㅋㅋ
 정말 많은분들이 보고계시더라구요
 농악공연이에요
 저는 진주삼천포농악과 이리농악을봤어요 ㅋㅋ
 농악은 TV로만보고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건 처음이라서 한쪽구석에 동생 이랑 앉아서 열심히 봤어요 ㅋㅋ
 강릉단오제, 저는 솔직히 조금은 무료할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기전에 조금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 정말 지루하지않고 재미있었어요
 단오제는 6/6일까지니까 한번 가족들과 방문해보는건어떨까요?
 6일은 현충일이라서 공휴일이니까 타지분들도 방문하시기 좋을것같아요
 단오제방문하고 근처에 경포해변도 보고!!정말 좋아요
 (저도 단오제보고 경포해변가서바다도 보고 집으로 왔답니당 ㅎㅎ)
 강릉사시는분들은 평일에 한번 꼭 방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 모니터링 3

<http://blog.naver.com/4freelove/220019729163>

(출처 블로그 "땅콩하마")

2014 강릉 단오제 - 첫날 방문기

올해도 어김없이 강릉에선 단오제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동해로 시집가서 해마다 단오제 참석하는 것 아시죠?

결혼 직전부터 가서, 올해로 삼년째 참석입니다.

올해 단오는 어제였지요.

그래서 단오제는 5월31일(토) ~ 6월7일(토)까지 진행되어요.

아무래도 자주 가다보니 이제 레퍼토리 파악이 되는 거 같아요.

처음에 어머님께서 단오장에서 사신 목걸이를 구입하신 곳에서 부품을 물어보신 다길래

장인데 그게 가능할까 ~~ 싶었는데

해마다 거의 같은 자리에 같은 물품이 있더라구요.

물론! 해마다 유행이 바뀌면서 새로 추가되는 것들도 있지요~

그래서 새롭고 행사들로 인해 더 흥겨운 단오제가 아닐까 해요.

올해 첫날엔 판매부스들만 문을 열고, 본격적인 행사는 일요일이나 월요일부터 시작을 한다더라구요.

좀 아쉬웠지만, 그래서 동춘서커스만이라도 보려고 했지만
신랑이 맞난거 사준다고 해서 양보했어요.

단오제가 시작되는 초입과 반대편 끝자락엔 품바가 있어요.

두 개 품바가 올해는 위치를 바꾼듯 합니다.

단오제가 맞나?싶은 외국인들의 부스도 꽤 보입니다.

북소리보다 오카리나 소리가 더 많이 들린달까요

해마다 몸에 좋은 약초나 성분들이 유행하는데요~

올해는 편백나무네요. 꾸찌뽕도 종종 보이구요

즉석에서 선보이는 캐리커처도 있구요

작년에 비해 청년사업가들이 많이 늘었나봐요.

젊은 총각, 처녀분들이 꽤 보이네요.

몇 몇 유명 관광장소에서만 보이던

지팡이 아이스크림도 이젠 주변에서 종종 보여요!

안내소도 곳곳에 위치해 있어서

단오제가 처음이거나 한 분들도 도움을 받기 좋을거 같아요.

저만치 힐링의 다리가 보이네요.

터키 아이스크림 아저씨들은 팔힘이 좋아야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이스크림 덩어리를 장난스레 내밀어야 하니까요.

아이들과 가족들이 좋아할만한 체험존도 있고요~

단오제를 기념하면서 소장할 수 있는
 아이템들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으니, 여러모로 좋은 추억이 되겠네요.
 단오제의 트레이드 마크 캐릭터들도
 각각 부스에서 판매상품속에 쓱!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이구요~
 향초만들기 같은 체험도 이젠 한번 해보고 싶단 생각이 들어요.
 내년엔 한 번 도전해 볼까요~?
 작년엔 솔향다리였던 거 같은데
 이번에 다리 이름이 바뀌었어요.
 십다리라네요 ㅎㅎ
 체험마당이 있는 건너편이에요.
 첫날이라 체험이나 행사가 없어서 많이 쓸쓸했어요.
 송신제를 알리는 풍경만 있을뿐~
 제를 올리는 흥겨운 모습은 아마도 이번 주에 하고 있겠죠?
 큰 행사이니만큼 장애인이나 아이를 잃은 가족들을 위한
 미야보호소도 마련되어 있어요.
 유모차나 휠체어 대여도 되니 행사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거 같아요.
 사람들 줄이 꽤 많이 늘어서 있는 곳이 있어 봤는데
 단오신주와 수리취떡을 맛보기로 나눠주는 곳이었어요.
 빠...빠질 수 없죠 ㅋㅋㅋㅋㅋㅋ
 막걸리 같은데 달콤하고, 그러면서도 도수는 강한거 같은??
 요고~~ 대박이네요.
 낫술이라(시부모님앞이라) 한잔만 마셨는데....아습아습!!
 빠...빠질 수 없죠 ㅋㅋㅋㅋㅋㅋ
 막걸리 같은데 달콤하고, 그러면서도 도수는 강한거 같은??
 요고~~ 대박이네요.
 낫술이라(시부모님앞이라) 한잔만 마셨는데....아습아습!!
 축제지만, 머리감기는 쉽지 않을까 ~ 싶은데
 아이들은 참여하고 있더라구요.
 지인분 통해서 먼저 만나봤던 창포삼푸!
 진짜 가볍고 부드러워서 좋은 삼푸예요.
 웬만한 놀이동산 못지 않은
 아이들 놀이기구도 많구요~
 에어바운스 뿐 아니라
 올해도 어김없이 강원도의 큰 행사로 자리잡을
 강릉 단오제!!
 파이널을 장식못해서 아쉽지만,
 다양한 볼거리가 있으니 휴가 가시는 분들도 한 번 들려보세요

○ 모니터링 4

<http://blog.naver.com/whatboy11/220020714309>

[출처] [강릉여행] 강릉단오제 행사장 들여다보기작성자 인어공주

안녕하세요!).<

인어공주 놀이터를 운영하는 인어공주입니다.

오늘은 강릉여행기를 들려드릴텐데요

2014.5.31(토)~6.7(토)기간 동안 강원도 강릉에서는 단오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강릉단오제 먹거리 볼거리 등을 소개해 드릴꺼예요..

강릉단오제 기간: 2014.5.31(토)~6.7(토)

강릉단오제 장소: 강원도 강릉시 남대천 일원

서울에서 강릉은 일직선으로 연결될 만큼 가깝지만 먼곳!

강릉단오제 행사 구경을 위해서 저는 지난주 토요일 강릉여행에 나섰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다녀온 단오제 후기를 위주로

2014 강릉단오제 먹거리 볼거리를 소개해 드릴꺼예요

하늘 참 맑은 초여름, 저는 강릉단오제 현장이 한창인 남대천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완전한 맑은 하늘이군요

그런데 실제로 날씨는 무척이나 더웠답니다.

땀이 뺄뺄 카메라가 뜨거워져서 사진찍기가 어려울 정도로 행사장의 온도도, 열기도 뜨거웠지요

단오문을 지나서 단오제 행사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행사장안에는 길게 늘어서 장의 행렬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예전에 진주남강유등축제에 갔던 현장과 비슷한 모습이더라고요.

사실 단오는 중국에서 유래된 명절이긴 하지만 설날, 추석을 잇는 중요한 행사이죠.

농민들에게는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이기도 하고

이날은 흥겹게 즐기는 날로 축제와 같은 날로 씨름, 그네뛰기, 등의 민속놀이를 하면서 축제를 즐겼죠.

전통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행사장!!

이곳저곳 사람들 소리로 가득한데 정말 생기넘치더라고요.

어디선가 가위질 소리가 들린다 싶었는데 엿을 만들어 팔고 계시더라고요.

3대 짜 옛을 만들고 계시다는데

정말 할아버지, 아저씨, 아드님 까지 옛을 만들고 계셨어요

물론 지금 할아버지는 쉬시면서 감독만 하시지만요 ^^

이빨(치아)에 달라붙지 않으면서 달콤한 옛을 만들고 계신데 진짜 방금 만든 옛을 주시는데

안살수가 없는 달콤함이었어요.

저도 옛이랑 조청을 구입해서 가져왔답니다.

옛은 아직도 남아서 컴퓨터 하면서 먹는데 꿀맛!!

인절미, 호박엿,

그중에서는 인절미 옛이 가장 최고!!

그리고 먹기리 말고도 체험할수 있는 공간이 많았어요

특히, 창포물에 머리 감기 체험이 있더라고요

진짜 화장만 안했더라면 어머님께 머리를 맡기고 머리 감기 체험도 하고 싶었어요.

주변 남대천도 참 멋지더라고요

남대천에서 배타는 체험도 있는데 저는 물에 띄어두고 싶었다능

특히 밤에는 남대천에 등불이 뜬다는데 진짜 멋질것 같아요

강릉단오제 밤에 봐야 더 멋질것 같가요